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5월 12일(음력3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473호

중국차·다기 제값은 얼마?

가격 제각각·품질 검증안된 채 마구잡이 유통

7월 농산물시장 개방 … 대책 세워야

적게는 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보이차와 오룡차, 철관음, 대홍포 등이 시중에서 대량으로 수입·판매되고 있는 등 '외국차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정보는 일부 수입상에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7월 WTO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질 낮은 차와 다기가 다량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차인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소비자가 외국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차 수입상들은 질이 나쁜 차를 '40~50년 된 보이차'로 둔갑시켜 수 십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다기도 예외는 아니다. 시중에서 크게 인기를 끌며 2~3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는 자사호는 '중국 의흥 지방에서 생산되는 자사(紫沙)로 만든 다기'가 아닌 일반 태토에 염료를 섞어 만든 '가짜 자사호'일 가능성이 높다. 인사동 차전문매장 '훈'의 양경년(50) 대표는 "소성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다구에는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차를 우려 마실 경우 그대로 체내에 축적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특히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오는 7월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쿼터 내 40%, 쿼터 초과 500% 이상의 높은 관세율 때문에 수입이 제한되었던 외국의 차가 대량으로 수입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값싼 차가 대량 수입될 경우 연생산량은 2천 톤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찻값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5~10배 정도 비싼 국내 차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백 만 명을 헤아리는 차인과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우리 차 시장은 외국 차 업계가 넘볼만한 큰 시장임에 틀림없다. 이미 1980년부터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의 차가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일본의 다도 유파들도 국내 차 단체들과 교류함으로써 말차를 우리 차 시장에 알려왔다.

그 중에서도 92년 수교 이후 대량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중국차는 차 시장의 60~70%를 잠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몇 년 사이 인사동에는 수십여 곳의 중국차 전문점이 문을 열었고 인터넷 상에서도 외국차 전문 판매사이트가 속속 개설되고 있다.

한서대 차학전공 정인오(42) 주임교수는 "현재 외국차의 수입과 유통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차시장이 개방되기 전 녹차 대중화 운동과 품종 개발 등 우리 차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관련기사 31면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절하기 힘드네 5월 5일 조계사 동자승들이 월간 <불광>과 목아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 나들이에 앞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보기만해도 환희심 천진불들 …

동자승 봉축기간 최고의 마스코트
전국 10여 사찰·단체 단기출가 붐

'천진불 동자승'. 동자승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최고의 마스코트로 떠올랐다. 동승들의 해맑고 천진한 모습이 불자들은 물론 사찰을 찾는 일반인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계사를 비롯해 대구동화사, 부산 홍법사, 내원정사, 서울 봉은사 등 10여 곳이 봉축기간에 맞춰 동자승 단기출가 행사를 갖고 법회, 동자승들과 함께 소년소녀가 장돕기, 탁발순례, 외국인과 연등 만들기 등 각종 행사에 나서고 있다. 동자승이 '봉축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단기 출가체험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동자승이 '자비의 사절단' '불교 홍보대사' '얼굴' 역할까지도 하면서 각종 나눔 행사와 봉축현장에서는 '천진불' 동자승의 미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관련기사 4면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한 달 내내 '봉축특집' …금주 36면 발행

'현대불교'는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봉축 특집'을 연속 발행합니다. '현대불교'의 특집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봉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봉축특집 주요 주제

▶첫째 주 (5월5일자) 나눔의 손잡기
▶둘째 주 (5월12일자)
개구장이들 스님 되다 ——— 4면
불교공부하는 타종교 성직자들 ——— 8면
〈오늘의 세계불교〉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추구 미국 ——— 9면
강의실에서 일상속으로 영국
웰빙시대 흐름타는 독일 ——— 10면
육바라밀의 실천 티베트
유럽불교 중흥의 중심 프랑스 ——— 11면
인간정토구현 나선 타이완
생활속에 꽃 핀 신행 일본 ——— 12면
뜨거운 수행열기 남방불교 ——— 13면
빗나간 웰빙열풍(2) ——— 35면
▶셋째 주 (5월19일자) 禪바람을 이어간다
저명인사들의 초파일 감회
▶넷째 주 (5월26일자) 줄어드는 불교 인구, 대안을 찾아라
길에서 맞는 부처님 오신 날

현대불교 구독료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통합 … 이제는 '중앙신도회'

7일 조계사서 '한몸' 선언

조계종 신도회가 양분의 시대를 마감하고 '중앙신도회'로 통합됐다.

신도회 통합추진위원회는 5월 7일 조계사에서 신도회 통합과 나아갈 방향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신도회 통합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중앙신도회는 "재가불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신도회의 정체성 확보와 조직확대 및 강화, 종법령 개정을 통한 신도회의 활성화, 통합신도회 지도력 확대 및 강화에 종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자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불자폰 사업을 통해 신도회 조직을 강화, 정보화 사회에 맞는 불교콘텐츠를 개발하고 조직 정비를 위한 전국 순회 개편대회를 열 계획이다.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의 양측 대의원과 지역·교구 신도회, 수도권 주요사찰 신도회 임원 등 2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한 이날 자리에서 백창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을 계기로 스스로의 신행자세를 점검하고 행동으로 불자임을 증명하는 참된 불자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조계종 신도회 회원들이 조계사에서 두손을 높이들며 신도회 통합을 환호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할'



그림·조태호

도현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8, 29면에서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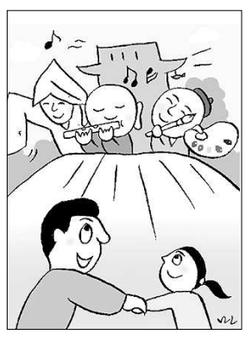


이제는 '문화법회'다

5월 2일 오후 봄비가 내리는 양산 통도사내 서운암을 지나다 봄꽃축제 플래카드를 보고 차를 멈췄다. 축제 기간이 지났는데도 오솔길 따라 울타리에 붙어있는 봄꽃 사진과 꽃말들이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다. 봄비가 오는데도, 법회를 하지 않는데도 불자들이 오솔길과 사찰을 거닐고 있었다.

올 2월에 발표한 통계청의 작년 '사회통계조사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종교인구 중 월1회 이상 종교 활동 참여도는 불교 17.3% 개신교 81.1% 천주교 59.4%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불자들 대부분이 부처님오신날 연등 다는 것 정도로 불자라고 여기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종교인구 중 불자는 1999년 49%에서 작년에는 47%로 5년 만에 2% 정도 줄었다. 전체 종교인구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각 종교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주5일근무 여가문화 바꿔
절마다 특화된 '트레이드마크' 갖자

개신교나 천주교도 시대의 변천에 맞추어 다양한 형식의 예배나 미사를 준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성경을 사경할 수 있는 책자도 나와 있다. 사경은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데 타 종교에서 따라잡기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신자들의 관심꺼리를 만들어 신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심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법회가 고전적인 방식에 의존해 진행되다보니 설법 잘하고 재미있다는 사찰로 불자들이 몰려다니는 경우도 생긴다. 인터넷 혁명과 주5일근무의 확산으로 여가문화를 즐기려는 국민도 늘어나 이제는 '문화법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를 맞아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간접포교의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템플스테이가 현재는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상설기구로 자리잡았다.

정부에서 매년 20억씩 5년간 100억을 지원받기로 하고, 종단에서는 사업인프라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외국기업체연수, 대학생 심성개발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문화법회'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사찰은 진행 가능한 다양한 문화법회 형식이 있다. 어린이 법회에서는 부처님그리기, 청소년 법회에서는 무용, 찬불가, 불교영화감상, 도자기공예 등이 있다. 또 사찰의 유래와 역사적 배경을 찾는 답사여행, 산사음악회, 사찰 소재 그림전시회, 산사음식과 발우공양, 시 낭송회, 참선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가령 '나주 배' 지방특산물이 있듯이 지리산 ○○사 하면 녹차를 즐기는 곳, 도심의 ○○사 하면 시낭송으로 유명한 곳 등 트레이드마크가 생겨야 한다.

특히 지역사찰의 '문화법회' 마인드를 가진 스님과 경험을 갖춘 불교문화계인사가 만나야 한다. 그래야만 문화법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

■ 황재남(조계종 포교사단 중앙운영위원)

'다르마'와 '달마' 뭐가 맞나요?

학술단체련, 학술용어정비사업 내년 10월 마무리

한국불교학회, 불교용어 5천여자 '통일' 작업

니르바나와 너바나, 다르마와 달마 등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불교용어가 하나로 통일된다.

한국학술단체연합회(회장 송희성 · 이하 학단연)는 '학술용어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10월까지 철학용어 정비작업을 진행한다. 불교용어의 경우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초 · 중 · 고등학교 교재와 대학교재, 전문영역 등에서 뜻은 같으나 다르게 사용되는 학술 용어를 학자들 간의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다. 각 학문별로 연구된 내용을 공유하고, 학자들 간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어에 대한 약속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불교용어 표준화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와 새로 번역된 용어가 의미는 같으나 서로 다르게 쓰이는 경우와 중국이나 일본식 번역으로 우리말과 어감이 동떨어진 것을 대상으로 한다. 동일한 원어를 서로 다르게 번역해 혼용되는 용어와 적절한 우리말을 찾지 못해 원어발음 그대로 사용되는 언어도 대상에 포함된다.

일례로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팔리어와 빨리어의 경우, 관련 자료를 검색할 때 어느 용어를 검색어로 사용해야할지 혼란을 겪게 된다. 결국은 각각의 단어 모두 검색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데, 용어를 표준화하면 이 같은 이중고를 피할 수 있다.

이번에 표준화하는 철학 용어는 1만여 자로 불교학 용어 3천~5천여 자와 동양철학 용어 1천 5백여 자, 서양철학용어 5천여 자가 포함돼 있다. 불교학은 한국불교학회, 유학은 한국공자학회, 서양고대철학은 한국서양고전학회에서 주도하며, 철학 각 분야별로 12개 학회가 표준화사업에 참여한다.

불교학 용어 정비는 5월 14일 열릴 제1차 연구위원회의에서 표준화할 불교학용어 선정과 작업방법에 대한 논의로 시작된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 학자들이 불교학 용어를 표준화하고, 7월초 열리는 워크숍에서 학자들 사이의 이견을 수렴해 8월 중순까지 '불교학표준용어집'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관건은 학자들 간의 의견조율과 예산 문제 해결에 있다. 일부 학자들은 그동안 사용해 오던 용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단연 회의에 참석했던 김용표(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불교학자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정을 거쳐 각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단연이 학술진흥재단에서 받은 예산이 2천 6백만원에 불과해, 각 분야별로 배정된 예산은 회의 진행비용 20만원뿐이다. 이에 대해 이평래 교수는 "철학용어 표준화사업에서 불교학만 빠져 학술논문 작성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는 없다"며 "이는 불교학 발전을 위한 작업인 만큼 불교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불교용어표준화 연구위원회에서는 종단협 등에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동판 팔만대장경 봉정

해인사, 17일 대적광전서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 봉정식이 5월 17일 오전 11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다.

이날 봉정식은 760년 전 팔만대장경을 조성했던 의미를 되살리는 취지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총무원장 법장 스님, 불교계 중진스님들과 문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등 정관계 인사, 어린이, 청년 등 각 계각층 인사와 계층별 대표들이 헌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봉정하게 되는 동판 팔만대장경 최종 완성본은 보존성이 가장 우수한 '인청동 3' 재질로 제작됐으며, 동판 두께 1.3mm에 경판 크기는 695×239.5mm다. 서체는 고려대장경에 사용된 다양하고 어려운 이자체를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정자로 바꾼 '고려대장경연구소 제작 폰트체 정자본'이 사용됐으며, 목판의 심미감을 최대한 살리고 금속의 장점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관계자들이 5월 3일 북한 용천돕기 지원 물품을 보내고 있다.

한국 JTS, 北 용천참사 2차 지원…의류 1만1천점

북한 용천역 참사 긴급 지원을 위해 각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JTS(이사장 법륜)은 "용천 돕기 2차 지원물품인 의류 1만 1천여 점을 4월 29일 인천항에서 선적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한국JTS는 "북한에서 긴급 요청한 밀가루 200톤도 올 5월말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JTS는 4월 26일 이불, 의약품 등 1차 지원분을 전달했으며, 현재까지 총 2억 4천여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한국JTS 유희원 간사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11개 지역에서 캠페인 및 거리모금을 진행해 총 1천여만 원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도 용천역 참사 지원을 위해 5월 3일 라면, 밀가루 등 2천 6백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인천항에서 선적했다.

남동우 기자

절마다 청소년 가장과 손잡아

조계종, 1사찰 1가정 결연사업 전개

조계종이 소년소녀 가장과의 인연 맺기를 통해 맑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조계종은 '소년소녀 가장 1사찰 1가정 결연사업' 계획을 5월 6일 밝혔다. 조계종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 기존 결연후원 현황 조사 실시 및 결연 대상 사찰과 소년소녀 가장 수요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도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사찰과 소년소녀 가장과 결연을 맺어주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각 지역의 청소년복지사의 정기적 상담과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특히 이 사업을 단순한 생활비 보조 등의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찰 주지스님 및 신도들의 부모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사찰 초청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준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총무원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청 관할 소년소녀 가장 30여명을 추천받아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결연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직능직 2명 6월11일

조계종 13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6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5월 7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 종회의원 청화(교육) · 도공(행정) 스님이 교육원장과 보은 법주사 주지로 선출됨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다. 입후보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 299일 지혜의 등불 299연등 소요비용을 북한 용천역 폭발사건 구호 성금으로 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께 드리는
299일 지혜의 등불 발히기 봉행

우리절에서는 오는 5월26일부터 2005년3월21일까지 299일 동안 관음전에 자비를 들여 제17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위해 연등을 달고 불을 밝힙니다. 정당 · 종교 · 지역 · 정책 · 사상 등을 뛰어넘어 제17대 국회의원 299명 모두 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 뭔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지혜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연으로 국민들로부터 언제나 칭송받는 그런 입법위원들이 되십시오.

■ 참고자료
생전예수재를 봉행할 때 명부세계 열 분의 십대왕을 비롯하여 사자들과 권속 등 모두 299분의 신위를 모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겁 뒤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용화수 아래에서 도를 깨달으시고 세 번의 대법회를 열어 모두 299억의 중생들을 제도한다 하셨습니다. 이 299분의 신위와 299억의 제도중생의 수는 미묘하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와 맞아떨어집니다.



일원곡 9
지 장 경
짓고쓴이 : 고불고조
옮겨쓴이 : 지암일원
요모조모 : 동봉정휴

! 우리절에 오시면 무료로 보시해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제10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으뜸상을 받은 김희주 어린이가 작품을 들고 있다.

문광부장관상 김희주 양
부처님 그림 그리기대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월간 불광이 개최한 '제10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이천남초등학교 2학년 김희주 어린이가 으뜸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5월 5일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 앞 광장에서 열린 대회는 '부처님이 좋아요!' 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크레파스화 부문(유치원 · 초등 1,2학년) 수채화 부문(초등 3,4학년) 판화 부문(초등 5,6학년)으로 나눠 치러졌다.

대회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상을 이천초등학교 6학년 엄지희 어린이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창용초등학교 5학년 이지우 어린이 등 총 22명이 수상했다.

김은경 기자

국립공주박물관
신축이전 14일 개관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웅진 시기 백제문화를 조명해온 국립공주박물관이 공주시 웅진동 무령왕릉 뒤편에 신축, 5월 14일 개관한다.

새 박물관은 대지면적 2만여 평, 연면적 3천 5백여 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됐다. 옛 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5배 커진 규모다. 특히 지난해 5월 국보 제247호 공주의당금당보살상 도난 사건으로 곤혹을 치렀던 국립공주박물관은 새 건물을 신축하면서 보안시설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새 박물관에서는 개관기념 특별전으로 '우리문화에 피어난 연꽃' 전을 14일부터 개최한다.

오유진 기자

새싹포교 활동영역 넓힌다

대불어, 내달 법인으로 출범… "전국을 무대로"

어린이불자 양성을 위한 포교의 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대불어)가 6월 12, 13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사단법인 발족식을 갖고, 전국의 어린이들을 부처님 품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불어는 1998년 포교원 산하로 들어가기 전 모체인 (사)불국토를 목적사업 변경형식으로 등록, 이미 사단법인 절차를 마친 상태다. 또한 공식명칭과 사단법인 운영관련 정관 등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경 이사회를 소집해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대불어는 현재 포교원 산하의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대외 사업 및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아왔다. 즉, 정부 지원의 어린이 · 청소년 지원사업 공모와 정부운영 어린이 · 청소년시설 위탁 · 운영 등이 불가능했으며, 각종 행사 주체자로서 공신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이번 사단법인 등록으로 대불어는 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포교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주최의 어린이 · 청소년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들을 완비함으로서 각종 관련사업을 주도 ·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참가어린이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활동인증서 발급과 정부 명의의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게 돼, 어린이불자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이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불어 이수완 사무국장은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등 교계의 청소년관련 기관 등은 이미 법인으로 등록돼 종립학교나 사찰단위의 청소년불자들뿐 아니라 각종 국제행사와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일반 청소년들을 부처님 곁으로 이끌고 있다"며 "법인화를 계기로 교계, 특히 부산지역에 한정돼 있는 어린이포교 대상을 전국 어린이들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뉴질랜드 환희정사 종교허가 받아

외국 종교단체로는 처음
옥외포교 등 법적 지위 확보

뉴질랜드의 한국 사찰이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정부로부터 종교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법적 권한 확보를 의미하는 '종교 허가'를 받았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 위치한 '환희정사'는 최근 와이타케어시(waitakere city) 의회로부터 모든 종교활동은 물론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치를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뉴질랜드 내 불교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모든 종교단체 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종교 허가'를 받은 것은 환희정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환희정사는 법적 권한 취득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5월 23일 오전 11시 봉축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봉축대법회에는 뉴질랜드 수석 장관인 경제부장관과 와이타케어시장, 국회의원 등 현지의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뉴질랜드는 영국국교회, 장로교, 가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 현재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스리랑카, 티베트, 태국, 캄보디아 불교가 진출해 있으며, 중국과 일본불교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한국 사찰은 오클랜드에 2곳, 남섬에 1곳 등 모두 3곳에 불과하다.

뉴질랜드에서는 외국 종교 단체들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으나 '종교 허가'를 받지 않으면 활동에 필요한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근 주민이 법회 등 종교집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그 즉시 집회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찰이나 교회를 벗어나 종교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난 2000년 8월에 개원한 환희정사도 인근 개신교인 주민들의 법회 방해와 각종 민원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법적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환희정사는 앞으로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환희정사가 소유하고 있는 1만6천여 평의 대지가 '종교 지구'로 설정됨에 따라 사실상 '불교 지구'가 조성됐다. 게다가 공식적인 옥외 포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수확이다. 또한 현지인의 출생신고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장례식도 치를 수 있어 현지인 포교에도 큰 이점을 갖게 됐다.

뉴질랜드 정부 및 시와 맞서 법적지위 확보에 매달려왔던 환희정사 회주 무허 스님은 "이제 모든 법적 권한을 취득한 만큼 현지인 포교를 통한 한국불교 알리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원주 구룡사 대웅전 상량

지난해 9월 화재로 전소된 강원도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 대웅전 복원 상량식이 5월 3일 구룡사에서 열렸다.

이날 상량식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김기열 원주시장, 조명수 행정부지사 등 7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복원작업에 들어갔던 구룡사 대웅전은 다포양식 겹처마 팔작지붕 형태로 28.6평 규모의 한식목조건물로 지어지며,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웅전 복원은 지난 2002년에 실시됐던 도 문화재 실측조사 당시 작성됐던 보고서를 토대로 전통불교양식에 맞게 복원된다. 실측 보고서에는 건축양식은 물론 구조와 재료의 크기 및 색상, 단청 모양, 집기류 배치 등을 포함한 세밀한 도면이 마련돼 있어 원형복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행복 나눔장터 열린다
30일 대구교대운동장

5월 30일 정오부터 대구교육대학 운동장에서 불교사회복지회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이 개최하는 '행복한 나눔장터'가 열린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나눔장터'는 교환 가능한 물건을 서로 나누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공간이며,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사회적 복지사업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세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1 · 2 · 3 장터, 어린이들의 경제체험을 위한 어린이장터,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는 노인장터 등 주제별로 나눠진 장터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053)471-8090

대구=배지선 기자

전통의식작법구감 출간
법천 스님 15일 출판기념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법천 스님(광주 선양사 주지)은 불교의식인 영산작법을 상세히 설명해 놓은 <전통의식작법구감>을 출간, 5월 15일 오전 11시 광주 그랑프리호텔 7층에서 출판기념법회를 갖는다.

이번에 출간된 <전통의식작법구감>은 책을 읽으면서 영산작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광주=이준엽 기자

로카미트라 법사 6월 방한

인도불교지원사업단 초청



로카미트라 법사.

인도 불가촉천민을 돕기 위한 빈곤퇴치 운동인 '담마 운동'을 펼치고 있는 로카미트라 법사가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로카미트라 법사가 우리는선우, 참여불교재가연대, 현대불교신문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불교지원사업단' 초청으로 방문하며, 방문 기간 동안 인도불교 후원단과의 만남, 강연회 등을 통해 TBMSG(범세계불교교단 우의회, the Trailokya Bauddha Mahasangha Sahayaka Gana) 활동 소개 등을 할 예정"이라고 5월 6일 밝혔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영국 출신으로, 1979년 스승인 상가락시타에 의해 조직된 TBMSG를 이끌고 있다. TBMSG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 없이 포용하는 근대적 불교 교단인 '범세계불교교단(TBM)' △종교조직 협의체인 TBMSG △'바후잔 히타이(Bahujan Hitay, 만인의 이익을 위해)'라고 불리는 사회활동 분과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정치색을 배제하고 순수한 포교와 사회복지 사업에만 집중하며 그 수혜자를 불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

한편 인도불교지원사업단은 지난해 말 인도 나그푸르 여성수행센터 건립지원 프로젝트에 이어 최근 TBMSG 산하 잠부드비파 기금(Jambudvipa Trust)을 통해 구자라트 지역 여학생 기숙학교 건립 프로젝트에 1만 달러를 지원했다.

TBMSG는 현재 구자라트 지역에 남여 기숙학교를 건립 중에 있지만 2000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라크전의 여파로 건축자재비가 폭등해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고 한다.

남동우 기자

印 JTS 봉축 법요식 봉행

보시금 전액 北 용천역 참사돕기로

인도 부처님오신날인 5월 4일,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강당은 학생과 마을주민 1400여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사진)이 열린 것이다.

"나모 사키야모니 부다(나무 서가모니불)."

빤쯔실(5계)을 암송하고 잠시 명상에 든 참석자들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법륜 스님(JTS 이사장)을 대신해 이화승 인도JTS 사무국장의 목소리로 들었다. 법요식 후 수자타아카데미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부채춤, 태권도, 사물놀이, 인도 전통춤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모아진 보시금 전액은 북한 용천역 참사 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매주 토요일 법회에서 모아지는 보시금도 북한 어린이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데 쓰기로 했다.

저녁부터는 인도, 태국, 티베트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보드가야 시



가지를 돌아 둥게스와리까지 3시간에 걸쳐 제등행렬이 열렸다. 손에손에 연등을 들고 탑돌이를 했으며, 아기부처님, 흰코끼리, 3층 탑등의 장엄물 등은 사물놀이와 함께 어우러져 구경 온 외국인들에게 찬탄과 환희심을 일으켰다.

인도JTS 이화승 사무국장은 "인도에서는 한국과 같은 봉축법요식이 없다"며 "UP주 선거 때문에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상카시아를 중심으로 매일 한마을씩 돌며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인도JTS, 남동우 기자

제 1회 오대산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

- 생명 · 평화 · 나눔을 위하여 -

살아있는 자연과 불교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오대산에서 걷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상생, 생명 · 평화의 기원, 나눔을 통한 자비실천의 체험을 통해 자기 수양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일 시 : 2004년 5월 16일(일) 오전 10시 30분 ~ 13시 30분 (제한 3시간)
□ 장 소 : 오대산 월정사 - 상원사 □ 걷는거리 : 약 10km
□ 집 결 지 : 월정사(5월 16일 오전 10:00까지 집결)
□ 접 수 : 2004년 4월 25일 ~ 5월 16일 오전 10:30 □ 접 수 처 : 국립공원 매표소와 월정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 후 원 : 불교신문, 불교텔레비전, 불교라디오 춘천방송, 평창군청, 평창경찰서, MBC 원주, KBS 강릉,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2. 참가안내

□ 참가자격 : 나이제한 없음(가족동반 환영)
□ 참 가 비 : ●일반인: 10,000원 ●대학생이하 및 10인 이상 단체: 5,000원
●참가자에게 기념품(티셔츠, 버튼, 풍선) 지급 ※참가비용은 장애우를 위해 사용함.
□ 입 금 : 농협 313065-55-000880 월정사
□ 신청방법 : ●인터넷 ⇒ http://www.woljeongsa.org
●우편 및 방문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월정사 연등축제단
●전화 : 033)332-6661-6 / FAX: 033)332-6915

3. 코스 및 준비물

□ 대회코스
월정사 → 전나무숲길(생명의 쉼터) → 반야교 → 상원사 선재농장 → 오대산장(나눔의 거리) → 상원사(평화의 기원)
□ 준 비 물
●복 장 : 엷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는 것이 좋으며, 자켓, 모자 등 필요 ●신 발 : 워킹화 또는 경등산화
●편의식 : 빵, 초코렛, 초코파이, 찰떡, 생수, 우유, 음료, 과일 등으로 자신의 기호에 맞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
●기 타 : 쓰레기봉투

「천년의 설레임, 함께 가는 중국 문수성지 순례」 동참



오대산 월정사는 자장율사께서 신라 선덕왕 12년(643년)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부처님 정골사리를 봉안한 곳으로써, 중국 오대산과 1,400여년만에 자매결연을 통해 수행교류 등을 확대하여 화엄사상과 문수신앙을 대중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대산 월정사 문수성지 순례단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중국 오대산 문수성지 일대를 순례할 예정이오니 불자들께서는 많은 동참바랍니다.

다 음

□ 방문일시 : 불기 2548(2004). 6. 24 ~ 29
□ 동참금액 : 91만원(개인소요 경비, 여권발급비용, 한국내 이동경비 불포함)
□ 입금계좌번호 : 313065-55-000325 농협 / 예금주 : 오대산 상원사
□ 준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현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및 서류마감 : 5월 31일
□ 문 의 처 : 오대산 상원사 종무소 (☎ 033-332-6666)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 후 원 : 오대산 월정사 신도회, 중국 산서성 불교협회, 중국 오대산 불교협회, 중국 산서성 여유국 등

불기 2548(2004). 4. 3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합장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5월 6일 조계사 대웅전 처마밑 댓돌. 앙증맞은 하얀 고무신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아래 사진). 고무신 안에는 현일, 현행, 현수, 현문, 현성, 현진, 현혜, 현광, 현오, 현경, 현원 등 법명이 쓰여 있다. 속세의 이름을 버린 지 닷새째. 11명의 조계사 동자승들이 한 달 동안 속세의 연을 끊고 '스님'이 됐다.



"목숨 다하도록 술 마시지 마라. 이를 지키겠느냐"
"예~!"
하하하-



❶



❷

개구쟁이들 스님 되다

조계사 동자승 선발에서 수계까지

행자입방식이 있던 4월 28일, 동자승 숙소 '안심당(安心堂)' 앞마당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스님들과 장난칠 때까지만 해도 생글거리던 아이들은 잠시 후, 배웅 나온 부모의 뒷걸음질에 '으앙' 울음을 터뜨렸다. 방안을 뒹굴고 떼를 쓴 지 1시간. 스님이 내민 사탕을 빨아먹으며 이내 방글방글 웃는다.

드디어 5월 3일 삭발식. "머리를 깎으십시다. 조용히 머리만 내밀어요."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잘려나갔다. "윙~윙~." 전기이발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대웅전을 메운다. 깎아 놓은 밤톨같이 하얀 민둥머리가 드러난다. 삭발 머리가 어색한지 연신 머리만 쓰다듬는 동자승들. 현문(박준오 · 6) 스님이 명선 스님(조계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에게 묻는다.

"나 이제 스님처럼 된 거예요?"

"아니예요. 계를 받아야지요. 그래야 스님이 되는 거지요."

이어 열린 수계식. 장난기어린 얼굴들이 자못 엄숙해진다. 가사를 수하고 합장한 두 손을 이마에까지 올린다. '계를 능히 수지하겠느냐'는 계사 지홍 스님의 물음에 큰 소리로 대답을 한다. 사미십계 중 다섯 번째, '불음주계' 순서.

"이 몸에 목숨이 다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받아 지키겠느냐?"

"예~!"/ "하하하~"(일동 웃음)

"저기 대답 안하는 친구. 술을 마시겠다는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예~~!" 대답 소리가 더 커진다.

현행(이동건 · 7) 스님이 대표로 서원문을 또박또박 읽는다. "저희들은 친구 스님들과 싸우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잘하겠으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동자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부모들에게 삼배의 예를 올리는 시간. 부모들도 스님이 된 자식들에게 삼배로 예를 표한다. 그리고 동자승들과 부모들이 손을 맞잡는다. 하지만 오랜만에 본 부모에게 칭얼대지 않는다. 곧바로 이어진 헤어짐에 '안녕히 가세요'라며 오히려 손을 흔들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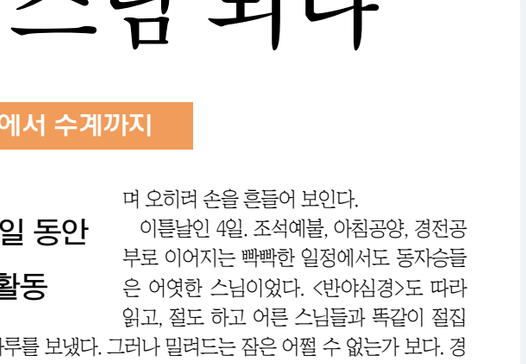
출가기간 30일 동안 자비사절단 활동

이튿날인 4일. 조석예불, 아침공양, 경전공부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에서도 동자승들은 어엿한 스님이었다. <반야심경>도 따라 읽고, 절도 하고 어른 스님들과 똑같이 절집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밀려드는 잠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경전공부 시간에는 스님 이야기에 아랑곳 않고 깜빡 잠이 든다. 저녁예불 풍경은 더욱 흥미롭다. 좌복에 앉자마자 하품이 쏟아진다. 목탁 소리에 부처님께 절은 올리지만, 잠에 취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 둘 끄떡끄떡 졸음에 빠진다.

출가 3일째인 5월 5일 어린이날. 첫 바깥나들이에 나섰다. 월간 <불광>과 목아박물관이 마련한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것. 또래 아이들에게 '스님이 부처님을 그린다'며 내내 '자랑(?)'을 한다. 여기에 신자들이 '스님, 스님'하며 꼬박꼬박 존대를 하자 동자승의 발걸음은 금세 '양반걸음'이 된다.

앞으로 동자승들은 10일 낙산어린이집 방문, 15일 축구대회, 23일 연등축제 등 각 봉축행사에서 '자비의 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오는 28일 환계식을 갖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❺



❸



❹

①엄마와 헤어짐(행자 입방) ②스님되는 길목에 서다(법복 착복식) ③드디어 삭발, 어엿한 스님이 되다(삭발식) ④따끔-연비에 눈물 흘리다(수계식) ⑤"내 그림이 최고야"(어린이날 어린이부처님그리기 대회 참가).
사진=박재완 · 김철우 기자



반야원 아이들이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든 등을 들어보이며 환히 웃고 있다.

불기 2548년 봉축 준비 현장 거제 반야원

"솜씨 서툴지만 자랑스러워요"

중증장애시설 원생들 자원봉사자 · 이웃어른과 함께 팔 걷어붙이고 연잎 빚어

거제 중증장애인시설 반야원(원장 도성) 원생들의 손끝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반야원 법당을 환히 밝힐 연등 만들기가 시작되면서 반야원을 찾는 지역주민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손끝도 붉게 물들기는 마찬가지다.

5월 3일, 연잎을 풀고 연잎을 빚고 촬사틀에 종이를 붙이는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이 도맡아 왔던 연등만들기에 장애우들도 팔을 걷고 나섰고, 반야원이 위치한 동부면 인근 마을 주민들도 틈나는 대로 일손을 보태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주민들은 등 만드는 울력 동참은 물론 반야원 후원을 위해 기꺼이 등을 달기도 한다. 반야원이 피하고 싶은 장애시설이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하는 생활 복지 시설로 자리를 잡았다는 반증이다.

섬세한 솜씨가 필요한 연잎 빚기가 시작되었다. 연잎을 생전 처음 빚어보는 원생들의 서툰 솜씨 탓에 실패작이 많았지만 자원봉사자와 이웃 어른들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아이구, 참 잘 했네. 또 한번 해볼까."

자원봉사자들의 눈엔 정신지체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연잎 만들기에 나선 것 자체가 대견스러울 뿐이다. 10년째 반야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김둘자(50 · 동부면) 보살은 "올해 처음으로 다함께 연잎을 빚는데 원생들이 너무 잘한다"며 "마을 할머니들도 틈나는 대로 와서 도와주시고 마을 잔치 준비하는 것처럼 즐겁다"고 웃어 보였다.

5월 14일 자원봉사자, 마을 주민, 원생들이 대거 참석하는 연등만들기 행사를 기점으로 20일까지 300개의 연등을 만들어 법당에 달게 된다. 건물 외벽과 내부에 7백 개에 이르는 등을 달아 환하게 불을 밝히면 거제 동부면 마을의 봉축 준비는 막바지에 이른다.

5월 26일, 반야원 법당에서 원생들이 올리는 육법공양으로 시작될 봉축 법요식만 남겨 놓은 반야원의 봉축 준비는 한자리에 둘러앉아 마음을 나누며 연꽃등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가락 끝에서 붉게 무르익고 있었다.

거제=천미희 기자



충주에 참선 전문도량 우뚝


5월 15일 낙성법회를 봉행하는 충주 석종사 대웅전.

석종사, 화엄변상도 따른 가람 배치
선원 완공되면 혜국 스님 직접지도
인간문화재들이 불상 · 단청 맡아

출 · 재가자의 수행을 위한 참선 전문도량이 충주시 직동에 들어선다. 석종사(주지 성담)는 5월 15일 대웅전을 비롯한 9개 전각의 낙성법회를 봉행, 본격적인 참선수행 확산과 포교에 나선다.

석종사의 총 부지는 10만여 평. 이곳에 대웅전 오화각 조실채 소소원 혜명원 감로각 금불암 등 9개의 전각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건축은 봉암사 등에서 대웅전 불사를 담당했던 김범식 씨가 맡았고 인간문화재 석정 스님, 청원 스님이 단청과 탱화, 불상을 조성했다. 석종사 스님 30여 명도 직접 포크레인을 운전하며 불사에 참여했다.

석종사는 이날 낙성식과 더불어 스님 선방인 금봉선원과 재가자 수행처인 보살선원의 공사를 시작한다. 선원이 내년 가을 완공되면 혜국 스님이 직접 참선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석종사가 들어선 장소는 신라시대 대가람인 죽정사가 위치했던 곳으로, 조선 시대 충주 관아 공사를 위해 파괴된 후 방치돼 있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혜국 스님은 20년 전부터 토지를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 10만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3년 전부터 대웅전, 요사채 등 불사를 추진했다. 충청불교계는, 불교수행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참선 전문도량 석종사가 낙성됨으로써 이 지역 불교가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전국선원장회의 의장)은 "석종사 불사의 특징은 화엄변상도에 따라 법당을 건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 불국사처럼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전각 배치, 법당 간 처마걸이, 지붕 높이 조절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주지 성담 스님도 "짜임새 있는 석종사 불사를 보고, 문화재청이 근래에 지어진 사찰 건축의 교과서로 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라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수행 환경을 갖추어 한국 불교를 이끌 도인을 탄생시킬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043)854-4505

충주=강유신 기자

톡톡 튀는 프로그램 지역민에 '쏙'

부산 화명복지관 7일 개관
가족상담 · 키드런 등 서비스

톡톡 튀는 프로그램과 최신 시설을 갖춘 화명복지관(관장 유정)이 5월 7일 부산 화명동에 개원됐다.

가족문제상담실, 장애아동통합치료실, 임산부 휘트니스, 아동을 위한 인성 · 신체발달 지원 프로그램 '키드런'. 모두 지역민 욕구 충족을 위한 사전조사 끝에 마련한 프로그램들이다.

화명복지관은 부산에서 처음 실시되는 '키드런'을 비롯 장애아동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장애아동통합치료실 등으로 복지사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장례사업단을 구성, 장례 절차 정보와 장례절차 일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구상중이다.

화명복지관은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 외에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어학실과 20대의 컴퓨터를 갖춘 전산실 등은 오감을 자극하는 전문 교육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도실에서는 다도, 명상, 요가도 실시한다. 특히 초 · 중 · 고 교가 많은 점에 착안, 학교사회사업도 추진 중이다. 주 1~2회 학교 상담실 운영, 청소년 아동 집단상담, 또래상담자 교육 후 활동 등 청소년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7일 열린 개관식에서 유정 스님은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한발 앞서 지역민들을 기다리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와 너가 둘이 아닌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진정한 복지일 것"이라고 말했다.(051)338-2233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제18회 선덕여왕 숭모제

선덕여왕 숭모회(회장 최태향)는 불교를 숭상한 선덕여왕의 뜻과 공덕을 기리기 위해 '제18회 선덕대왕 숭모제'를 5월 3일 팔공산 부인사에서 봉행했다.

헌공의식, 숭모제, 법어, 축사 순으로 이어진 숭모제는 동화사 부주지 보의 스님, 부인사 주지 성타 스님, 조해녕 대구시장 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동참했다.

선덕대왕 숭모제는 성타 스님이 매년 음력 삼월보름날 봉행해왔다. 배지선 기자

남천다회 다신제 봉행
초의선사 제다법 시연



스님을 중심으로 국내 처음 유기농 차 작목반을 결성해 순수 우리 차 보급에 나선 남천다회가 다신제를 봉행했다.(사진)

해남 차 작목반 남천다회(지도법사 여연 스님 · 일지암 주지)는 5월 5일 북일면 차밭에서 햇차가 나왔음을 하늘에 고하는 헌다를 하고 차를 시음했다.

헌다에 앞서 여연 스님은 환영사에서 "차를 통해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자 고민하던 중 해남의 청년들과 함께 차밭을 일궈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생산하게 됐다"며 "동다송과 다신전에 근거한 순수 우리차를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년 전부터 '손덖음 첫물차'를 일반에 선보이고 있는 남천다회는 토양검증, 무농약, 무화학 비료, 잎 성분검사로 우리 차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이준엽 기자

약천사 국태민안 수륙대재



부산 약천사(주지 법인)가 주최하고 부산경남 서부불교지도자협의회(회장 종원)가 후원한 국태민안과 국정발전 및 무주고혼을 위한 수륙대재가 5월 3일 부산 사하구 수협공판장에서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사진)

약천사 주지 법인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어려움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발원하며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낙동복지관 개관 5주년

낙동복지관(관장 임광수)의 개관 5주년 기념행사가 30일 국제신문 4층 중강당에서 열렸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장 혜총 스님, 부산시 강서구 안병해 구청장, 한국복지관협의회 구철수 회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개관 5주년 기념식과 함께 위덕대 정교실장 덕일 정사의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천미희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북한산 심곡암

산사 문화포교 선두주자


일 년에 두 차례씩 '산사음악회'라는 문화포교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북한산 심곡암은 오는 5월 16일 열리는 '제5회 산꽃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매년 5월 음악회 등 열린 공간
휴식 · 수행 겸한 수련원 계획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봄꽃이 만발한 북한산 형제봉 심곡암(주지 원경, www.simgokam.org).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요즘 5월 16일 열리는 산사음악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출연 가수와 무용단 섭외는 4~5개월 전 주지 원경 스님이 끝냈고 안내장도 이미 발송을 마친 상태. 하지만 매번 1천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행사를 준비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다. 현재 심곡암 다도회원들은 육법공양과 생활다례 시연 마무리에, 종무소 직원들은 음악회와 전시회 순서를 점검하고 그날 쓰일 물품을 빼놓지 않고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산사음악회의 선두주자인 심곡암의 봄 산꽃축제는 올해로 5회째를, 가을 단풍축제는 7회째를 맞게 됐다. 지난 1996년 심곡암 주지를 맡게 된 원경 스님이 봄이면 개나리와 산벚꽃, 라일락, 철쭉 등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드는 이곳의 자연을 '혼자 즐기기 아까워' 97년 가을부터 산사음악회를 열기 시작한 것이다.

"도심 속에서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불심(佛心)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산사음악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심곡암 산사음악회 마니아들도 생겨 봄, 가을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산을 배경으로 발 아래 서울 도심이 펼쳐지는 심곡암의 입지조건은 '가깝지만 깊은' 산사의 느낌을 그대로 전해준다. 심곡암 마당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는 너럭바위도 산사음악회 무대로 쓰여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관람객들이 문화공연을 즐기며 자연스레 불교를 접하게 돼 신도도 나날이 늘어갔다. 처음 200~300부 정도 발행하던 심곡암 소식지 '심곡'은 이제 2천부 정도로 부수가 늘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에게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공감대를 심어줍니다. 여기에 문화공연이 더해지면 자연스레 사람이 모이고 화합하게 되는 것이죠. 신록을 벗삼아 공연을 즐기다보면 굳이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을 열어 법향을 느끼게 됩니다."

심곡암이 마련하고 있는 또 다른 포교의 장은 바로 문수전 수련원. 원경 스님은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을 일반인들이 묵으며 자연을 즐기고 수행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릴 예정이다.

"사찰이 잠시 구경만 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오래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수행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수련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올 가을 문을 열게 될 수련원은 휴식과 수행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02)914-8860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Waitakere City Council
Te Taiao o Waitakere

Waitakere City Council
Civic Centre
6 Waipareira Ave
Waitakere City

Telephone 09 836 8000
Facsimile 09 836 8001

DX CX 10250 Auckland Mail Centre
Email: info@waitakere.govt.nz
Website: www.waitakere.govt.nz

Private Bag 93109
Henderson
Waitakere City

26/04/2004

International Buddhist Meditation Temple of New Zealand
631 Huia Road
Huia
Waitakere

CERTIFICATION OF APPROVAL FOR 631 HUIA ROAD, PARAU
INTERNATIONAL BUDDHIST MEDITATION TEMPLE OF NEW ZEALAND

This letter is to certify that approval has been granted to the International Buddhist Meditation Temple of New Zealand to utilise the property at 631 Huia Road, Parau, for the purposes of a religious temple and associated religious activities, including meditation, bible classes, counselling, prayer services, religious services, weddings, funerals and birth ceremonies, subject to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approved resource consent RMA 20031777.

If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the above, please contact Hamish Anderson of Consent Services (phone (09) 836-8000 Ext 8644).

Yours faithfully

Hamish Anderson
Senior Planner on behalf of Waitakere City Council

경 축

뉴질랜드 환희정사

종교(불교사찰) 관련 일체 법률허가 취득 및 불교 성지지정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환희정사는 그동안 여러 해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인근 일부 현지 주민들의 거듭된 비불교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2004년 4월 15일 본 사찰 관련내용 법안 통과 건으로 뉴질랜드 waitakere 시의회에서 최종 Hearing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불교)로써 종교 사찰허가, 종교목적 대지, 종교 부속건물 및 일체 종교 활동의 법률적 허가를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국가법에 의한 종교로써의 법률적 권한을 획득하여 (RMA20031777) 뉴질랜드의 종교(불교사찰)관련 법률허가 취득 및 불교 성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한국 불교의 이 자랑스러운 기쁨을 한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 찰 명 : International Buddhist Meditation Temple of New Zealand (환희정사:뉴질랜드 오클랜드시 티티랑지 소재)
▶사찰 종교목적 허가 대지 면적 : 16,746평
▶사찰주소 : 631 Huia Road, Parau, Auckland, New Zealand TEL : (64)-9-817-3450, FAX : 64-9-817-3453

● 불교성지지정 의미 해설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종교 활동을 할 때 현지 지방정부에 Non Profit Corporation 등록을 하며,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현지 지방정부에 Incoporated Charitable Trust 등록을 중앙정부 상무부에 함으로써 충분합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종교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간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등록은 그 단체가 종교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종교로써의 권리 권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별도로 종교건물허가 종교용지, 종교부속건물, 종교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에 의하여 엄정한 심사를 필한 후 이러한 허가를 취득하면 종교로써의 절대적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웃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해당 정부관서의 우려로 인하여 해외 포교활동시 이러한 법률상 허가를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한국 사찰이나 교회들이 법률상의 종교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단순한 비영리 단체 등록만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지의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환 희 정 사 신도회
631 Huia Road, Parau, Auckland, New Zealand TEL : (64)-9-817-3450, FAX : 64-9-817-3453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청소년포교 가장 큰 일"

월주-원명 스님, 찬불동요 CD보내기 캠페인에 성금

찬불동요 보급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왼쪽)과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이 풍경소리에 성금을 전달하고 난 뒤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월주 스님 "나눔 생활화 돼야" 강조

원명 스님 "신바람 나는 불교로 변해야"

본지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벌이고 있는 찬불동요 CD보내기 캠페인에 미래불교를 걱정하는 스님들의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김제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이 4월 30일 좋은 벗 풍경소리에 금일봉을 전달하고, 찬불동요 창작 및 보급운동에 힘을 보탰다. 또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도 최근 좋은 벗 풍경소리에 찬불동요 보내기 성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월주 스님은 이날 지구촌공생회 사무실에서 풍경소리를 적극 후원하고 있는 원명 스님과 이종만 풍경소리 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1996년 조계종 총무원장 재직당시 '포교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웠던 기억이 새롭다"며 "포교 분야중 불교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려야 할 곳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찬불가를 통한 포교는 부처님 말씀을 쉽고 간절하게 새기고, 일체감을 준다"고 덧붙였다.

"교계 포교의 문제점은 찾아오는 서비스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스님은 "대중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포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찬불동요 창작 및 보급과 관련,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대비해 국내 및 북한,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족 난치병 어린이돕기를 비롯 미얀마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제3국 빈곤지역 어린이 청소년을 돕기 위해 (사)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한 월주 스님. 스님은 "라오스에 유치원 개원과 캄보디아 학교보수, 미얀마 약품전달, 제3국 문맹퇴치 및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벗 풍경소리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은 "청소년 포교 없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스님은 "정적인 사회가 동적으로 바뀌어, 복잡한 경전말씀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귀에 와닿지 않는다"며 "마음으로 다가가는 소리를 통한 포교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불자들의 평균연령 66세를 30~40년 밑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스님은 "우리 불교를 신바람 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변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젊은 불교를 만들기 위해 스님은 도봉사와 그 일대를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그 첫째가 도봉사 입구 600m를 어린이 청소년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연등의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다. 도봉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언제나 찾아와 게임과 노래, 공연까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 부처님 오신날에는 도봉중학교 전교생에게 햄버거를 선물할 예정이다.

원명 스님은 매월 도봉구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50가구에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찾아가 위로하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태안 안면암 낙도학생에 장학금

7개학교 30명에 500만원 전달

'사회위해 삶 회향' 108배 성만



낙도장학회 김명순 회장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낙도 어린이 · 청소년 3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충남 태안군 낙도포교원 안면도 안면암 낙도장학회(회장 김명순)는 4월 25일 큰 법당에서 안면고등 관내 7개학교 교장, 교감, 인솔교사 선생님 10여명과 허공장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 학생 30명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낙도장학회 김명순 회장은 "마음 안팎의 갖가지 장애를 이기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돼 기쁘다"며 "올바르게 자라나 사회를 위해 봉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면암 원주 설암 스님은 "2002년 김명순 불자가 1억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고, 구인회(회장 삼지) 스님들께서 동참하여 낙도 장학금의 액수와 수혜범위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학금 수혜학생 30여명은 전달식에 앞서 '이웃과 사회를 위하는 삶으로 회향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108배 기도를 성만했다.

안면암 낙도장학회는 허공장회(지도법사 지명, 전 법주사 주지) 회원들이 낙도 포교 전진 기지로 낙도포교원 안면암을 건립하면서 2002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농어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스물일곱의 꿈 나눔으로 피웁시다

백혈병, 기증자 없어 절망의 나날



스물일곱 꿈 많은 청년불자가 급성 백혈병 치료비와 이식수술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5월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류양환 씨(26 · 사진)는 현재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간병을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아버지가 지금 알콜 중독으로 실업상태에 있어 생계마저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류씨는 4천 여 만원이 넘는 수술비 충당도 큰 문제지만, 기증 받을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나서지 않아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

도움을 주실 분은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02)734-8050

김철우 기자

"이웃을 위한 나눔의 등 달아요"

▌대원정사
이웃돕기 3천등 달기…5월9, 16, 23일 모연

"나누는 기쁨 자비의 3천등 달기 운동에 동참하세요"

서울 후암동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는 5월 26일까지 경내와 남산순환도로에 이웃을 돕는 나눔의 연등 3천개를 매단다.

연등은 한 개당 3천원이며, 연등불사에 동참한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는 매일 축원기도도 해준다.

대원정사는 등을 구입하고 만드는 비용은 물론 운영비까지 모두 사찰이 부담하고, 연등값 1천여만원은 전액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성금으로 기탁한다는 방침이다.

대원정사는 '나누는 기쁨 자비의 3천등 달기'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5월 9일, 16일, 23일 서울 공평동 공평사거리 융프라우 앞에서 거리모연에도 나선다. 일요일 거리 연등 모연 접수시간은 오후 2시~6시이다. 문의 (02)773-9171, 754-1613

▌우리는 선우
자비의 등 달기…5월26일까지 접수

"이웃과 사랑하는 이를 위한 자비의 등 5천등 달기운동에 참여하세요"

(사)우리는 선우는 5월 28일까지 장충단공원에서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친다. 5천등을 목표로 하는 자비의 등 보시금은 소외받고 있는 이웃과 장애우 가을 나들이 행사에 쓰여진다.

'심신의 건강 및 쾌유를 비는 등' '모든 인연의 도움에 감사하는 등' '복된 삶을 기원하는 등' '가정, 국가, 세계의 안녕을 기원하는 등' '학업, 직장, 사업 등의 성취를 기원하는 등' '사랑하는 이를 위한 등' '사랑하는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등'…, 이렇게 이웃을 위한 10종류의 자비의 등이 매달린다.

자비의 등달기 접수기간은 3월 2일~5월 26일까지이며, 등 보시금은 일반 1만원, 대학생 5천원, 중고생 3천원, 군인 2천원이다. 문의 (02)2278-8672~3, buddhanews.com

김원우 기자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도와주세요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삼전초등학교와 배명중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아동 · 청소년들을 위한 결연후원금과 장학금 후원자를 찾는다. 결연후원자는 결식아동과 1:1 결연을 통해 후원금이 지원된다.

하나은행 : 557-810005-46004 (예금주 :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후원성금 기탁

♥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거주하고 있는 본지 독자인 교포 장지원 보살(무량사 신도)이 5월 6일 200달러(한화 23만원)를 국제우편으로 보내왔다. 장 보살은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국에서 벌이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매달 200달러씩 보내고,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은 성금을 보내드리겠다"고 편지에서 밝혔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한마음선원 불자가 아들(이제권)과 딸(이현희) 명의로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본지에 매달 각 5만원 후원성금 기탁을 신청했다. 극구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모 씨는 "나눔의 운동이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은 정성을 보태게 됐다"고 말했다.

▌헌혈증 보내주신 분

경북 포항에서 장천수씨가 헌혈증을 보내왔다.

▌자원봉사 신청

경북 영주 김명자 보살이 20년 수련해온 기공치료 및 수련지도 봉사처를 구하고 있다. 김 보살은 "그동안 배운 것을 나눠주고 싶다"며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054) 634-5325

▌나눔의 스티커 신청

인천시 남구 학익1동 김연숙
스티커 100장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정성환
스티커- 50장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성지민
스티커- 20장

충북 음성군 감곡면 백광현
스티커- 300장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막바지 봉축준비 '박차'

11일 서울시청 앞 점등…각 종단 볼거리·체험마당 다채

부처님 오신날을 보름여 앞두고 올 연등축제에서 새롭게 선보일 장엄물과 봉축행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쁜 손놀림을 계속해 온 각 종단들도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상 봉축행사는 서울시청 앞 광장 봉축장엄물이 점등되는 5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 봉축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각종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종단에서는 현재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보문종 등이 봉축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해 놓고 있다.

지난해 범패 시연 등 불교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했던 태고종은 '참여와 나눔'을 주제로 소아암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 봉축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태고종은 지하철 포교단체인 풍경소리와 공동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잠실 민속박물관에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자비의 등 달기' 행사를 벌인다. 이 기간동안 서울시내를 누빌 봉축버스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불교미술과에서 장식을 맡았다. 23일 열리는 연등축제에서는 부처님 법을 나누는 자리인 영산회상을 상징한 등(燈)과 아기부처님 탄생불 모양의 등, 종등, 만월등을 선보인다. 봉축법요식은 26일 오후 7시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천태종은 '국민화합'과 '부처님 찬탄'을 주제로 삼았다. 육법공양등, 경천사지 10층석탑등, 태극기등, 동자승등, 용등, 코끼리등, 잉어등, 법고등 등 연등축제에 선보일 50여종의 등은 주제를 돋보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연등축제 행사장에는 객석 1천4백여 개를 예약해 놓았지만 실제 참가 인원은 3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3일 거리문화축제에서는 천태종복지재단과 나누며하나되기 운동본부 주관으로 미아찾아주기 캠페인과 용천역 참사 피해 어린이돕기 캠페인을 벌인다. 봉축법요식은 26일 오후 10시 구인사에서 열린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각 종단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사진은 진각종 종무원과 불자들이 장엄등을 제작하는 모습.

진각종은 올 연등축제에서 밀교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밀교성지 티베트 포탈라궁을 형상화한 등을 비롯해 오불(五佛)의 상징새인 공작명왕등, 팔각등에 팔길상 문양등 밀교와 진각종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 넣었다. 동대문야구장에서 진행되는 식전행사와 종로 제등행진에서는 종립 진선여고 학생들의 단체율동과 타악 퍼포먼스 야단법석의 공연을 선보인다. 우정국로 거리문화축제에서는 진각복지재단과 진각종 전국청년회가 북녘동포 돕기 모금과 종단 홍보물 배포활동을 펼친다.

총지종도 밀교와 종단 상징물을 등으로 만들고 있다. 총지종은 5개월여에 걸쳐 지권인(智拳印)과 만다라의 중대팔엽원을 형상화한 장엄등을 제작했고, 지금은 개인등에 불보살을 새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종립 동해중 사물놀이패와 연희단이 제등행진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보문종은 팔상도를 그린 팔각등을 준비, 3백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연등축제에 참가한다.

태고종 봉축실무단장 법현 스님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마당을 제공해 부처님 오신날을 온 국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모든 종단이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연등축제를 함께 즐기면서 부처님 오신 의미를 되새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자원봉사로 포교합니다

진각·일승종 봉사단 결성



5월4일 창립한 일승종 자원봉사단.

진각종과 일승종의 불자들이 자원봉사에 나섰다.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 부산·경남지부(지부장 류도형)는 신교도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와 자원봉사를 통한 교화활성화를 위해 4월 24일 부산 범석심인당에서 금강자원봉사단을 발족시켰다. 금강자원봉사단 단장에는 강정남 정제심인당 각자(남신도), 부단장에는 소지인(부산 남도심인당), 대행화(부산 명륜심인당), 청해월(마산 영신심인당) 보살이 각각 선출됐다.

부산·경남지역 신교도 50여 명으로 구성된 금강자원봉사단은 앞으로 경주 산내연수원과 진각복지재단 산하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진각종 산하시설의 각종 행사와 활동을 지원, 자원봉사를 통한 적극적인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일승종도 기존의 삼봉사 노인복지봉사단을 종단차원의 승·재가 자원봉사단으로 확대, 창립했다. 일승종은 5월 4일 구리시청 시청각실에서 자원봉사단 결성식을 열고 단장에 혜정 스님(일승종 총무원장)을 추대했다. 자원봉사단은 스님 40여명, 재가불자 40여명 등 총 8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일승종 자원봉사단은 구리지역의 불우이웃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비롯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류도형 총금강회 부산·경남지부장은 "효과적인 포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이라며 "불교계의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총지종 종령 17일 선출
서울 총지사서 승단총회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새 종령 선출을 위한 승단총회를 5월 17일 오후 3시 서울 총지사에서 열기로 했다. 총지종은 5월 4일 열린 원의회에서 이같이 결의, 공고했다.

승단총회에서는 종령 선출 외에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준비사항 중간보고와 기타 현안 협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포교사 고시 11월21일
서울·LA 등 8개 지역서

올해 조계종 포교사고시가 11월 21일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4월 28일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열린 '신도전문교육기관 대표자 회의'에서 고시일정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정확한 고시일정과 세부계획은 오는 9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전문적 포교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 양성하기 위한 조계종 포교사 고시는 서울, 부산, 대전, 미국 LA 등 8개 지역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여 동안 진행된다.

포교원은 '신도전문교육 시행령'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단이 인정한 불교대학의 졸업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 신도·포교단체 등의 추천 상한선 10%를 폐지함으로써 추천재량을 확대, 불교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불교지식과 실무에 능숙한 이들의 등용문을 넓힐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울릉도에 천태종 도량 건립
16일 해도사 불교회관 기공

울릉도에 천태종과 불교를 알릴 불교회관이 들어선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5월 16일 오전 11시 해도사 불교회관 및 해수관음보살 입상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공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을 비롯해 해도사 주지 비룡 스님, 최영해 신도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5년 12월 완공 예정인 해도사 불교회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백평 규모로, 울릉군 울릉읍 도동에 건립된다. 특히 내부에는 종무소, 신도회 사무실 등 사무공간과 요사, 공양간 등이 들어서 울릉도 불자들을 위한 신행·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해도사는 이 기간동안 해수관음보살 입상과 사리탑, 종각을 새로 마련해 도량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054)791-2471

한편 천태종은 5월 12일 오전 10시 2001년부터 4년여에 걸쳐 불사를 진행해 온 청주 명장사(주지 화산)의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명장사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3백평 규모다. (043)223-0322

박봉영 기자



본원종 통일기원 수륙재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최근 충주 중앙탑 광장에서 남북통일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방생 및 수륙 고혼천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영산재와 방생의식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가와 민족이 모두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불자들이 앞장서 나가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중앙종회 의장 대운 스님을 비롯해 전국 200여 사찰에서 1천여명이 참석했다.



법상종 잠보라마 스님 초청법회

법상종(총무원장 학산)은 4월 25일 안산 대부남동 대선사에서 티베트의 잠보라마 스님 초청 국제 보살계 수계 및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학산 스님, 중앙종회 의장 도명 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학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계는 받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참불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법회 후에는 범패의식과 전통 학춤 공연도 열렸다. (02)491-1624

종단소식

15일 수성 종령 49재

총지종은 5월 15일 오후 2시 대구 개천사에서 제8대 종령을 지낸 수성 대종사의 49재를 봉행한다. 이날 49재에는 우승 통리원장을 비롯해 종단 간부, 기로스승 등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성 대종사는 1972년 총지종 창종과 함께 대구 개천사에서 교화를 시작한 이래 중앙종의회 의장, 종립 동해중학교 이사장 등 종단의 요직을 거치면서 총지종이 반석에 오르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종헌종법·홍보책 발간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4월 27일 열린 임시중앙종회에서 종헌종법을 담은 책자와 홍보 책자를 발간, 종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종단 및 소속 사찰과 관련된 각종 소송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종단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종회에서는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참가와 수익사업체인 보경항공여행사 운영 등 종단 현안을 논의했다.

청소년지도자 워크숍

(사)진각종 비로자나청소년협회는 5월 1일 법인사무국에서 청소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여하는 세상, 함께 하는 청소년'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30여 청소년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양교육과 활동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무료진단과 공개강좌 개시

인간이 질환 없이 살 수는 없을까?

한국 전통 기문미래 연구학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새로운 건강관리 운동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물품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 요즘 한창 성황중인 임상 홍체학은 무엇인가? ◎

"최첨단 눈 동궁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 진단 방식"

현대 중앙병원 대체의학 연구소에서 왜 연구를 지속할까?

카이스트 공홍진교수와 팔상 체질의학 창시자인 권도원 박사님의 체질 진단 공동개발 프로젝트 개발

- 자연치유 의학에 시작, 지구촌 자연의학 바람 거세다. (중앙일보 2004년 1월 25일자 기재)
- 자연치유 영양요법은 공해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강사 : 경희대졸, 유니피아 홍체 자연치유학회 전문위원, 침코리아 홍체 강의 중)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20명 제한 접수 / 연락처 02)454-3368

사주학 무료강좌

매주 화요일부터 수, 목, 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 규봉선생과 소인선생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

평생 직업! 오후 2시부터는 특강반 모집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하게 사주, 작명, 인상학, 궁합, 택일,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 한국 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20명 제한 접수 / 연락처 02)454-3369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 이화여대서 불경 강의 김흥호 목사

'목사가 불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김흥호 목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종교, 특히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동양 고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목사는 그동안 <법화경> <원각경> <벽암록> <전등록> 등의 불경과 <주역> <논어> <노자>를 탐독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미국유학시절 신학대학에서 '불교의 구원관'을 주제로 학위논문까지 썼다.

지금은 매일 이화여대 대학교회 지하 강당에서 <장자>를 가르치고 있고, 최근 <원각경>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목사는 불교가 좋아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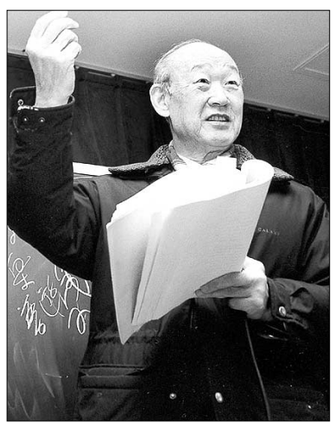
법화·원각경 등 탐독

신학대학서 '불교의 구원관' 논문
"내게 필요한 것 있어 불교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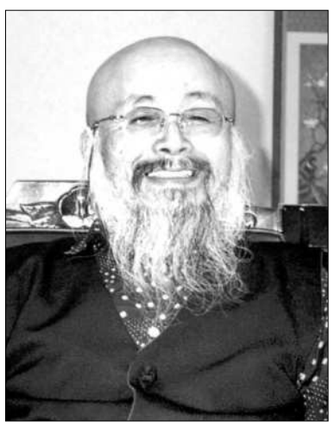
1919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흥호 목사는 일본 와세다 대학 법대에 다니던 법학도였다. 그러나 목사인 아버지의 영향과 식민지하에 의기소침한 한국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성직자의 길을 선택했다. 한국전쟁 당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김 목사는 정인보, 이광수, 유영모 등과 교류하면서 동양 사상을 배웠고 동양종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불교, 도교, 유교 등을 12년간 집중 연구했다.

그를 잘 아는 문학평론가 김흥근씨는 "함석헌의 스승으로 알려진 유영모를 통해 김 목사가 기독교를 동양적으로 이해하는 눈을 가지게 됐"며 "실제로 종교간의 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는 등 실천적 사상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김흥호 목사



방상복 신부

■ 미사때 3배 올리는 방상복 신부

빡빡 깎은 머리에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허름한 생활한복에 막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방상복 신부.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스님의 모습이다. 그래서일까. 방 신부는 99년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는 등 불교공부 하는 신부로 유명하다.

"67년 신학대학시절 비교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이기영 박사를 통해 불교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언젠가 불교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었지요. 대학원에 들어가기전까지 틈틈이 <법구경>과 같은 불교 경전을 독송하며 불교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신부의 친불교적인 성향은 미사 때에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자신이 경배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께 3배를 올린다. 또 혼자하는 묵상기도때는 60배, 108배도 거뜬히 올린다. 이런 별난 행동에 방 신부의 신자들은 성당에서 절을 한다고 항의하거나 신부가 이상하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나중에 그의 진의(眞意)를 알게 된 몇몇 신자들은 요즘 방 신부를 따라 함께 성당에서 절을 한다.

절 수행 20년 관록

이기영 박사 강의 들으며 공부 시작
불교대학원 졸업… '무집착' 강조

"하느님께 당신의 자식인 사제가 절을 올리는게 뭐가 그리 이상합니까? 불교에서의 몸을 이용한 수행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내 종교에 접목시킨 것 뿐인데요. 절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며 절대 진리자와의 합일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절 수행을 하기 시작한지는 20년이 넘었는데. 특히 95년 송광사에서의 5박6일 사찰 체험을 통해 절수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주일 기자

불교 공부하는 타종교 성직자들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는 더욱 소중한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가하면 종교 때문에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기도 한다. 전자는 자기 종교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사랑, 후자는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빚어진 결과다.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오신날 이웃종교에서 축하의 현수막과 화환을 보내오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때 스님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모두가 이웃종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높아진 결과다. 이런 가운데 불교를 공부하는 목사와 신부, 수녀 등 이웃종교의 성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흥호 목사, 방상복 신부, 이동연 목사, 최현민 수녀 등은 불교를 직접 전공하거나 아니면 불경공부를 하며 불교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현주 목사(예수살기모임 대표)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경전공부를 하고 있고 <이 아무개 목사의 금강경 읽기> 등 불교관련 여러 책을 펴냈다.

관심의 형식은 다르지만 이웃종교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의 종교도 깊이 알 수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 일본 유학가서 불교 전공한 최현민 수녀

씨튼연구원은 지난 1994년부터 종교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월례 강좌운영, 전문 종교 학자들의 모임 등을 개최하며 이웃 종교간의 학문적 지평과 이해를 넓히는 자리로 뿌리 내려가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과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교를 대학원에서 전공한 최현민 수녀도 포함돼 있다. 수녀가 불교를 전공한다니까 고개를 갸우뚱 할지 모르지만, 종교간의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웃종교인 불교공부는 최 수녀에게 필수적이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깊이 들어가면 서로 상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할 때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 공부는 또다른 의미의 그리스도교를 만나는 시간이지요."

서강대서 불교학 강의

종교간 대화 이끌기 위한 '필수과목'
조동종 주제 박사 논문 준비중

일본 불교를 주로 공부한 탓에 98년부터 최 수녀는 일본에 가 있었다. 4년동안의 유학시절 중 우연히 나고야 비구니 사찰에서 열린 수련회에 동참하게 됐다.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끝없는 참선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참선 시간이 마지막 날 끝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었을 때는 무엇엔가 얻어맞은 듯한 전율을 느꼈다.

이날의 진한 감동 때문일까. 서강대에서 불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 수녀는 학생들에게 죽비를 들고 참선실수도 지도한다.

또한 더 넓은 불교의 이해를 위해 최 수녀는 현재 서강대에서 일본 조동종의 창시자인 도원의 불성사상에 대해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최현민 수녀



이동연 목사

■ 비구니 스님과 함께 책 낸 이동연 목사

인천 한누리교회 이동연(43) 담임목사. 지난해 12월 강화도 백련사 주지 혜성 스님과 함께 수필집 <두 개의 길 하나의 생각>을 펴낸 그는 기독교단 내에서 불경을 읽고 스님과 교류하는 '특이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전남 정읍의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이 목사는 중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교회에 다니면서 개종하게 됐다. 그런 그가 다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래신화'를 연구하면서부터다.

"미래신화란 '생명창조'의 시대로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현 시대에 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생명창조' 사회로 접어든 인류 사회의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고 동양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 오고 있다. 다른 종교의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주위의 손가락질 보다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였다.

"3년 전 저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숫타니파타> 등 50여 권이 넘는 불서를 읽다보니 불교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진 것은 물론, 제 믿음도 한결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해 불서 50권 탐독

미래 신화 연구하며 '벽' 없는 공부
"불교 이해하며 믿음 더 커졌습니다"

이 목사는 이제 불교나 기독교를 비롯한 각 종교가 자신의 우월성만을 내세우기보다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시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양 사상의 종화인 기독교와 동양 사상의 원천인 불교는 서로를 존중하는 열린 종교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여수령 기자

佛紀 2548年 부처님 오신 날

봉축광고 접수 안내

현대불교신문 창간 열 번째를 맞는 부처님 오신 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특집신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준비된 지면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사찰, 종단, 단체, 업체, 개인 등
- 광고내용 : 사찰(단체)명, 소속 단체, 주소, 연락처, 관련사진, 기타 관련 내용 등.
- 접수방법 : 전화 및 팩스, 우편, 이메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2-1522 / 팩스 02)737-0697
  E-mail : rjk1414@hotmail.com
- 접수마감 : 2004년 5월 17일
  ※ 전국 지사 접수 가능합니다. (지사안내 참조)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 · 경남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 · 경북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지구촌 불교는 '이동' 중

동양 전통 지키며 변화 수용
서양 지식인들서 서민층으로

역사학자인 토인비(1852~1883)는 20세기 문명의 가장 놀랄 만한 사건으로 '서양이 불교와 만난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의 예견은 현실로 나타나 이제 불교는 동양의 종교일 수만은 없게 되었다.

서양이 불교를 만난 효시는 기원전 1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를 침공한 이후 인도 북서부의 왕으로 남게 된 그리스 장군 메난데르(Menander)가 나가세나 스님에게 불교를 배운 기록이 〈밀린다왕문경〉으로 전해지고 있다.

메난데르 이후 거의 잊혀졌던 불교가 서양에 다시 전해진 것은 1800년대 초반.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영광된 일은 불교를 만난 것'이라고 말했던 쇼펜하우어를 비롯해 에머슨, 쏘로우, 막스 뮐러와 리즈데이비드 부부 등에 의해 불교가 소개되면서 서양의 지성인들은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을 접했다. 특히 1893년 시카고 세계종교의회가 개최되면서 불교가 정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유럽 최초의 사원이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건립되고 스즈키 등에 의해 선불교가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세기 중엽, 불교는 잇따른 세계대전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어주었다. 나아가 스나이더, 긴스버그 등 선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은 20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안사상으로서의 불교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초석을 마련한 서양불교는 1970~1980년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게 된다. 한국불교가 이와 같은 지구촌의 변화에 맞는 수행법과 불교학을 정립하지 않는 한 세계화는 요원한 일일 뿐더러, 어쩌면 서구에서 해석한 불교를 역수입해야 할 지도 모른다. 지구촌의 불교붐에 발맞춰 세계 정치 ·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불교의 현황을 알아본다.



불교가 미국에 전래된 정확한 시기를 규정하기란 어렵지만, 1900년 전후 미국에 소개된 이래 미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대략 100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불교는 철학, 문화, 사상, 교육 그리고 예술 등 각 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 추구 미국

미래사회 이끌 대안 붓다의 가르침에 주목

불교도 7백만 추정 … 달라이 라마 · 틱낫한 영향력 커



미국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공개 강연회가 열리면 수만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1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달라이 라마의 '불교 강연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이민불교 · 백인불교 융화
2세들이 새 전통 형성중

미국사회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미국인들이 이분법적인 사고와 과학시대에 병립할 수 없는 기독교적 종교관이 가져다 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사상이 불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의 미국불교는 '이민불교'와 '백인불교'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국가들 보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다.

이민불교는 남방불교, 북방불교, 티베트불교 등에 속한 다양한 아시아국가의 불교가 포함되어 있다. 이민불교는 1850년 전후에 아시아 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동양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950~60년 대에 남방불교의 각 국가에서 이민 온 스님들과 일본 스님들이 주축이 되었고, 1970년대에는 티베트 스님들이 미국에 티베트불교를 소개하면서 각광을 받게되었다. 이들 이민불교의 역할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불교문화를 유지하고 미국사회에 전파하는 한편, 자신의 2세들에게 불교 전통을 물려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반면, 20세기에 접어들어 이러한 이민자 불교의 수준을 넘어 미국인들의 개종이 늘어나면서 백인불교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미국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불교 수행승과 학자들이 배출되고 불교를 미국사회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백인불교는 불교 명상이라는 매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불교 전통을 흡수하면서 미국적인 불교를 형성해 가고 있다.

현재 백인불교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일본불교와 티베트불교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지도자로서는 달라이라마와 틱낫한 스님을 들 수 있다. 100여 년의 서구불교가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서구사회의 어디에서나 불교가 낯설지 않은 종교가 되는 데 크게 공헌한 요소를 꼽는다면, 헐리우드에서의 불교 영화와 달라이라마, 틱낫한 스님의 명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구사회의 대중 매체를 통해 물질문명에 찌든 미국사회를 불교명상을 통해 치유하려는 강한 열망에 불을 붙인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불교에 관심을 갖거나 입문하는 계층은 교육수준이 높은 백인 엘리트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타임〉 지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내 불교도는 대략 700만 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사찰이나 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불교를 수행하거나 귀의한 사람은 수천 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1999년 콜멘(James William Coleman)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불교도의 인종 비율은 백인이 가장 높고, 연령층으로는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이 많으며,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인 민주당 지지자가 많으며, 교육수준은 대졸과 고졸이 80%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미국 불교도의 성향을 종합해 보면,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며 고학력을 소지한 기독교적 환경에 자라난 유럽계 미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콜멘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불교를 접하는 동기는 책을 통해서가 38%, 친구 혹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29%,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가 9%이다.

책 통해 귀의 명상에 관심
신행문화 축적 계승 노력

미국인들이 불교 명상을 수행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함이 12%,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 3%, 정신력 및 집중력 강화를 위함이 12% 등이다.

여기서 명상을 통해 불교에 귀의한 미국인들의 불교관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인들은 불교를 형이상학적으로 정교한 종교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편적인 진리를 생활 속에서 찾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고뇌와 인생의 문제를 구체적인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불교에 귀의하는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명상을 매개로 성장하는 불교신행의 붐은 긍적적인 면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구인들이 불교명상에 거는 기대는 즉각적인 효능에 있다. 명상의 즉각적인 효능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일종의 테크닉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불교명상의 붐이 미국사회를 이끄는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미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미국불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불교신행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들 중 가장 시급한 일은 미국불교 승가의 성립이며 특히 출가승의 배출이다. 한 시대가 창조한 문화를 축적하고 발전, 계승시켜 가는 승가의 형성이 없으면 미국불교는 한 때의 유행에 그치고 말 위험이 있다.

미국불교의회 등 앞장서
각 단체들 초교파적 대화

다행스럽게도 미국불교가 이민자불교나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에 의지한 신행형태를 탈피해 미국인들에 의한 백인불교가 형성되어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불법의 전파는 중생의 고통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구제하려는 열망인 것이다. 따라서 중생에게 다가가기 위한 변화와 변용을 두려워 하지 않고 시대와 지역에 맞는 대기설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는 미국불교에서도 적용되어 미국인들에 의한, 미국인을 위한 불교교단이 창출될 수 있도록 아시아 각국의 불교교가들이 힘써 도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미국불교에서 주목해야 할 일은 불교단체들이 '미국적 불교'를 창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불교와 미국적 전통과 가치의 융합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이국적인 불교를 넘어서 '미국적 불교'로 융합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면, 미국불교의회(The American Buddhist Congress)가 그것이다. 1987년에 스리랑카 출신의 하반폴라 라타나사라 스님과 미국인 칼 스프링거에 의해 창립된 이 단체는 미국적 언어와 문화를 불교에 접목하여 다른 전통의 불교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미국식 불교를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미국 사회의 곳곳에서 이러한 미국적 불교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들이 지향하는 '미국적 붓다의 상(American Style Buddha)'과 신행방법, 구제론이 만들어 질 때 진정으로 미국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말할 수 있다.

소운 스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 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메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 홈페이지 : www.sungjongsa.co.kr E-MAIL : sungjongsa@hotmail.com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문양들!"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영국의 대표적인 절인 만주쉬리 사원의 법회장면.


일본계 영국 절 삼륜정사 수련회에 동참한 불자들.


삼륜정사의 참선법회.

서점마다 불교책 높은 인기

강의실에서 일상속으로 영국

제국주의때 문화재·경전유입
학자들 연구에 심취 업적 쌓여
도심 사찰 증가…禪에도 관심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인들의 대부분은 탄생과 결혼, 그리고 죽음을 아직도 관습적으로 교회에서 맞이하지만 이미 그들에게 영국 성공회나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는 더 이상 위안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종교인들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기독교를 대치해 줄 대안으로 사색과 산책, 독서와 토론을 즐기는 영국인들에게 불교는 이성적인 종교로서 아주 서서히 접근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국으로의 불교 유입은 제국주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인도나 동남아, 네팔, 티베트 등지에서 유입된 다양한 불교 문화재들과 여러 가지 언어로 쓰여진 불교 경전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면서 영국 불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대학을 중심으로 문헌학자나 고고학자 또는 사학자들을 통해서 불교가 조금씩 학문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남방불교와 관련해서는 1881년 당시 런던대(UCL)에서 팔리어와 불교를 강의하던 리즈 데이비스가 결성한 팔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에 의해서 대부분의 팔리어로 쓰여진 경전들이 로마자화로 편집 교정되었으며 상당수가 영어로 번역되고 있다.

대승불교는 19세기 중엽, 옥스포드대학에서 독일인 막스 뮐러에 의해서 산스크리트어와 불교가 강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에드워드 콘즈(1904~1979)는 평생을 <반야바라밀다심경> 연구에 몰두한 학자였으며, 죽을 때 그의 부인에게 자신을 화장하여 소풍 가서 그의 재를 숲에 뿌려달라고 유언했다는 일화도 있다.

밀교 또는 후기불교는 필자가 공부했던 런던대 소속 동양아프리카연구소(SOAS)에서 데이비드 스넬그로브에 의해서 1950년부터 티벳어와 밀교가 강의되어져 왔고, 그 전통은 그의 제자이며 필자의 스승인 타데우스즈 스코릅스키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학자들이 불교언어로 쓰여진 경전을 문헌학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 영국 전역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거나 강의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영국불교학회(UK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가 설립되었다. 학문적인 면에서만 보자면 영국인들에 의해 150년 이상동안 축적된 불교의 연구 성과물은 오랜 전통의 불교국가인 한, 중, 일을 훨씬 능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인들에게 불교는 아직도 불교를 가르치는 학자나 배우는 학생들의 전유물이다. 아시아계를 제외하고 약 20만명의 영국인들만이 정기적으로 불교신행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상류층이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불교서적이 꾸준히 읽히고 있으며 요가나 명상, 참선 등이 행해지고 있다.

필자가 처음 유학 생활을 하기 시작한 1992년도에는 책방의 한 구석에서 일본인 스즈끼 박사의 저술인 일본 선불교와 같은 약간의 불교 서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2년 귀국할 때 들린 책방에서는 훨씬 다양하고 폭 넓은 불교 서적들, 특히 달라이 라마나 망명한 티베트 스님들이 저술한 대승불교나 밀교의 관련 서적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티베트 스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근 영국에서의 불교 경향은 티베트 불교쪽으로 많은 관심이 몰리는 것처럼 보인다.

불교의 학문적 연구나 불교서적의 출판과는 별도로, 대중적인 포교를 위해서 대영불교연합 (British Buddhist Association)이 런던시내에 있는 자그마한 건물 속에 불상을 모시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 포교나 학술적인 세미나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티베트, 대만, 스리랑카, 일본 등의 스님들이 런던 시내나 교외에 절을 세우고, 그들의 전통불교를 설파하고 있다. 한국의 조계종에서도 런던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뉴몰든 코리아타운 근처에 연화사라는 이름의 절을 짓고, 한국 교민들 뿐 아니라 영국인들에게 까지도 한국의 선불교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끝으로 필자가 살던 동네에 이웃집 중년의 한 영국인 남자는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필자에게 죽기 전에 기독교가 아닌 불교를 알고 싶다고 해서 한 권의 불교 개론서와 티베트 스님이 저술한 <티베트인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그에게 선물한 적이 있었는다.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무엇이 평범한 이 영국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교를 알고 싶게 했고, 불경을 읽으며 생을 마감했을까?' 라고 자문해 볼 때, 21세기에는 영국에서도 불교가 그 동안 축적된 학문적인 영역에서의 발전과 더불어 일반 서민들의 마음에도 서서히 침투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권도균 인도티벳불전연구소 소장

웰빙 시대 흐름 타는 독일

초등학교에서 불교교리 수업

세미나·인터넷 불교학교 활발
불자 23만명…절반은 외국인

독일의 불교역사는 지난 2003년, 100주년을 맞았을 정도로 짧지 않은 역사를 자랑한다. 1903년 칼 자니덴슈틱이 라니프찌히에 처음 불교 단체를 세운 후 안톤 규스 라는 독일인이 최초의 독일 스님이 되었고 1924년 파울 다울케 라는 의사가 불교 센터를 건립했다.

그 이후 불교에 대한 관심 방향은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창기에는 물질 세계에 대한 비판과 그것에 대비되는 지적인 모색에서 불교가 선택되었다. 불교종파 중에서는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테라바다, 마하야나의 교리가 주류를 이루었고 근원적 불교형태를 찾아가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

1980년대 이후로는 선불교와 티베트불교가 주를 이룬다. 고전적 불교형태가 오랜 명상 내지 완전한 삶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는데 비해, 새로 건너온 선불교와 티베트불교 등은 그 핵심은 유지하되 불교교리를 서양문화권 속에서 현지에 맞는 실천불교의 방향으로 변형한다.

약 630여 개의 불교단체 속에 52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독일불교연합(DBU)은 말 그대로 독일에 있는 불교단체들의 결집체로서 여러 불교 종파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불교연합은 공동작업의 구심점을 이루며 불교의 교리를 따르고 실천하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초기에는 독일불자로 구성되다 점차 외국인으로 구성된 불교단체들도 등록을 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어림잡아 20~23만 명의 불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만명이 독일인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독일인의 정신에 어울리는 선(禪)은 지식층과 젊은 세대들 속에서 마치 하나의 유행어처럼 속속들이 번져가며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상황이다.

여기저기서 늘어나는 불교센터와 단체에서는 정신적인 여유를 추구하는 '웰빙' 시대의 흐름을 타고 독일인들의 마음에 참된 휴식을 선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상센터를 만들어 한적한 곳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각종 세미나를 열거나 심신의 휴식을 통해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또한 불교 저널이나 여러 간행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전달하고 상호 교환한다. 베를린의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불교 교리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생겨나고 인터넷 불교학교를 통해 불교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이루어질 정도로 포교의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다.

요즘 독일의 서점에서는 쉽게 불교와 관련한 책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달라이 라마가 쓴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일간신문 '빌트(Bild)'지 에서는 얼마 동안 그가 쓴 책 내용을 연재하기도 했다. 지금 독일 안에서는 어느 곳이든 불교와 동양문화의 붐이 일고 있다. 독일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선각자가 유난히 많았고 학문적으로 철학의 대사상가와 문호가 많이 배출된 나라이다.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교수이며 UN 국제원자력연구소 부소장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헬무트 글루브레흐트 박사가 주축이 되어 한마음선원을 독일사회에 뿌리내리는 길을 모색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노력의 결과로 1996년 독일 중부 뒤셀도르프 인근 카스트에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인연있는 독일인 뿐 아니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에서까지 진리를 추구하는 유럽 불자들이 꾸준히 독일 한마음선원을 통해 정신의 본질을 탐구하며 마음공부를 활기차게 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한마음선원은 지역사회에서 불교를 알릴 수 있도록 초중 고등학교의 종교수업을 위해 선원 문을 열어 독일학생들이 더욱 친숙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불교연합(DBU) 행사뿐 아니라 2000년에는 전 독일 '가톨릭의 날' 행사에 초청되어 인종, 국가 종교를 초월하여 한국불교와 문화를 심도있게 전하며 진리의 등불을 켜가고 있다.

독일=윤화진 통신원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마음 선원 법회에 참가한 불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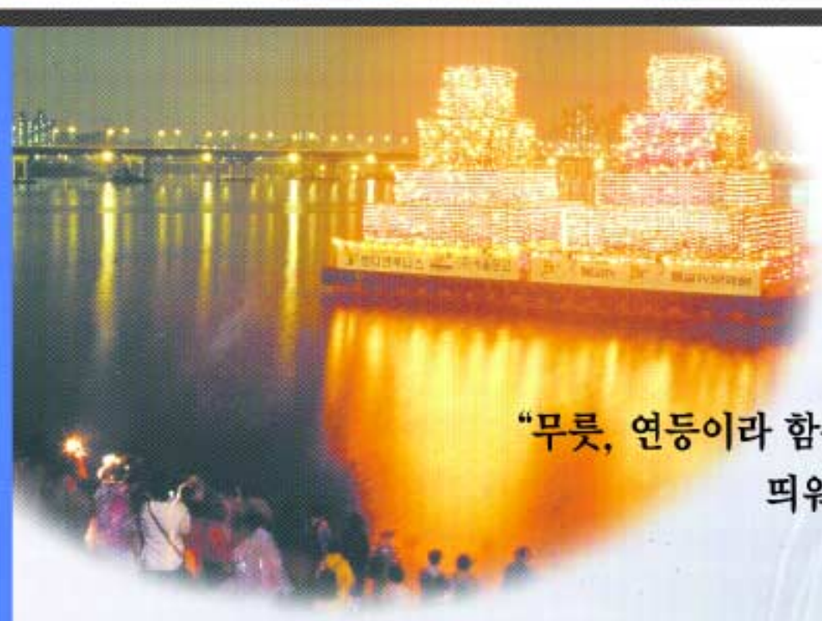
봉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축

한강연등제

행 사 명 :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제2회 한강연등제 (제2회 한강연등제)
설치장소 : 한강 시민공원(여의도지구) 한강 위
행사기간 : 2004. 5. 22 (토) ~ 5. 26 (수)
접수기간 : 2004. 3. 22 (월) ~ 5. 22 (토) (5. 22~5. 26 현장 접수)
점등법회 : 2004. 5. 22 (토) 오후 7: 30~ 9:00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지구)
금 액 : 개인등, 영가, 취업기원등 2만원 / 기록등 3~10만원 / 기업 및 단체등 (별도문의) (발원 : 소원성취, 건강, 합격, 안전, 가정화평, 사업성공, 업장소멸 등)
주 최 : ㈜불교TV
주 관 : ㈜불교TV / ㈜ 진 인

접수 및 문의 : (02) 5589-108

http:// www.javi.or.kr



"무릇, 연등이라 함은 물위에 띄워졌을 때 그 의미가 다 함이라."

한강 위 작은 빛 모아…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일상화한 오체투지 등 생활이 곧 수행

진실·무욕의 삶에 인류 '감동'

육바라밀의 실천 티베트



티베트 불교의 힘은 훌륭한 스승과 엄격한 교육에서 비롯됐다. 인도 다람살라의 사원에서 독경중인 티베트 학인 스님들.

지구촌에는 큰 나라들이 많지만 불교가 전파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와 옛 중국과 같은 큰 대륙에 불교는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1959년 중국의 침략으로 인해 망명한 일부 티베트 사람들이 인도의 불교를 되살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티베트는 7세기 때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불교는 오늘날까지 티베트 사람들에게 문화이자 생명처럼 자리 잡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티베트에서 불교는 본인이 잘 배우고, 살피고, 실천하고 충분한 경험을 쌓은 것을 바탕으로 남을 가르치거나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티베트의 불교는 그 자체가 바로 티베트의 문화이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생활은 그 자체가 곧 불법의 실천이다. 예를 들자면 애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조차도 티베트인들은 스승들에게 의지하여 아이의 성을 지으며, 성도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스승의 성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티베트 사람들은 스승 찾는 것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며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도 절대적이다. 그래서 스승들을 살아있는 부처로 생각한다.

그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불교의 인과에 바탕을 둔 보리심에 대한 실천이다. 인과에 대한 믿음은 거의 절대적이어서 티베트에서는 욕 조차도 '인과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모욕적인 욕설이다. 이렇게 인과를 믿는 티베트 사람들은 현생보다는 내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로 이번 생에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평등한 마음가짐, 일체 중생들을 자기 어머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비심 등의 보리심 공부를 바탕으로 육바라밀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다.

현재 티베트의 인구는 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 배가 훨씬 넘는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직접 티베트에서 스승을 찾기 위해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전에 그들이 티베트를 여행하다가 자기 나라와 비교할 때 사람이 못살 정도의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이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티베트 불교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위대한 힘은 지식이나 말로써가 아니라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다. 즉 인과를 바탕으로 생활해야 만 일상생활 속에서 욕심이나 시기심, 자만심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티베트인들이 사원 곳곳에 펼쳐진 탕카(탱화)와 달쪼(경전을 새겨 넣은 깃발), 마니골로(윤장대)를 돌면서 경전을 외우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방법들이다. 이것들이 때로는 형식적이고 기복적으로 보이겠지만, 티베트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행과 공덕을 쌓은 일이다.

자신이 실천한 내용만
가르치는 스승들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

요즘 전 세계적으로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티베트의 스승들이 자기가 실천한 내용만을 남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불교의 위대한 힘은 불자들의 옷차림이나 지식이나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 즉 인과를 바탕으로 한 일상생활 속에서 욕심이나 시기심, 자만심 등을 줄이게 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공양 올리는 등을 완전하게 깨닫기 위해 보리심으로 하지 않고, 이기심으로 무병장수, 사업성취에만 집착해서 하게 된다. 이는 마치 병에 걸려서 약국이나 병원에 찾아가서 그 병이 완전하게 나을 수 있는 약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고, 마취제만 맞고 돌아오는 것과 같다.

수행이라는 것은 번뇌의 치료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참선할 때, 자기 한테 있는 번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살펴야 한다. 번뇌가 줄어든다면 이번 생의 일뿐만 아니라 걸림 없이 남에게 베풀 수가 있어서 늘 행복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 께서 한번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어느 기자가 질문하기를 "요즘 중국의 장쩌민 때문에 고생이 많죠, 힘들지요?"라고 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성하께서는 "중국의 장쩌민 하고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가 더 힘든지 알 수 없느냐?"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차이점은 누가 더 번뇌를 많이 품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초펠 스님(부산 광성사 주지)





프랑스 불교는 베트남 출신의 틱낫한 스님(가운데)에 의해 유럽 불교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불교 수행처인 플럼빌리지의 여 수행자들.

중·상류층 윤회와 명상에 매혹

프랑스는 1970년대에 불교 수행센터와 불자 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불교 신행다운 신행을 보여준 유럽의 첫 번 째 국가이다. 이러한 불교 운동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1980년대 몇몇 언론사의 기자들에 의해서였다. 프랑스불교연합에 따르면 그 당시 프랑스에서만 15만 명의 사람들이 불교로 개종했다고 하며 15년 후인 1997년의 여론조사는 약 5백 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불교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프랑스에는 70만 명의 불자와 60개의 불교센터가 존재하여 숫자로 국가의 네 번 째 종교가 되었으며, 불교에 호감과 애정을 가진 프랑스인들도 무려 2백 만 명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의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19세기 이후로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이다.

유럽 불교 중흥의 중심 프랑스

1970년대 수행센터 첫 선
엄격한 교리중심 종교 탈피
마음의 평화와 행복 추구
1995년 유럽불교대학 설립

불교의 매력은 18세기 볼테르나 몽테스키외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동양에 대한 관심이 화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불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세기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시작되었지만,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경전을 불어로 번역해 불교를 학문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어젠 뷰르누프(1801-1852)와 같은 프랑스인 불교학자들의 연구가 다른 유럽국가들의 불교 발전에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불교의 여러 종파 중에서도 대승불교는 프랑스인들이 불교로 개종한 첫 번째 종파였기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명한 여성 여행가 알렉산드라 데이빗 닐은 티베트를 여행한 후, 티베트와 티베트 불교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소개함으로써 프랑스 내 불교에 대한 깊은 인식을 심어주었다. 선(禪)과 티베트 불교는 항상 프랑스인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매력을 가진 종교로 인식된다. 일본 선불교의 다이센 데쉬네루와 베트남 접현종(임제종의 한 유파)의 틱낫한 선사,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나 칼라 린포체와 같은 불교 지도자들이 프랑스에 소개되면서 불교의 인기가 한층 더 해지게 되었다. 한국 조계종의 숭산 스님 또한 서양에 살면서 불교를 가르친 최초의 한국인으로, 프랑스 파리에 관음선원을 설립함으로써 불교 전파에 큰 역할을 하셨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선(禪)과 티베트 불교는 프랑스에 소개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발전과 팽창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자신이 불자라고 생각하는 프랑스인들의 80%가 이 두 종파에 속해있다. 1972년 한 작고 허름한 곳에서 시작된 불교센터가 지금은 무려 150개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인들이 불교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프랑스인들이 현실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엄격하고 교리 중심적인 다른 종교들을 기피하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불교는 개개인들에게 깊은 정신적 여유를 주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인연에 관한 '카르마(업)'라는 개념과 윤회사상 또한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서구사회 속 프랑스인들을 매혹시켰음에 분명하다. 한편 기독교의 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잊혀진 명상에 토대를 둔 철학에 향수를 느끼고, 이를 재도입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중, 상류층에 해당된다. 그들은 주로 기독교나 유태교 또는 무신론에 현혹되었다가 형이상학적이고 초자연적인 삶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불교에 발을 들여놓는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프랑스인 불교 신도들에게 있어서 불교가 마음의 평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해결책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내에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고 완벽하게 가르치기 위해 1995년 파리에 유럽불교대학(European Buddhist University)이 설립되었다. 이 대학은 2년간의 과정 동안 불자들이 만나서 불교 교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교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부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교육시킨다. 프랑스에서 새롭게 꽃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국경을 넘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알랭 베르디에(여행가, 자유기고가)



❶ 석가모니괘불님 140×270cm



❷ 석가모니열반도 63×161cm

부처님의 향기를 가까이 !!

대중법회용 괘불님과 가정에서 모실 수 있는 소품 불화까지 실비 염가로 조성봉안하여 드립니다.

불기 2548년 5월 고려미술 대표 불모 죽당 조중일 합장



❸ 용상자모관음도 53×133cm ❹ 운상관음도 53×133cm ❺ 관음도 43×90cm ❻ 맹호도 53×133cm ❼ 불심 53×133cm

고려미술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12-5 전화 02)489-1480 / 팩스 02)478-1480
E-mail : yeagiart@hanmir.com 핸드폰 011-376-1480

※ 색상이 변하지 않고 방수처리 특수 제작하였고, 괘불 대는 조립해체가 간편하게 제작하였습니다.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불광산사의 성운 스님.

'인간정토 구현' 나선 타이완

타이완 불교는 사회와 가깝다. 작게는 사람들의 식생활에서부터 크게는 사회 전반적인 사업에도 불교의 자비와 사랑, 그에 따른 그들의 저력이 여실히 드러난다. '인간 정토의 구현', 이 말은 어쩌면 타이완 불교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주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 타이완 불교단체들이 부처님의 자(慈) 비(悲) 희(喜) 사(捨) 정신을 사회에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 타이완의 불교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자선 △의료 △교육 △문화 분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중대선사의 유각 스님.

생활화된 자선 … "온 인류 행복할 때까지"

성운 · 증엄 · 유각 · 성엄 스님 자비희사의 사회적 실천 견인

대부분의 인구가 불교 및 민간 신앙을 믿고 있는 타이완 불교를 이끄는 단체들은 크게 네 곳을 들 수 있다. 성운(星雲) 스님이 이끄는 타이완 남부의 불광산사(佛光山寺), 증엄(證嚴) 스님이 지도하는 중부 화리앤(花蓮) 지역의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 유각(惟覺) 스님의 중대선사(中台禪寺), 성엄 스님이 이끄는 타이베이의 법고산농선사(法鼓山農禪寺) 등이 그것이다. 이 단체들은 산하에 문화, 교육, 복지 등 각 분야의 조직들을 운영하면서 불교의 사회화, 봉사 및 생산 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보살펴 주는 자선 사업은 사회 각계 인사들의 기부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모든 기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영수증을 발행하며, 그 사용내역의 공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불교계의 자선 기관은 주로 심신장애자나 저소득층의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증엄 스님의 자제공덕회, 불광산의 자비기금회, 법고산의 법고산불기금회와 재단법인 법고산사회복리자선사업기금회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선 사업 단체가 바로 자제공덕회인데, 이 단체는 세계적인 불교 자선 단체이다. 특히 자제공덕회는 의료사업 분야에서의 활동과 업적이 가장 활발하다. 증엄 스님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면 그 고통을 구제한다(聞聲救苦)'라는 의지 아래 1986년 정식으로 화리앤 자제의원(타이완 동부 지역에서는 유일한 종합 병원)을 개원했다. 그 뒤를 이어 중남부 지아이(嘉義)의 따린(大林) 자제의원, 타이베이의 신띠앤(新店) 자제의원 등을 건립했으며, 최근 타이완내에서 골수 기증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자제공덕회는 국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실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남가주, 뉴욕, 하와이, 아시아 지역의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 시아 및 중국, 브라질 등지에서도 의료 봉사팀 및 진료소를 세우는 등 그 활동이 매우 왕성하다. 작년에는 필리핀의 쌍둥이 어린이 분리 수술에 성공,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인재 양성에 미래 달렸다" 인문 · 문학 · 학술계 지원

타이완 불교계는 인문 문화 학술계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중대선사의 재단법인 중대문기금회와 재단법인 중대산불기금회는 1991년과 1996년 12월에 각각 설립되어 전자는 불학 세미나, 서적 출간등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후자는 사회 공익 사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성엄 스님이 이끄는 법고산도 1992년 7월 14일 법고산문기금회를 정식 발족하여, 사회공익사업과 불교학술 문화의 추진을 보조했던 것을 시작으로, 2000년 1월에는 법고산인문사회조학술기금회를 설립하여, 인문사회 관련 학술 연구및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1998년 7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법고산대애문기금회는 2000년에 정식으로 법고산에 위임 되어,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 대중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교육 문화 공익 사업의 추진을 보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 문화의 질적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타이완 불교계는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모든 타이완의 도량들은 각각 수행자, 신도 그리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벌이는 등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승가 교육 기관으로는, 불광산의 남중불학원(南衆佛學院), 여중불학원(女衆佛學院) 등이 있다. 법고산은 승가대학(2001년에 설립)과 법고산중화불학연구소가 있는데, 이 대학원은 1985년에 설립된 타이완 유일의 불학 연구소이다. 중대선사에도 중대불학원이 있는데, 이 곳은 각각 대학원(3년과정, 실습과 논문을 통해 석사 학위 수여)과 학부(고등부 3년, 대학부 2년. 불학의 기초 학습 교육 기관)의 두 부문으로 나눠 운영된다.


타이완 불교는 자급자족하는 생산불교를 지향한다. 사진은 자제공덕회의 초공장에서 울력하는 스님들.

일반인들을 위한 사회 교육 시설로는 불광산의 보문중학, 남화대학, 불광대학과 서래대학 등이 있으며, 법고산은 현재 법고대학을 설립 예정 중에 있다. 자제기금회 또한 4년제의 자제대학, 전문대 형식의 자제기술학원, 자제고등학교, 자제초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어 완전 교육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자제공덕회에서는 4월 초, 중국어 랭귀지 스쿨을 개설하여 중국어를 외국에 보급시킴과 동시에, 중국 문화와 불교사상을 널리 전할 계획이다. 중대선사도 보대중학교와 보대초등학교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중매체 포교에 적극 활용 바른 불교문화 정착 이끌어

이처럼 사회가 안정되고, 가난과 질병이 사라지고, 개개인의 교육적 수준이 한결 나아졌다 해도 인간 정토가 실현 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올바른 불교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인간 정토를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타이완의 불교 단체들은 동시에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각종 매스미디어를 십분 활용해 불교 문화의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가장 대중적인 매체인 불교 방송국의 운영은 타이완 불교 문화 사업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분야다. 타이완의 불교 케이블TV에는 유명한 불광산의 인간위시(人間衛視)와 자제정사의 대애(大愛) 방송국이 있다. 두 방송국은 기존의 불법 강연이나 교리 교육의 프로그램외에, 연속극을 제작 방영하며 예술 공연 등을 방송하는 등, 다른 케이블 채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회와 호흡할 수 있도록 소재나 편집 면에서 다양성을 꾀하고 있다.

그 예로, 대애방송국에서는 몇년 전 타이완에서 한국 드라마의 붐이 아직 일기 전에, 이미 한국의 '육남매'를 들여와 적지 않은 사회의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오랫동안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또한 지난 몇 년동안 대애방송국이 제작한 드라마는 연말 TV드라마 시상식에서 연속으로 우수 드라마 제작상과 배우 연기상을 받는 등 주류 방송국 못지않은 활약을 보였다.

또한 적극적인 인터넷의 활용도 불교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각 불교 단체들은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무료 인터넷 신문(불광산의 '人間福報', 법고산의 '法鼓' 등)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각 불교 단체의 사업이나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영어나 스페인어 버젼으로도 제공되어, 전세계 신도들이 수시로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불교 서적이나 음반을 판매하는 인터넷 서점(불광산의 '如是我聞'과 '香海文化')이라든지, 케이블 방송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 등은 불교의 보급화와 현대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민중과 아픔 나누기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중국 불교와는 달리 타이완 불교는 불교 단체의 다각적인 봉사와 불교 사업으로 인해 민간 생활종교로 정착되었으며, 민중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타이완의 대표적인 종교로써 성장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비단 타이완 뿐만 아니라 이웃 아시아 지역과 서구 유럽 등 각지에 분회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불교조직으로 성장,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생산불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불교 단체의 자선, 의료, 복지 등의 사업은 국내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연락 체계를 통한 전세계적인 구제 복지 사업 단체로서 탈바꿈하고 있다.

불교가 자연스레 생활 곳곳에 뭍어나는 타이완. 인간정토를 실현하고자 몸소 실천하는 타이완 불교 단체들, 물론 불교의 사회적 책임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불안한 정치 현실로 인해, 분열되는 사회 민심을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타이완 불교는 더욱더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타이완=이상미 통신원


법고산농선사의 성엄 스님.


자제공덕회의 증엄 스님.

생활 속에 꽃 핀 신행 일본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연스럽게…

한국이나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일본불교는 이제 일본문화의 정체성을 규정할 정도로 일본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길 옆이나, 공원, 심지어는 빌딩의 옥상에까지 지장보살상이 모셔져 있고, 약 90%의 일본인 가정집에 불상을 모신 작은 불단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불교가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을 연구하는 많은 서구인들이 좌선, 다도, 꽃꽂이 등의 불교문화를 통해 일본문화를 바라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불교학 수준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기에 이르렀으며, 불교를 배우기 위해 한국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일본을 찾는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일본불교가 일본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생활 속에서 불교문화를 꽃피우게 된 데에는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많은 사찰과 불교단체, 그리고 재가 불자들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불교문화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동경의 (사)재가불교협회의 활동을 살펴보자. 재가불교협회는 불교에 삶의 근원과 목적을 둔 재가 불자들이 특정의 종파나 교의를 떠나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 모임인 재가불교협회의 주요사업은 불교전문 월간지 발행, 불교 대강연회 개최, 국내외 사찰순례 , 정기 참선 등을 개최하고 있다.

재가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불교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는 재가불교협회 외에도 불교전도협회, 선문화연구소, 불교문화연구소, 불교정보센터(스님의 의한 전화 카운슬링)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단체가 종파를 초월해서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가정집 90% 불단 모시고 예불
불교학 수준 '세계최고' 자타 공인

사찰의 경우도 불교 대중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일본불교의 대표적 사찰 중의 하나인 교토의 지은원(知恩院)이 직영하는 시설을 살펴보자. 먼저 숙박 및 연수시설인 화순회관(和順會館)을 들 수 있는데, 회관 내에는 다목적 홀, 직영 매점과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이 사찰에서는 임산부를 비롯한 만 3세까지의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주 3회에 걸쳐 '부모와 자녀 교실'을 열고 있다. 주로 스님들의 법문, 체조, 육아정보를 교환하는 티타임 등으로 이뤄진다. 이 외에도 바이올린 연주회, 방생회(放生會), 육아 교육, 과자 교실, 구급법 등의 특별행사나 염불, 좌선 등을 하는 내용으로 2박 3일의 불교수련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불교적 정서교육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불자들에게 있어 최대의 봉축행사인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 행사도 불자들만의 봉축행사라기 보다는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꽃축제(오하나마츠리)'로 진행된다. 꽃축제는 꽃으로 법단을 꾸며 수반에 탄생불을 안치해 놓고 '아마자케(甘酒)'를 작은 국자로 떠서 탄생불에 끼얹는 행사인데, 불자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를 동반한 많은 일반인들이 축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불교는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생활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 삼칠일이 되면 절에 데리고 가서 참배를 시키고 죽으면 반드시 절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특히 불교가 일상에 녹아 있다는 사실은 일본 스님들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가정방문법회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일본의 스님들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신도의 집을 방문한다. 스님들은 불단을 향해 앉은 채로 각 종파의 소의경전이나 조사어록을 독송하고 난 뒤 신도를 상대로 법문을 한다.

일본의 생활불교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사회 속에서 더욱 친밀감을 얻고 있다. 가정법회를 위해 방문한 스님은 홀로 집을 지키고 있는 노인들의 수다를 들어줌으로써 신도들과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장영식(일본 동양대 철학과 박사후 과정)


일본의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꽃축제'로 진행, 많은 일반인들이 동참한다.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뜨거운 수행열기 남방불교

최근 들어 남방 상좌부 불교의 수행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해방 후 간간히 소개되던 남방불교는 80년대 들어 국내 수행자들이 직접 현지로 떠나 수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 보급되었다. 10여 년 전부터는 이들이 귀국해 수행처를 설립하고 포교에 나서면서 '위빠사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남방불교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상좌부 불교

그러나 같은 남방불교라 해도 각 나라의 전통과 생활방식, 사고의 차이로 수행방식이 약간씩 차별화 되고 있다. 스리랑카가 교학전통이라면 태국은 계율중심이고 미얀마는 수행중심으로 볼 수 있다. 불교학자들에 따르면 남방 상좌부 불교의 수행법은 사마타(Samatha ; 止)와 위빠사나(Vipassana ; 觀) 수행으로 나뉜다. 사마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키는 수행이고 위빠사나는 마음챙김(Ssti)의 대상



미얀마 수행자들의 탁발은 그 자체가 성스러운 수행이다. 왼쪽에서 두번째 수행자가 이준엽 기자.

현지서 공부한 국내수행자 열풍 주도
사마타-마음집중, 위빠사나-마음 챙김
체계화·현대화 되며 세계적으로 확산

먹는것도 입는것도 일상이 수행

한국스님 상주 단계별 지도 점검 인기
출가·환속 자유, 장소 구애없이 수계 진행
탁발승에겐 극진…계 철저히 지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아시아 남방국가들의 불교를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의 남방불교는 불멸 후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왕(B.C. 273~232)이 아홉 번에 걸쳐 해외에 포교사를 보내면서 맥을 이어오게 됐다. 여덟 번째로 파견된 곳이 미얀마이고 아홉 번째가 스리랑카이다.



미얀마의 대표적 수행처인 마하시센터.



미얀마의 쉐우민센터의 한국 수행자들.



쉐우민센터에서 스승과 인터뷰를 하는 수행자들.

으로 몸 느낌 마음 법(身受心法) 네 가지를 반복해서 관찰하는 수행으로 보면 된다. 현재 남방불교 국가들의 대표적 수행은 '위빠사나'이다. 특히 출재가에 걸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나라가 미얀마로서, 미얀마 불교를 살펴보면 남방 상좌부 불교를 볼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미얀마 쉐우민 센터에서 수행할 기회가 있어 미얀마 불교를 접해볼 수 있었다. 되돌아보니 그것은 일생에 있어 큰 복이었다.

세계적으로 위빠사나 수행이 오늘처럼 대중화 된 것은 50여 년 전 미얀마의 마하시 샤야도(1868~1954)가 근본불교 경전인 <대념처경>을 근거로 수행법을 체계화하면서부터다. 그 후 쉐우민, 모곡, 순룬 등 마하시 사야도의 제자들이 미얀마 곳곳에 수행센터를 세우면서 위빠사나 수행이 일반화 됐다. 특히 이들 수행센터 가운데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과 수행센터의 현대화로 서방의 외국인 수행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한국인 수행자도 매년 100여명이 각 수행센터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다. 특히 마하시와 쉐우민 센터에는 미얀마 어에 능통한 한국 스님들이 상주해 있어 한국인 수행자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수행법에 있어 각 센터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개인수행, 오후불식, 사야도 인터뷰가 주류를 이룬다.

한국 수행자가 많이 찾는 양곤 쉐우민 센터의 경우, 마음관찰 위주로 공부하며 매일 마을로 직접 탁발을 나간다. 이곳에서는 기상(아침 3시30분), 조공(5시30분), 탁발(6시30분), 점심(10시30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해 수행한다. 법당에서의 수행은 주로 좌선과 경행의 반복이다. 저녁에 진행되는 사야도 인터뷰에는 10여 년째 청현 스님이 통역을 도와주어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사야도와의 인터뷰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와 법담을 나누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초보자의 경우 좌선-아픔(좌선 중 다리의 아픔)-경행-공양-탁발 등의 느낌을 말하고 사야도로부터 점검을 받는다.

간화선에 익숙한 한국 수행자들에게 사야도 인터뷰는 자칫 '점검받기 위해 수행한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수행의 단계를 직접 느낄 수 있어 인기 있는 시간이다.

쉐우민 센터에서의 수행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탁발이다. 매일 아침 마을로 나서는 탁발행렬은 그대로 가 성스러움이다. 공양받는 이나 공양을 올리는 이, 모두가 맨발이다. 공양물은 대부분 갓 지은 쌀밥이다. 때로는 반찬과 과일을 공양하기도 한다.

하루는 탁발에 앞서 비가 내렸다. 길은 아직도 축축이 젖어있었다. 그런데 공양 올리는 어머니를 따라나선 아이들이 젖은 길에 엎드려 탁발승들에게 일일이 절을 하고 있었다. 울컥 눈물이 흘렀다. "정녕, 이 공양물과 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 어찌 수행에 게으름 피우랴."

남방불교의 또하나 특색은 출가 환속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미얀마에서는 7명의 장로비구가 있으면 시간, 장소에 구애없이 수계가 진행된다. 계첩에는 날짜와 요일은 물론 시간을 분단위까지 적는데 이는 어느 곳에서든 다른 비구들과의 출가 순서에 혼동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속할 때는 길을 가다가도 비구를 만나면 환계의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가자들의 수행자들에 대한 공양은 부처님 대하듯 극진하지만 승복입고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미얀마에서 연말이나 명절 때의 사찰은 매우 복잡하다. 흥청망청 놀기보다 사찰에서 특별정진하러 들어오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논에서 일을 하다가도 잠깐씩 마을 안에 있는 사찰에 들러 수행하는 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항상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서인지 어느 곳에서도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남방불교 국가는 수행이 생활인 것이다.

남방불교를 대표하는 황색가사는 25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패션이다. 이처럼 남방 상좌부 불교는 의식에서 수행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지구상의 살아있는 불교'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준엽 기자

국내 위빠사나 수행자들

남방불교의 위빠사나가 국내에 들어온 것은 1987년 거해스님(위빠사나선우회 지도법사)의 안내로 미얀마의 우판디타 스님이 그의 스승 마하시 스님이 체계화한 위빠사나 수행법을 한국에 소개하면서부터다. 위빠사나는 아직 보급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동남아에서 비구계를 받거나 수행법을 익히고 돌아온 스님과 재가자들이 지난 2~3년 사이에 선원이나 명상센터를 잇달아 개설, 현재 수행처만 20여 곳에 이른다. 최근 보리수선원, 연방죽선원, 호두마을, 다보선원 등에서 위빠사나로 정진하는 불자는 2만여명. 매주 한 차례 이상 정기법회에 참석하는 수행자만도 5천여명에 이른다.

국내의 위빠사나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스님은 거해스님을 비롯해 부산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대구 여래선원장 붓다피야 스님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과 원장 대림 스님,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 미국 뉴저지 버겐카운티의 산티수카(Santisukha) 명상센터 원장 반야로까 성오 스님, 김해 다보선원장 붓다팔라 스님, 서울 연방죽선원장 법주 스님, 보리수선원장 붓다락키타 스님, 고엔카수행 지도자 일중 스님, 성남 여래향선원 지도법사 성찬 스님, 광주 마하연선원장 목우 스님 등이 근본불교 수행법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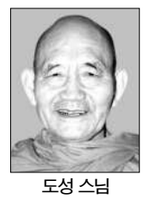
비구니 스님들 역시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에서 위빠사나

거해 스님 소개후 20여곳 활성화
각묵·대림 스님등 확산에 앞장
비구니 재가법사도 보급에 일조

를 직접 공부한 후 귀국, 재가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쏟아지는 햇빛>(정신세계사)과 <마음 과연 무엇인가>(솔)의 저자 아눌라 스님은 올초 깔야나미타명상선원을 개원했으며, <마음 챙김>(북하우스)의 저자인 수완 스님은 경북 경산의 한 암자에서 용맹정진하고 있다. 동두천 제따와나선원장 범라스님과 천안 호두마을 지도법사 혜연 스님도 활발한 수행 지도에 나서고 있다.

스님들 못지 않게 정진한 위빠사나 재가법사들도 점차 늘고 있다. <보면 사라진다>(정신세계사) <위빠사나 Ⅰ,Ⅱ>(불광) <깨달음으로 가는 오직 한 길>(선재) 등 6권의 저서로 위빠사나 붐을 조성한 김열권 법사와 한국위빠사나선원장 묘원 법사가 1세대 재가 수행자로 손꼽힌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 천안 호두마을 김재성 법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임승택 연구교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황용식 교수(명상치료 전공)와 광주 한꽃선원 혜진 법사, 인천 바른길선원 서경옥 보살 등도 남방불교 보급에 일조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도성 스님



각묵 스님



김열권 법사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챙기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은품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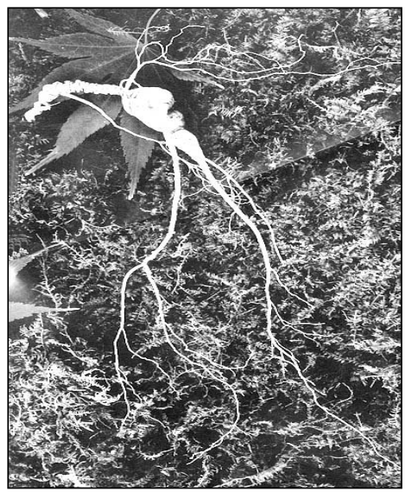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54-3733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포천
- 법당 : 17평
- 요사 : 15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6천만원

- 위치 : 충남서산
- 법당 : 20평(3포)
- 요사 : 100평
- 부지 : 900평
- 가액 : 9억

- 위치 : 충남
- 법당, 요사 : 21평(임법당)
- 부지 : 405평
- 가액 : 2억 2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사찰.포항죽장하옥

- 편션 별장 같은 요사와 법당
- 산세 수려함
- 대지 200평, 전 500평
- 국유지 20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온천시장내
- 2층 법당 45평(종무실, 공양실)
- 호불 500불, 인등 500, 닷집 단청필
- 보증금 1000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법당 최고시설)

016)444-5758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식물원 입구
- 평수 : 40평, 방2개,
- 주방, 화장실
- 전세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598-867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부지 : 1000평
- 법당 : 9평
- 요사 : 12평
- 가액 : 6천만원

- 성루 포교당 요지
- 면적 : 35평
- 보증금 : 2천만원
- 월세 : 50만원
- 시설비 : 600만원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1-232-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5층 건물중 3층
- 법당, 방3개, 주방, 목욕탕, 베란다 총 3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597-2053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 바닷가옆 버스종점
- 대지: 511평 2층건물 1층 방2개, 2층 법당 28평
- 요사채 41평
- 가액: 1억5천만원 (5천만원 융자가능)

062)222-5587
011-609-1106

포교당(급)안내

- 부산시 수영구 망미2동 포교원
- 전세금 : 6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900만원

051)754-1055
016-614-873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내최요지
- 평수 : 30평, 3층
- 보증금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2000만원이나 인연되는 스님께 조금만 받겠습니다

052)245-6689

사찰(긴급)안내

- 위치: 합천 진주간 중간지점
- 건물: 법당(기와): 25평, 요사채(스라브신축): 30평 요사채(스라브): 20평 <등기필> 산신각, 용왕당
- 대지: 250평 등기, 임야 100평(법당뒤 산세수려)
- 사찰까지 차량진입가능(정남향 위치) 마을어귀
- 불필요 전화사절, 절충가능함(꼭 사시고자 한분)
- 가액: 1억 5천5백만원(경남권으로 포교 요충지)

011-9017-5445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기도 광주시내
- 법당 : 60평
- 요사 : 방2개
- 보증금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위치 : 울산시내
- 대지 : 50평
- 법당 : 20평, 요사 : 40평
- 양도가 : 1억 8천만원
- 대출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교통요지 마을인접 포교당으로 최적
- 대지: 약 100평 사용부지 200평이상
- 목조 임법당, 방2개, 입실주방, 욕실, 창고
- 불사가능도량, 집기일체포함
- 가액 8500만원

011-879-4791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화제의 염주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접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토굴 별장 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1평,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55평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 가액: 5억3천만원(대출가능)

016-367-2112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명덕시장 앞 영대병원 전철입구)
- 법당(40평)후불, 신중, 시왕탱화
- 즉시법회가능
- 가액: 2500만원(보증금포함), 월 23만원

011-9850-2946
053-653-0287

도심속 최고 포교당 안내

- 위치 : 오산시청앞
- 법당: 63평(최고급시설) ● 종무소: 약 10평, 요사채방: 7개
- 전통다실: 40평(성업중) ● 체육관: 선무도50평(성업중)
- 권리금: 없음 ● 총 260평(요사채 및 법당 150평)
- 특기사항
  오산시청 맞은편 상가숲속에 위치해 있고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함. 대형주차장 1일 평균 2000대 이상 출입 왕래
- 가액 : 답사 후 월세나 전세 상의해서 결정

011-9254-2353 / 031)374-2355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시내 최요지
- 4층건물중 3층 약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5년계약중 2년경과)
- 시설비 답사후 절충
- 대작불사 관계로 양도

011-243-3587

포교당안내

- 위치: 대전 서구 배재대 부근
- 3층 건물에서 2층
- 평수: 50평
- 법당 25평, 방3개, 주방1, 창고, 화장실
- 전세 2천2백만원 시설비 1천8백만원

042)533-2959
019-699-2201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두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가액: 상담후 결정

043)644-1666
011-742-59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 40평(주차 8대)
- 가액 : 9천만원

011-9802-3136

토굴안내

- 위치: 경북 김천 구미 경계
- 대지 : 78평, 건평 28평
- 임법당, 방, 주방(입식), 거실, 화장실(수세식)
- 보증금 : 1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000만원
- 삼존불 개금되있음. 소불 80분, 연등 교통편리, 집안주차장, 뒷 텃밭

016-744-0421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38-7 용인마트 옆, 건물 4층 자비선원
- 42평 방 3개 법당따로, 거실,
- 부처님 3분, 산신 시설A급 위치좋음
- 스님불사관계로 인연있는분 원함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31)336-9149
011-297-9149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용왕단
- 가액 : 3억 (융자 4천포함)

011-785-567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산47-5
- 대지 11400평, 법당 25평,
- 목조건물, 요사 2동
- 가액: 3억7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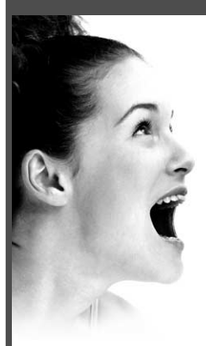
011-9457-706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아흔아홉골
- 대지 : 1440평, 논 100평, 임야 25000평
- 법당 23평(목조), 삼성각 7평(목조) 요사채 50평
- 가액 : 10억원

033)763-4328
011-798-8747

주 름



성형... 했니?

아직도 수술을 하세요?
"지금은 바르는 시대"

보톡스(Botox) 대안 화장품

미국 UCLA 피부과 피부테스트 완료

- 20대 ~ 70대 까지(남.여 공용)
- 눈가, 입가, 이마, 미간, 주름진 부위

※1994년 노밸의학상을 수상한 Dr.Martn Rodbell이 제시한 과학적 원리와 원칙에 따라 개발된 고품격 피부관리 제품

메디덤(주) 02)969-8080

포교원안내

- 위치: 마산시 부림시장
- 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 (절충)
- 도심포교에 뜻 있는 분

016-424-05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광명
- 법당 70평(5층)
- 삼존불, 요사채,
- 방2칸, 공양실

011-750-5424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중구 남산동
- 상가2층 법당실평수(20평)
- 사정상 급
- 시설비 2000만원,
- 편리한구조
- 월세 35만원(전세도가능함)

011-519-0808

사찰안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011-9415-6831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중구 중앙동 시내중심가 위치좋음
- 건물 4층 옥상사용가 (엘리베이터 있음)
- 건평: 58평, 법당 20평 나머지 40평은 방5개, 주방2, 욕실 큼
- 순 한옥식으로 잘꾸며져있음 바닥은 전체 온돌방
- 가액: 보증금 3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품 3500만원

011-9678-3248

사찰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심덕3동
- 대지: 60평
- 전통한옥가옥 : 법당, 요사채(30평) (방 2개, 화장실, 창고, 샤워장 설치)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영가단
- 가액: 1억6천만원

017-488-1370
053)255-7249

사찰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대도동
- 대지 : 110평
- 1층건물
- 절터, 절하기 좋은곳
- 가액 : 2억원

011)712-853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수정2동 법륜사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
- 바로 법회 가능

055)672-2689
011-816-3289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장산아래
- 평수: 법당 15평, 방4개
- 가액: 전세 3천1백만원 (권리금 무)

051)731-9677
011-9513-1460
011-9585-117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 건평: 35평 2층
- 주방1, 방1, 법당
- 삼존불, 108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1-9848-3178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동래역
- 평수 : 54평
- 보증금 : 2천만원 월 65만원
- 시설비 300만원

051)552-7828

사찰안내

- 위치: 성남 주택 밀집지역
- 법당, 거실 넓음, 방2개, 창고방1, 화장실, 베란다 45평형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세 65만원 (물세,관리비 1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조절가능

011-678-0807

사찰·전원주택 적지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근교
- 준농림 1350평 (건축허가 즉시 가능)
- 포장도로 대형차 진입가능
- 전기 및 지하수 있음
- 산이 둘러싼 곳에 맑은 물을 끼고 있는 조용하고 수려한 곳
- 가액: 8천만원

016-9808-1576

사찰,수련원,별장,가든

- 위치: 경북 경주시 양북면
- 임야대지: 9,000평
- 건물 150평 : 시멘트스라브건물 및 목조 황토기와집
- 산세수려한 계곡과 호수가에 위치한 현대식 시설을 모두 갖추고 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1-744-1650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충북 옥천 대전 10분거리
- 규모: 법당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2동(11평, 18평)
- 시설: 근묵탱화, 후불 60평, 신중 40평
- 석물: 5층석탑, 자연석 신중, 산신탱화(화강암), 약사여래불입상, 지장보살입상 완벽조성됨
- 대지: 150평(산신환산지기결집 혈)
- 가액: 1억 3천만원(대출 2000만원 포함)

043)733-8186
011-9405-8186

암자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내
- 대지: 470평, 건물 110평 통나무집
- 1층 요사 50평, 2층 법당 30평, 3층 선방 30평
- 소나무 조경완벽, 정원내 생수 연못 및 다도 정자 유
-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맑은 계곡이 있음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도로포장 완벽
- 가액: 2억 2천만원 (총 투자금액 4억 4천만원)

011-509-0124

사찰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 건물 : 30평(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모셔져있음)
- 대지 : 160평
- 특징 : 교통 편리, 산세수려 (거창 → 김천방향국도변)
- 가액 : 8천만원

019-503-7959
055)942-9156
033)636-8346

사찰안내

- 위치: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밤산군 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그 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 명당 비구니 선원적합
- 가액 : 2억 7천만원

011-531-1334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백운산 운장사 법당
- 10m돌탑영험부처님
- 전세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가액 : 2억

033)766-0057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준공

"이렇게 좋은 집을 …감사합니다"

500여 주민 아픔딛고 새 보금자리

한국 도움 아래 법당, 보건소 등 마련

유치원 아이들 새싹불자 희망 보는 듯

법장 스님 "의료진 지원 검토" 밝혀

"귀의불 양족존(歸依佛 兩足尊)~, 붓담 사라남 가차미(Buddham Saranam Gacchami)~."

4월 29일 스리랑카 라투나푸라 지역에서 한국과 스리랑카식 삼귀의(三歸依)가 연이어 울려 퍼졌다.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준공식이 열린 것이다. 30도를 훨씬 웃도는 찌는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 스님을 비롯, 2천여 한 · 스리랑카 불자들은 한국 불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새로운 보금자리 완공을 축하했다.

조계종 마을은 지난 해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 큰 수해가 발생되자 총 2억6천만 원의 '자비의 수재성금'이 모여 조성됐다. 수해 당시 마을에 86가구 400여명이 거주했지만 산사태로 주민 56명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2시간 30여분 떨어진 지역에 조성된 조계종 마을에는 현재 500여명 118가구가 살고 있다. 수해가 난 뒤 스리랑카 정부는 이재민 촌 맞은편에 10만 달러를 들여 16에이커를 매입해 부지를 조성했으며, 한국 불자들의 도움으로 마을회관, 법당, 설법전, 보건소 등이 마련됐다.

준공식 식전 행사로 마을 어린이들이 스리랑카 전통 춤과 노래를 한국 방문단에 선보였다. 강한 리듬의 타악기 소리에 맞춰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환영의 몸짓을 표현했다. 준공식 도중 스리랑카식 예불과 반야심경이 흘러나오자 마을 주민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을 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참석한 준공식은 하나의 작은 축제였다. 피부색은 달라도 불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든 '야단법석'이기 때문이다.

준공식에서 아스기리야 종정 우두가마 붓다라키다 스님의 축사를 대독한 부종정 알라마 아사다시 스님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을 바르게 펴는 것"이라며 조계종 마을 준공 의의를 압축해 표현하기도 했다.

준공식이 끝나자 한국 방문단은 조계종 마을을 둘러봤다. 뒷마무리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금방 회칠을 한 시멘트 벽 사이사이로 마을 조성을 위해 흘린 땀방울들이 배어있는 듯 했다. 침대만 하나 놓여있는 보건소를 보고 멋쩍은 웃음도 흘렸지만, 아이들이 모여 있는 유치원에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 중 유피피나드 씨는 한국 방문단에게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 줘 너무 기쁘다. 한국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환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또 두산띠 씨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마을 운영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마을을 둘러보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내 집이 생긴 것처럼 즐겁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또 한 주민이 마을에 병원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자 법장 스님은 "올해 동국대 의료진이 스리랑카를 방문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방문단이 스리랑카 전통춤의 환영을 받으며 조계종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남동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등이 새로 지은 법당을 참배하고 있다.

스리랑카 대통령·수상, 불치사 방문

29일 조계종 마을 준공식에 참석한 한국 방문단 대표단은 30일과 5월 1일 수도 콜롬보에서 스리랑카 대통령과 수상을 연이어 만나 한 · 스리랑카 불교 교류 활성화와 민간외교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30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최근(4월 2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평화적으로 치러져 축하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어머니 상'으로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찬드리카 쿠마라퉁 대통령은 "어머니가 수상이었던 때(1976년)에도 한국 조계종 스님들이 다녀가는 등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는 깊은 친선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 스 불교, 민간교류 활성화 논의

참석단 佛치아사리 친견 후 종정 예방

5월 1일 한국 방문단 대표단을 만난 마힌다 라자팍세 수상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 수상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법장 스님은 "외국인 노동자상담센터를 운영해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 마힌다 라자락세 수상은 "최근 2년 동안 선교사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와 가난한 지역에서 개종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 방문단 대표단은 5월 1일 캔디 불치사(佛齒寺)를 방문해 부처님 치아사리를 친견했다.

8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치아사리 친견 행사에 참석한 대표단은 스리랑카 아스기리야 종정 우두가마 붓다라키다 스님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종정 스님은 "사리 친견 행사 때문에 준공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다음달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원래 부처님 치아사리는 인도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내전 때문에 스리랑카로 보내졌다"며 몸속에 보관하고 있던 치아사리 보관함 열쇠를 꺼내 방문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찬드리카 쿠마라퉁 스리랑카 대통령과의 만남.

스리랑카 라투나푸라, 콜롬보, 캔디=남동우 기자

초대합니다

미국 버클리 6th Patriarch Zen Center 분원 (서울) 六祖寺 개원법회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

삼라만상이 푸르러 가고 있는 즈음에 그동안 출가하여
여러 만행을 지낸 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서울 한복판 종로구 가회동에 육조사를 개원하고
시정 속에서 정지나며 선을 생활 속에 전해보려는
작은 뜻을 세웠습니다.
바쁘신 중이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할애해
부디 참석하셔서 개원식을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六祖寺 현웅합장

■ 일 시 : 5월 23일(음력 4월 5일)일요일
■ 시 간 : 오전 11시

■ 선원장 : (조계사문) 현 웅(玄雄)스님
■ 총 무 : 주화(周和)스님
■ 도 감 : 혜담 거사(론 핸슨)
■ 원 주 : 무구 거사(마이클 키니)
■ 별 좌 : 묘각심

찾아오시는 길


● 전화 : 02-766-52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7-4번지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알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예수재, 49재, 천도재, 화청, 바라, 나비무, 점안식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91-5692
범음범패 이수자 성불암 용산 합장

가평 잣
● 650g 2만 5천원
031)592-2865
010-3005-2865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택배비 별도
공장 가평 초림 농산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암사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전신 寒증)
⊙ 수마(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수년 전문 연구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 주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강료 : 월 15만원(교재대금 포함)
▶ 수료후 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선주명리교육원
02)336-8484

동학사 일초대강백께서 수년전 불교방송에서 하신 **〈유마경〉**강의 테이프를 매도하시거나 빌려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전화 : 02)722-4162
017-236-5769
임연태(현대불교편집부장)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 팔공산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레이키(Reiki 靈氣)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교육비 50만원, 교육기간 2~3일
인터넷: www.Reiki.co.kr
한글도메인: 국제타로학원
전화: 02)720-5719
720-5682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국제타로학원

1000일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인천
032)872-5071
016-443-9933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49재,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부설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대구권
염불해 드립니다
011-9596-4338
▷ 무유스님

기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010-7160-6811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분당
031)719-0408~9

「소원성취」하십시오
「오복결혼」상담소
「초혼」「재혼」
"「남」「녀」"「무료」로
접수합니다
「남자」는 "「직업」"확실한자
011-543-8099
등록 : 511-90-09837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논산
041)736-5700

경치좋고 산세좋고 자연물 최고 조용한 암자 가족처럼 불사하며 같이 사실분
비구,비구니,공양주, 처사도 가능
▷ 가평군 근처
011-9126-2266

부전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서울금호동관음사
017-260-3310

산세 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내실 보살님 처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 울산
0505-794-5252

작은사찰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또는 부전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1-529-0008
054)975-0008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576-2737

신심있는 법당보살님 모십니다
▷ 자격 : 40~50대 숙식가능한 분
▷ 일산 장안사 장안낙원
031)901-1954

사찰, 포교원운영 2~3천만원으로 서울과 서울근교 사찰 포교원 같이 운영할 스님 초빙
019-9108-0909
031)774-7615

기도하며 수행하실 불자님, 불사(부처님탱화)에 도움주실 분들 연락바랍니다
033)342-7825

기도스님 원하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0-6264-1666

부전스님 행자 모집 공양주보살 구합니다
011-259-5989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맞이하여 민속타올 제작 염가 판매 합니다
민속타올 공장 011-425-6709

부전승(여승) 기도하실 수행승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 남해 삼천불관음도량
055)863-3114
016-708-0332

자동차 시주해 주실분
▷ 차종은 4륜구동이면되고 소중하게 감사히 쓰겠습니다
010-3056-3315
영암스님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40~55세)
▷ 경기도
011-742-8890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급)구함
▷ 50세 이상이어야 됨 50세미만 전화사절
지리산
063)636-3451

눈
● 안구건조, 충혈, 피로, 눈꼽, 눈물
●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이상
● 당뇨 등 다른질병으로 시력저하
● 눈 수술전후, 눈의 모든 불편증세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KIST KDAR03G-3K 식약청 2106909099
http://eye88.hihome.com
제조원 : 日本(주) MERCURY-MK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1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지현역리학 연구원
◆ 생활역학 전문 교육처
- 고 자강 이석영, 고 단원 이병렬선생의 전통 학문 강의(초급~고급)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작명학 강의
- 본명 사주의 오행균형법 원형이정의 수리법 부족된 자원보충법
음령법 사상체질법 체계적인 이론연구의 정통작명 비법 전수
※갑신년 개요 : 강의록 테이프와 자료 판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 1004호
02)2243-9598. 018-470-6314

사람을 찾습니다

50대 후반 중키에 벙거지를 쓰고 남루한 옷차림에 갈지자 걸음이며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귀가 들리지 않은 분임.
옥균아! 어머니 마져 돌아가시고 누나랑 형과 너 밖에 없는데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양보해주면 될걸가지고 그토록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는 말이냐. 너의 의식주는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하루 빨리 돌아와다오.
형의 잘못은 너에게 깊이 사죄하고 용서를 빌테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나집으로 속히 와 주기 바란다.
● 사례금 : 일백만원
연락처 : 017-653-1077 / 011-9723-1043

목당易학연구원
睦堂 運命
침명풍육 술리수효
(개인지도)
☎ 969-3169 (청량리 현대코아 국민은행 사이길)

최면전문교육
당신도 최면 전문가가 될수있다
◆ 빙의(신들림) :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빙의와 적접 대화하여 가족이 확인하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본인이 목격함 (빙의된 분 별도상담)
◆ 전생상담 : 현생의 어려운 문제점과 전생과의 인연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
◆ 2일간 핵심비법교육으로 완성지도 ◆ 출강강의 가능함
개인지도 : 일휴스님
연락처 053)984-9569, 011-533-8022

탈퇴(종)공고
● 사찰명: 광명사 ● 정광법사 (이영화)
● 주소: 충북 영동군 매곡면 장척리 346번지
개인사정으로 구)법인의 탈퇴를 공고합니다
2004. 05 .1
(사)금강선원 이사장 합장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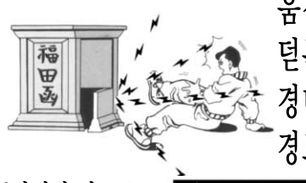
탈 종 공 고
● 사찰명: 수복암 ● 주지: 만영
● 주소: 경기 안산시 선부3동 1112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주지직인 무효공고
● 사찰명: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말사 성당사
● 주소: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 2구 1001번지
상기 주지 직인은 2004년 4월 30일 이후로는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성당사 주지 한동은 합장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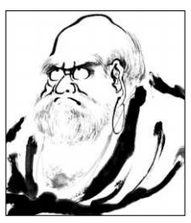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귀의 삼보하옵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고해라고 불리우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가엾는 중생들을 위해 산승이 기도와 제을 올리고 법시술로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고통을 부른다. 번뇌와 업과 고통의 이 세가지는 같이 굴러서 한이없고 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 한다.

- 굿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고통속에 사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에 재수가 안들고 이사매매가 막혀 궁금하신 분
- 평생 제복과 관운이 없어 본인의 관상과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들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요.
인연이 되시는 분은 직접 오셔서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힘을 얻는 좋은기회가 될 것입니다.중생들의 앞일을 스님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관음사 주지 고봉 합장
011-715-6333
불사에 어려운 스님에게 사주를 쉽게 통변하는 비법, 기공과 영력으로 영기를 천도하는 비법을 전수합니다

중국 자격증 및 학위 취득 연수

연수목적
소정의 연수 과정을 마치면 침구계(3년), 중의계(5년)결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 생업의 소득증대와 해외이민시 병, 의원의 설립과 유학시(편입), 포교사파송시(의료포교)
W.T.O 개방에 대비를 위한 연수입니다.

연수학교
중국 요녕성 중의연구원 (심양시)

연수기간
2004년 5월 25일 – 5월 29일 (4박 5일)

연수과목
중의침구학, 중국특수침법, 비만침법, 미용침법, 피부관리침법, 침구진단, 경락경혈, 단혈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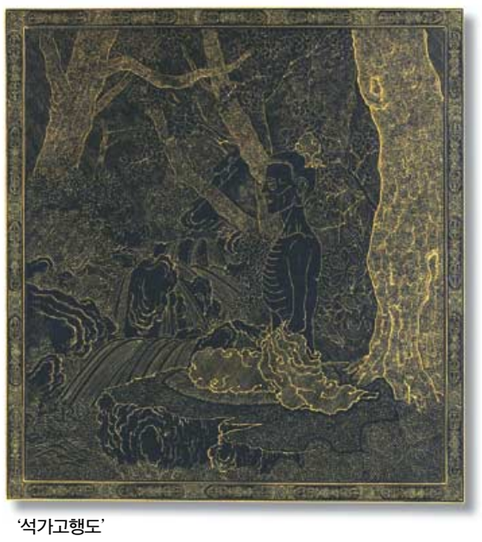
연수 설명회 및 신청
2004년 5월 16일 (일) 오후 2시~ 5시

중국 연수 유학 전문 중국 문화원
02)456-4248/016-221-4516
후원 : (주)관광포럼여행사

이해기 씨 '금화로 보는 부처님의 일생' 展

선으로 표현된 무상세계

5월 26일~ 6월 1일, 갤러리 라메르



'석가고행도'





'앙굴리 말라'

팔상도에 '석가의 수기' 등 20여점 추가
금속의 화려함 고급스러운 조형미 전달
민어고기 부레풀 사용 불교전통기법 계승

팔상도는 부처님의 일생에 있어서 출태(出胎), 출가(出家), 항마(降魔), 성도(成道), 전법륜(轉法輪), 입멸(入滅) 등 8가지 중요 장면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생의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사바세계에 내려오는 모습, 부처님의 탄생, 수행을 위해 왕궁에서 탈출하는 장면,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에게 설법하는 모습, 최후의 설법을 마치고 입멸하는 장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불화가 이해기(46 · 사진) 씨는 여기에 5년간 '아시타 선인의 예언' '마왕 파순과 딸들의 유혹' '7년만의 목욕' '석가의 수기' '앙굴리 말라' 등 20여개의 장면들을 더 그렸다. 이 씨는 그 결과물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갤러리 라메르에서 내놓는다. 전시 제목은 '금화(金畵)로 보는 부처님의 일생'.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 선보이는 30개의 작품 모두 금(金)을 재료로 사용했다. 육안으로 바로 쳐다 볼 수 없을 정도의 가는 선(線), 그 선들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면(面)들의 치밀한 조우 때문인지 보는 이들에게 심적 여운을 품게 만든다. 여기에 순금(純金)이라는 금속의 특성마저 물씬 묻어나 단순한 수묵의 멋내기나 변용을 뛰어넘어 부처님의 일생을 고급스럽게 조형한 느낌을 준다. 마치 숭고한 부처님의 일생을 영원토록 보존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씨는 고려시대 사경에 사용된 금니선화의 순금에 민어고기 부레풀을 써서 제작하는 불교미술의 전통기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의미를 더해준다.

미술평론가 홍경한 씨는 "그의 작품을 면밀히 뜯어보면 종교적인 시각에서 시간적 '무상(無常)'과 공간적 '연기(緣起)'를 종과 횡으로 연결시켰음을 알 수 있다"며 "불설(佛說)에 입각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통해 불교교리의 시각적 표현을 시도하는 장엄한 조형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한다. (019)9339-2536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한동희 스님 '육법공양' 공연을 보고

넘치는 듯 절제된 완숙미



'육법공양' 중 나비무를 추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대단했다. 범패가 갖고 있는 독특한 청과 작법에 내재된 기의 흐름은 수행의 정도를 가늠케했다. '한동희 스님 육법 공양' 공연(4월 29일 호암아트홀)은 불교의식이 갖는 품격과 그 속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예술적인 가치를 음미할 수 있었던 아주 드문 자리였다.

첫 순서 '명발'에서 허공 속을 가르는 바라의 작은 부딪힘, '요잡'에서 좌우로 요동치는 바라의 너울거림이 앙상블의 묘미를 선사했다면, 동희 스님의 천수바라와 '법고', '화청'은 깊은 수행과 고도의 정신 세계와의 만남이었다.

'육법공양'은 자주 대할 수 없었던 것을 만난 것만으로도 흥분되는 순서였다. 부처님을 향한 길을 만들고 여섯 가지 공양을 올리는 것은 그 의식 자체가 춤이고 음악이었다. 공양물에 담긴 비유와 상징의 의미는 몸짓에 담겨 춤으로, 마음에 담겨 음악으로 되살아나 무대예술로서 손색이 없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걸수(乞水)와 돌진언이었다. 물과 향, 진언이 차례로 이어지는 이 순서는 구혜, 동희, 한산 세 분 스님들이 진언을 외우면서 천천히 도는 장면에서 그 엄숙함과 시각적인 이미지가 부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안겨주었다. '나무영산회상불보'를 10명의 스님들이 짓소리로 합창하는 '거령산'도 그 웅장한 소리의 합일이 가히 감동적이었다. 마지막을 장식한 동희 스님의 화청 또한 대단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었다. 가슴 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한의 정서, 스님은 소리 하나로도 인간의 감성을 여지없이 건드렸다.

소리, 무용 초월한 정신세계 표현
양식 자체가 예술, 의식 진수 펼쳐

불교예술의 정수가 동희범음회 소속 회원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 또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직업무용단과 일부 무용가들에 의해 불교의식이 무대에 올려지면서 보여주었던 지나친 과장과 제대로 수련이 안된 상태에서의 어설픔, 그리고 원형 파괴의 흐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아쉬움도 있었다. 자음(불교의식)과 모음(극장예술)의 만남이 조금 더 확장되었더라면 하는 것이었다. 무대에서 보여진 동희 스님의 예술성과 연출력, 동희범음회 회원들의 열정이라면 격을 유지하면서도 극장예술의 다양성을 더욱 접목시킬 수 있었던 구성이 충분히 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공연에서 동희 스님의 소리는 영혼을 다스렸고 몸짓은 마음을 움직였다. 득음의 경지, 명무의 반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오랜만에 정화의 세계와 만난 참으로 특별한 날이었다.



장광열(무용평론가)

한국불교학결집대회 결산



5월 2일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 폐회식에서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 해주 스님(왼쪽)과 차기 대회장 종림 스님이 꽃다발을 주고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 기틀 마련

"외국학자들의 두드러진 참여 속에 이들이 자국의 불교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와의 비교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내놓았다. 응용불교에서는 이를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불교계 학술대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가 5월 2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외국학자들의 참여가 늘고 응용불교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 속에 한국불교사, 중국 · 일본 · 인도 불교, 선, 밀교, 응용불교 등을 주제로 11개 분과에서 17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외국학자 대거 참여
174편 논문 양적 증가
응용불교 연구 큰 성장
짧은 발표시간 등 한계

지난 1회 대회가 한국불교학자들의 모임을 시도한 대회였다면, 이번 대회는 결집대회를 보다 조직화해 지속적인 대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펼쳐내 보일 장(場)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또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최근의 화두를 현실에서 보여준 대회이기도 하다. 교수부터 박사과정자까지 모두 44명의 외국학자가 논문발표를 신청했고, 일본 '동아시아 불교연구회'는 외국 학회로는 처음으로 단체참여를 신청했다. 동아시아 불교연구회 회장 간노 히로시 교수는 "2년전 열린 인도학불교학회에서 결집대회를 처음 알게 돼 참여했다"며 "결집대회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널리 알려진다면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논문의 주제별로는 응용불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이웃학문과의 학제간 연구뿐만 아니라 종교 · 사상비교, 불교사회학적 측면의 연구로 불교학의 외연을 넓혔고, 발표된 논문도 지난 대회보다 3배나 증가했다. 노권용(원광대) 교수는 "응용불교 연구는 이를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연구로 나아가야한다는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집대회는 발표자들의 참여율 저조와 짧은 발표 시간으로 인한 토론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대회 참여율은 지난대회와 비슷해, 174편의 논문 가운데 자료집에 실린 논문은 139편으로, 35편의 논문은 발표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제출됐다. 이에 대해 한 발표자는 "참석하지 않은 발표자 가운데에는 불교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성실한 참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발표학자 당 논문 발표와 토론이 2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 발표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러나 170여 편의 논문을 모두 발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남아, 다음 대회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2006년 제3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대회장에는 종림 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이 조직위원장에는 이중표(불교학연구회 회장) 교수가 선출됐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마하몰(www.mahamall.co.kr) 봉축캐릭터 용품전

마하몰에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봉축용품을 준비하세요!! 상담 및 주문전화 02) 732 - 1520



▮봉축현수막 : 나염
90cm×6m (40,000원)
90cm×7m (45,000원)
90cm×8m (50,000원)



▮봉축현수막 : 세로
90cm×6m (60,000원)
90cm×7m (70,000원)
90cm×8m (80,000원)



▮지하철현수막
105cm×200cm (40,000원)
※현수막 크기, 내용은 변경가능

※ 기타 현수막 사이즈 주문가능



▮캐릭터비닐만월등
32cm × 32cm
분홍,빨강,파랑,
노랑,초록,색상별



▮장엄번(만장기)
90cm × 210cm (40,000원), 90cm × 230cm (45,000원)



▮캐릭터 청사초롱
4,000원 고급 본염 인쇄 ※최소주문수량 100개



▮어깨띠 2,500원
※100매 이상 사찰명 인쇄가능



▮봉축버튼
3,200원
※8개 1세트



▮팬시스티커
1,200원
※12개 1세트



▮봉축풍선세트
30,000원
※100개 1세트(대롱 포함)



▮성인용/아동용선캡
3,000원

▮자외선 차단 선캡
6,000원



▮큐방 연꽃 차걸이
3,600원
재질 : 마블
색상 : 노랑,분홍,
연두,보라,오렌지



▮연잎연밥 차걸이
3,000원(개당)



▮차량용 깃발
4,000원, 20×30cm



▮연꽃리본
일반 : 25,000원
고급 : 35,000원
노랑,연분홍,연보라
※100개 1세트



▮청자연잎 향꽂이
6,000원

추천상품



▮청자칠보투각향로
(靑磁七寶透刻香爐)
국보재현품.
~~49,000원~~
특별할인가 : 39,800원



▮백련정차
연의 꽃, 그리고 잎과 뿌리,
연자를 같이 법제하여 만든 차
50g : 18,000원, 100g : 35,000원
정차세트(50g+100g) : 47,700원



▮황토달마
~~98,000원~~
특별할인가 : 59,800원
가로25cm × 세로30cm
지리산 황토100%



▮연꽃전등(中)
35,000원
15cm(높이)×
17cm(넓이)



▮연꽃전등(大)
50,000원
15cm(높이)×
13cm(넓이)



▮연꽃저금통
3,000원

지면에 광고된 상품 외에 보다 많은 봉축용품을 인터넷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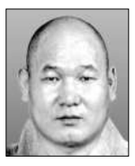
동국대 교직원 · 학생 수계법회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법산 스님은 5월 13일 오후 4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교직원 및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화엄신중탱화 점안식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일원동 비구니회관에서 화엄신중탱화 점안식을 봉행한다.



성주 자연체험학습장 개원

대구 우리절 불교대학 무량사 주지 일우 스님은 5월 7일 성주군 성주읍에 우리절 불교대학 성주자연체험학습장 개원법회 및 효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성북구민을 위한 법회

서울 성북구 사암연합회장 정수 스님은 5월 18일 오후 5시 성북구청 광장에서 성북구민을 위한 법회 및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7인 큰스님 초청 설법대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5월 19~25일 매일 오전 11시에 실상사 큰법당에서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 등 7인의 큰스님 초청 설법대회를 연다.



'5 · 18 정신승화와 종교' 세미나

광주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 광민 스님(무각사 주지)은 5월 9일 무각사 불교회관에서 '5 · 18 정신의 승화와 종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신도회원 팔순 잔치

안양 지장선원장 현호 스님은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선원 대법당에서 팔순을 맞은 신도회원을 위해 잔치를 연다. (031)444-5935



日 PHP 동우회장 방한

일본 '번영을 통한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동우회(PHP)' 회장 마츄노 소젠(松野宗純) 스님은 5월 6일 한국 PHP 경영자 총회 참석차 방한했다.

손창대 前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별세



탄허불교문화재단 前 손창대(사진) 이사장이 5월 3일 숙환으로 향년 72세에 별세했다. 손 前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59년 <사상계> 편집장, 66년 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 70년 화엄학회 회장, 88~92년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기자

■ 제2회 불교학 결집대회 참가 외국학자들의 '한국불교학 평가'

"한국불교 아직 잘 모른다"



간노 히로시



주칭즈



장메이란



스즈키 켄타

연구성과 알리기 적극 나서야
신진학자들 세계화 이뤄낼 것

"가까운 일본에도 한국불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번역된 논문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불교를 알릴 일반서적은 <한국불교사>(김영태 저) 정도만이 소개됐을 뿐입니다."

5월 1~2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에 참석한 간노 히로시(동아시아 불교학회장) 교수가 말하는 한국불교에 대한 평가다. 간노 히로시 교수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와같은 국제학술대회를 일본이나 중국만이 아닌 유럽 등지에도 소개해야 한다"며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성과를 알리는 등 한국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한국 불교는 아직 잘 모른다'는 말이 결집대회에 참석한 외국 학자들의 일관된 대답이었다. 중국 북경대 중문과 주칭즈 교수도 "한국불교가 남긴 자료들은 중국 불교학자들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한국불교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며 "극히 일부 학자들이 중국과 한국 불교연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불교학자가 수만 명에 이르지만, 한국불교를 전공한 학자는 거의 없으며, 한국불교는 일반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1600년에 이르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최근 신진학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이 한국불교 세계화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고려대장경에만 남아 있는 <조당집>을 연구하는 중국 청화대 장메이란 교수는 "<조당집>은 현대 중국어의 기원을 연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한국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굴 · 연구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또 결집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스즈키 켄타(동경대 박사과정) 씨는 "한 · 일 불교학자들은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젊은 불교학자들과의 잦은 왕래를 통해 불교학 연구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신행단체 활성화에 노력

경남불교협 5대 회장

우담 스님



"경남은 어느 지역보다 불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강한 불심을 근간으로 지역불교발전과 불교 현안 해결에 경남불교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경남불교협의회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4월 26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열린 경남불교협의회 2004년 이사총회에서 5대 회장으로 추대된 우담스님(쌍계사 주지 · 사진)은 경남불교협의회가 경남불교의 중심에서 불교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불교발전의 원동력은 승가와 재가의 화합과 조화"라며 "경남 지역의 신행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개

강릉장애인복지관장 취임

현각 스님



"장애인들이 자신 있게 사회활동을 하고, 자기 개발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의 마당을 마련하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릉장애인복지관장에 임명된 현각 스님(원주 소쩍새마을 이사 · 사진)은 향후 복지관 운영방침을 이렇게 밝혔다. "복지관이 찾아가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강릉시내 3천여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해 스스로 즐기는 복지문화를 만들 생각입니다."

스님은 이와함께 현재 운영 중인 '장애아동 주간보호소'와 '치매 · 중풍노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부산 범어사 수계산림 회향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대성)는 5월 1~3일 제104회 금강계단 수계산림법회를 보제루에서 봉행했다. 2천 5백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회향식에서 전계아사리 흥교 스님은 "보살계는 생활에서 구현하여야 할 실천 덕목"이라고 말했다.

영천 육군3사관학교 수계법회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 충성호국사(주지 진공)는 5월 2일 (사) 룸비니국제문화교류협회 소속 한국군법사후원회 후원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대성사 조실 도문 스님을 계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3백여 명의 사관생도, 30여 장병이 계를 받았다.

보갑사 비로자나부처님 봉불식



경북 청도 보갑사(회주 영담)는 5월 2일 사부대중 7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전에서 비로자나불 봉불식을 봉행했다. 동화사 비로암 범룡 스님이 증명법사로 봉행된 봉불식은 해동선원장 성수 스님의 법어,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사)미륵원 경로잔치 개최



(사)한국불교 미륵원(이사장 송정)은 4월 27일 경남 김해시 관음정사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잔치에서 송정 스님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불제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양주 백화암 마애삼존불 점안법회



경기 양주시 불곡산 백화암(주지 보인)은 5월 4일 마애삼존불 조성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점안식에서 증명법사인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거대한 불사를 이뤄낸 원력이 널리 회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

천태종 금강불교학원 △감사=전문모

천태종 △여주 성주사 신도회장=원무길 △송탄 송덕사 신도회장=신용철 △연기 래운사 신도회장=이갑수

佛紀 2548年 "부처님 오신날" 奉祝

BBS 公益 캠페인

"불교생명존중운동은 우리 산 · 절 · 물 지키기"

" 우리 산을 지킵시다."
" 우리 절을 지킵시다."
" 우리 물을 지킵시다."

불교방송, 신라 김교각스님 등신불 참배, 성지순례

중국 지장성지 구화산, 천하명산 황산 · 장가계

■ 지도법사 : 진명스님(BBS M.C), 종연스님(인천 수미정사)
■ 동 참 금 : 1,360,000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출국세 포함)
■ 신청마감 : 2004년 5월 22일까지
■ 출발일정 : 6월 3일(木) 5박 6일
■ 현지법회 : 구화산 육신보전에서 영가천도법회 봉행
■ 문의전화 : 해외성지순례 담당 : ☎(02)705-5301 ~ 3

BBS 불교방송 www.bbsfm.co.kr



불자 세상보기

최 성 렬
조선대 철학과 교수

천상천하 유아독존

송화가루가 날리고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피어나면 어김없이 '부처님 오신날'이 가까워졌음을 감지한다. 해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할 것 같다. "왜 그래야 하는데?"라고 반문한다면 거저 '쉬는 날'이라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은 불교도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의 '부처님 오신날'은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낌새를 못 알아챈다면 동사섭이 필요한 때라고 말해 주고 싶다. 중생을 섭수하는 일은 보살의 최우선 과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고성(呱呱聲)에서 그러한 과제를 새삼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탄생게로 잘 알려진 이 고고성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다. 그런데도 불교도조차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불교를 폄하하는 이들은 저만 잘 났다고 뻐기는 독선으로 곡해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우리 모두'라는 보편적 인간성,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존엄하다는 말로 이해했으면 좋으련만…. 인간의 존엄을 말할 때 우리는 대개 르네상스를 떠 올린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탄생게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는 '참 나'이기 때문이다. 그 점은 자기본위의 시대를 추구하면서도 자기상실이라는 아픔을 경험한 서구인들의 관심이 이 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일이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는 이라크 전쟁, 그 전쟁이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군 및 영국군의 이라크 포로학대로 아랍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보도가 심상치 않아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다가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의 보도는 가해 당사국으로까지 파문을 증폭시켜 놓았다. 사진속의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힌 이라크 포로의 생생한 증언을 바그다드 현지에서 취재해서 대서특필한 때문이다.

무슬림에게 나체는 치욕이라고 한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에 그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 포로들만이 아닌 모든 아랍인들의 수치로 여기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무슬림에 대한 서구인의 증오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연합군의 철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부시의 말처럼 정말 "부끄럽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쯤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를 재확인 해보자.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라고 해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 인권임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만큼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이 가식이나 위선은 아닐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3D업종 종사자에 대한 차별이 엄존하고 있다. 폭력과 감금, 산업재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무관심, 악덕 사업주들의 행패 또한 여전하다. 심각한 인권유린임에도 우리들은 늘 침묵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고서도 이라크 포로들의 학대를 말할 수 있을까?

잊혀져서는 안 될 사람들, 그들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라는 인식으로까지 확산되게 해야 한다. 지난해 광화문을 밝힌 촛불처럼 말이다. 그래야 섭수라 할 수 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통합을 발전의 에너지로…

한국불교의 위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었어야 할 과제, 아니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불교계의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야 올바른 모습을 찾아가게 되었다.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하나로 통합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로 새롭게 출범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는 한국불교가 진정한 사부대중의 공동체로 서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사부대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한국불교엔 진정한 사부대중이 없다. 그나마 스님들은 승단이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재가자들은 변변한 조직하나 없이 개개인으로서 이 스님 저 스님, 이 절 저 절을 찾아 방황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불교의 현실이 이러하기에 화합된 대중이라는 의미로서의 사부대중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재가 신도들이 진정한 대중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단순히 재가자의 문제가 아니다. 재가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출가자만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가자가 재가자의 역할까지 함으로써 출가자의 본분을 충실하지 못하고 결국 여러 오욕까지 감수하게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된 가장 현실적인 원인은 바로 신도들의 조직체계가 바로 서지 못하였고, 통일된 전국적인 신도 조직이 없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에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라는 두 전국 조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한국 재가불교조직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제야 제 궤도를 찾아간다는 것에 환호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시의에 맞는 활발한 신도운동을 통해 조직과 위상을 강화해 진정한 한국 재가불교의 중심으로 서기를 기대한다.

우선은 이미 종헌 종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재가신도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가 승단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요건이며, 그 점에서는 출가승단도 재가자를 단순한 교화의 객체로만 보던 기존의 인식을 벗어나 재가자의 역할과 위상을 확실히 부여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만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해 둔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욕망

누구나 잘 욕망을 채우고자 바라나,
폭력을 남들에게 마구 가하고
그 중에서 스스로 편안하기를 구할 때는,
내생에서 즐거움을 결코 얻지 못하리라.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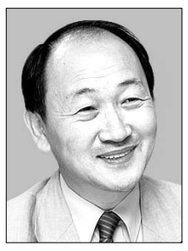
100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날치기와 4건의 강도, 3건의 성폭행, 3건의 납치강도 등 범죄행각을 벌인 40대 박 모씨. 최근 고등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위해 인체급소와 변장술을 배운 점,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점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부처님께서는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천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한 행위로 인해 천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다. 강도사범을 사회에서 격리시킨 이번 선고는 열심히 일하는 대신 남의 피땀 어린 결실을 훔치는 것으로 이익 추구한 '파렴치'에 대한 경종이었다.

요즘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쉽게 자행된다. 실업률이 높아도 3D업종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회피하는 시기이다.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도 쉽게 돈을 벌려고 사람을 헤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 일을 보면서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심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최근 TV에서 고학력이지만 3D업종에 종사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러한 이기심에 대한 본보기가 아닐까.

악행은 자신을 이롭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쉽게 여겨 행하게 된다고 부처님은 강조하셨다. 잊지 말자. 쉽게 돈을 벌고자 악행을 하는 일은 어리석은 자만이, 천한 자만이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강지연(뉴미디어부 기자)



윤범모
미술평론가
경원대교수

특별기고 제20회 불미전 공고를 보고

창작분야 제외…시대정신 어디 담나?

벌써 20회라, 아니 30년이 훨씬 넘었다니, 이제 청년기도 넘어 제법 어른 노릇도 할 때이다. 조계종 총무원 주최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을 두고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불미전은 어찌하여 아직도 소년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예술을 통한 포교효과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가.

제20회 불미전 공모요강이 나왔다. 이 전시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불미전은 격년제로 열리며 불교미술의 맥을 계승하고 저변확대와 신인 등용문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것도 세계에서 유일한 공모전이라 한다. 하지만 나는 이 대목에서 혼란을 느낀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숱한 미술전을 보아왔지만 조계종 불미전 같은 것은 보질 못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세계 유일의 공모전'일지 모른다. 국제무대에서 공모전의 위상이 날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세계 유일 운운하는 것부터 촌스러움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미술전이라는 명칭을 달고도 일반 미술계와 담을 쌓고 개최되는 미술전이란 측면에서도 아마 세계 유일의 것일지 모른다. 불미전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 미술전이 일반 미술계와 무관한 동네에서 열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추어의 취미 행사이거나 아니면 특정집단을 위한 은밀한 행사이거나, 뭐 그렇고 그런 것일 게다.

예술이라는 단어 속에는 창의성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개성과 창의력이 부재한 작품은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총무원 미술전도 전시제목에 미술이란 단어를 채택했다면 무엇보다 이 창의성 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미술전과 문화재 복제기술 경진대회와는 별개의 것이다. 옛것에만 매달려 마냥 과거지향적인 이른바 골동취미를 미술 혹은 창작품이라는 이름 아래 묶지는 않는다. 도대체 언제쯤 새로운 전진과 개척에 눈을 돌릴 것인가. 찬란하다는 신라미술도 당시로서는 '당대(當代)의 미술'이었다. 8세기의 미술은 8세기의 시대정신을 담보하고 있다. 마찬가지 논리로 21세기의 미술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담보해야 한다. 그것이 예술이고 창작이다. 그런데 오늘의 불교미술은 이같은 기초상식을 충실히 소화하고 있는가.

제20회 불미전에서는 그나마 있었던 현대미술(창작)분야를 제외했다고 한다. 일반 미술계와 아예 담을 쌓고 종단 행사로만 전시의 위상을 격하시키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다. 역량 있는 현역 작가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쉽기 그지없다. 로마의 바티칸미술관에 가서 나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낀 바가 있다. 역대로 수집된 미술품의 내용은 곧 그들 시대마다의 충실한 역사였다. 르네상스만이 찬란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미술 분야도 매우 훌륭했다. 그것은 과거복제가 아닌 당대의 창작품으로 항상 동세대인과 호흡을 함께 나누었던 살아 있는 역사의 산물이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미술에 목마른 것이다.

불교미전에 제언한다. 이젠 종단 행사에서 미술계행사로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미술전은 일반 미술가의 참여를 위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불교사상을 기초로 작업하고 있는 현역작가도 적지 않다. 이제 불교미전도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서는 오늘의 미술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찬란한 불교미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은 소중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복제만으로 오늘의 현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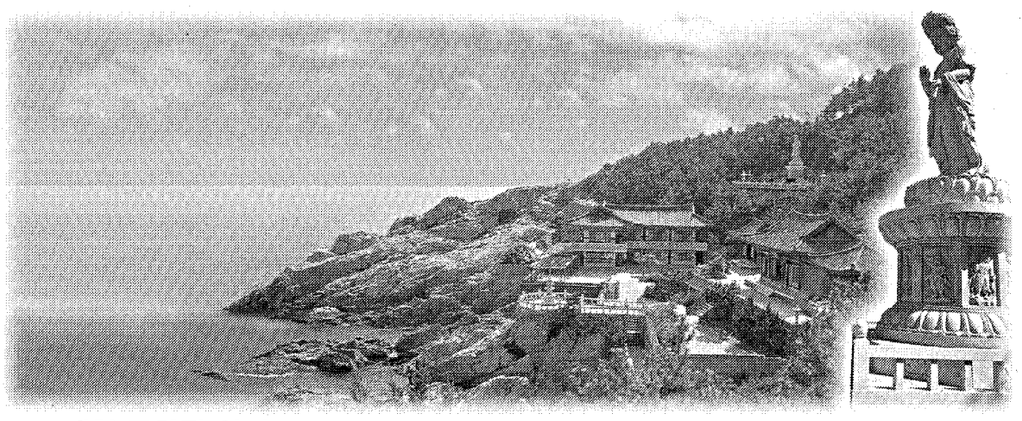
감동은 시대정신과 투철한 작가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작품을 우대하는 미전이 되어야 한다. 하여 일반 미술계는 물론 미술애호가들도 즐겁게 전시장을 찾는 불교미전이 되어야 한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휴대용 다구(茶具) 출시!

스님, 불자님!!! 가벼운 산행, 성지순례, 대중공양때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나 O.K
싱그러운 차향(茶香)과 건강을 선물하세요.
단체 주문 일 경우 원하시는 로고를 새겨드립니다. ※ 자동차 컵홀더에 사용가능


450ml / CS2001


360ml / CS2002


CP1001


거름망을 탈착 시킬 수 있으므로 찻잎, 티백 등이 분리됩니다.
진공 이중용기라 보온, 보냉이 확실합니다.


고급포장,
미려한 제품디자인.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녹차, 중국차, 티백등 입 맛따라 간편하게 사용되는 휴대용 차도구

(株) 치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1-2 그린빌 오피스텔 511
TEL: 서울본사 02)3487-0308(代)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봉축 명품 정보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부처님의 법음이 넘치는 륜장(輪藏) 묘음 법륜장(妙音法輪藏)



불교 벤처기업 금강SM(대표 이인배)에서 오랜 기간끝에 '묘음 법륜장'을 개발하여 화제다. '묘음법륜장' 이란 부처님의 슬기가 살아 넘치는 묘음이 흘러나와 인간의 번뇌심을 소멸하고 화락한 마음으로 빛나게 하는 신기로운 소리가 마음의 때, 번뇌 모두 씻어 행복한 삶을 점지하는 생명의 소리를 수기 받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 제품은 이름과는 달리 내부에 첨단 공법을 이용 제작 되었다. 내부구조는 전자회로와 전면에 인체감지센서, 후면에 전원짹과 볼륨조정기를 장착한 하대와 스피커가 장착된 중대, 여의주와 LED전구를 회전하는 DC모터와 감속장치가 장착된 상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LED전구의 5색은 불교기(佛敎旗)의 5색 뜻을 참조하여만들어졌다. 묘음법륜장은 창작예술품 수준의 불교조형물로써 불교계 인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사찰과 불자들의 가정에 비치한다면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불교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포교매개체로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찰에서 법당내 상단 불상 옆에 장엄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스님이 법당에 계시지 않아도 불자님들의 기도를 도와 주는 등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 일본에서는 묘음 법륜장을 불전함옆에 놓아 두어 야간에 침입한 도둑을 감지하여 잡은 사례로 접수되고 있다. 금강SM은 묘음법륜장에 사용된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관광문화상품도 개발, 한국을 찾는 많은 해외 관광객에게 한국고유의 전통불교문화 관광상품을 공급하게 되므로써, 한국의 불교 문화를 전세계에 전수 외화 획득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봉축기념 특별 할인판매(10개한정)
- 묘음 법륜장 개금 ~~1,080,000~~ → 864,000
- 묘음 법륜장 청동 ~~660,000~~ → 430,000

사용법 묘음 법륜장 전면에 사람이 2M이내 접근시 인체감지센서가 감지하면 전자회로가 작동, 에밀레 종소리(3번)와 새소리, 바람소리가 발생과 동시 목탁소리가 함께 반야심경(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10호 범패작법보유자 김능화 스님)독송이 울려퍼진다. 이때 여의주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1분 1회)LED전구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5색의 찬란한 빛이 여의주표면 글자에 비춰지며 화엄경의 상단부분에 불꽃형상이 나타난다. 작동시간은 4분이경과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감지센서에 사람이 감지되면 재작동을 반복한다. * 본 제품 음성칩은 원하는 음성를 재 취입할 수 가 있다.

■ 제품 문의 금강 S.M 02-2264-7751 / 016-211-7741

향의 名家 – 풍경향방

천연 고급향, 그윽한 내음으로 마음을 정화시켜 ...

웰빙시대에 맞는 건강향이 시중에 출시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곳은 향의 명가 풍경향방이다. 특히 풍경향방에서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건강향을 집중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계룡산 산자락에서 자생하는 야생초와, 각종 한약재를 사용하여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잃어버린 고향을 생각날 정도로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향이다. 각종 화학 재료를 첨가해 만든 향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풍경향방 제품은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 종류도 다양하다. 들꽃향, 연꽃향 좋은날, 참솔향, 계룡산 풍경향 등 각 이름에 맞게끔 제조 되어 있다. 특히 참솔향은 춥고 더운 사계절을 인내하며 변화의 내음을 고스란히 간직 하고 있는 한국 재래의 조선 청솔 그 솔잎과 향을 주재료로 만들었으며, 그 은은한 향내는 솔밭을 산책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또한 실내를 정화 시키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향이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불자님들의 향 문의에 성심껏 상담에 임한다는 박옥순 사장은 앞으로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향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 할 예정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힌다.

풍경

달 가고 해 가면 별은 멀어도 산골짝 깊은 골
초가 마을에 봄이 오면
가지마다 꽃 잔치 흥겨우리
아 이제는 손 모아 눈을 감으라
고향 집 싸리울엔 함박 눈이 쌓이네
고향 싸리울엔 함박눈이 쌓이네



■ 참솔향세트 25,000원
■ 참솔향(휴대용) 5,000원
■ 참솔향(예불용) 12,000원
■ 참솔향(신도용) 12,000원



■ 계룡산 풍경향 12,000원



■ 들국화향 20,000원
■ 들꽃향 20,000원



■ 연꽃향 좋은날 20,000원

제조원 : 풍경향방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734-1
TEL 041)857-2115

육법등[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주)동원전기에서 심혈을 기울여 법당안을 장엄할 육법등을 개발하였다. 육법등의 특징은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에 착안하여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서 등을 밝히게 하였다.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수 있음은 물론, 등 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었다. 육법등의 활용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 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또한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쓸수 도 있으며, 장례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외 각종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에 적합하게 쓰일수 있도록 세심한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 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주)동원전기 제품문의 031)541-1417

충판 및 대리점 모집 중

부처님 등불 수공예양초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파랑) 신혼기원(자주)

불자님들의 가정과 스님께 선물 및 보시용으로 최고인 기원 전기 촛불 수공예 양초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안정성과 그을임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이다.

색상도 흰색, 자주, 청색, 노랑, 옥색외 다수가 출시되었다. 이 제품은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제품문의 02-996-8830



현정스님의 念 佛 禪

그리움의 노래

백날을 하루같이 부처님이 그리워 「그리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빈도의 佛心을 담은 그 노래에 많은 불자들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열성을 보내고 있는 불자님들에게 부처의 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다시한번 「그리움의 노래」를 바칩니다. 아직까지 그리움의 노래를 만나지 못한 불자님들에게 최고의 법보시를 부탁 드립니다.

테이프 전면에 「그리움의 노래」후면에 「선근인연가」「부모은중가」「불전참회가」「회향산회가」등 주옥같은 법문이 염불송으로 녹음되어 테이프+책=5천원에 전화주문 받고 있습니다.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 (금산정사) [2개이상 우송]

불교의 우리말화 실천도량 금산정사 061-843-8822

불교 불교용품 전문점

善 友

代表 朴榮敏 합장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378-28 전화 021998-7930

燈(등)은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황 금 연 등



저희 금등사는 끊임없는 연구로 새로운 금등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불교문화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약속드리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금등사 대표 전인권 합장

황금연등

고급 금색 섬유재질로 만들어져 연등을 금으로 만든 듯 신비스런 멋과 반짝임이 아름답습니다.
햇볕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잘색되지 않습니다. 비가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리는 방수효과가 뛰어납니다.
깨지거나 구겨지지 않고 가벼워 보관이 용이합니다.

제품사양

폭	높이	중량	박스당 수량
19.5cm	13.5cm	120g	20개
23cm	18.5cm	180g	12개
28cm	21.5cm	280g	8개
34cm	30cm	420g	4개
48.5cm	40cm	1000g	2개



KD 금등사 http://kumdeung.com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93-14 E-MAIL : webmaster@kumdeung.com
문의 및 구매상담 031-846-1950. 011-774-1452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귀의삼보하옵고

저는 15년간 불교 양초만 제조해 온 삼환양초 대표입니다.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Natural Candle)를 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 제조하여 공급하여 왔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던차에 선직국 미국에서 대두(콩)으로 추출한 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두(콩) 왁스를 수입코저 원가를 확인하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라핀 왁스 대비 4.5배에 가까워 도저히 불가하여 고민하던 중, 동남아 모처에서 (식용)팜유에서 추출한 왁스를 구매하여 식물성 양초(Natural Candle)를 제조 공급하게 되었다. 비록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기다립니다.

삼환양초 가족 일동 올림



식물성 양초 특허실용신안 No. 1-1-2002-5191666-11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제조방법 – 식물성왁스(팜유에서 추출한 왁스) + 파라핀왁스(공업용왁스) 혼합특수공법으로 제조 < 팜유란 야자열매에서 추출한 식용기름이며 국내에서는 라면외 튀김용으로 사용하여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는 모든요리에 사용하는 식품 식용유입니다.>

삼환일반양초





■ 문의 전화 : 031)766-0242, 0243 팩스 : 031)766-0233

벗이 있는 길 행복합니다

국내 종교계는 몇년 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부활절 마다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가 서로 축하해주는 등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추진해 왔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종교간 이해의 표출이자 평화적 공존을 다지는 희망적 메시지다.

9.11 테러와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 종교적 교조주의와 독선, 배타주의는 평화를 위협한다. 종교간에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풍토의 확산은 그래서 더욱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자비와 사랑, 생명정신의 고양과 봉사란 종교 본연의 사명에 걸맞게 우리 사회의 공동선 건설에 한마음이 된 성직자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가치관의 혼돈, 생명경시 풍조, 빈부격차, 분열과 폭력 등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이 땅에 불국토와 천국을 건설하는 일에 도반이 되어 협력하고 있다.



남매처럼 다정한 현장 스님과 이해인 수녀님.

■ 현장 스님과 이해인 수녀

지난 4월 11일, 남도땅 보성 대원사에서 건강달리기 대회가 있었다. 빨리 뛰기보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대원사 벚꽃길을 음미하는 잔칫날이었다. 늦게 도착한 참가자와 가족에게 더 푸짐한 상품이 돌아갔다. 그 상품 가운데 저자인 이해인 수녀가 직접 사인한 시집 30권이 기증됐다.

"해인 수녀님은 종교를 떠나 형제이고 도반입니다. 만나면 여느 사람들보다 더 편하고 격의가 없어요."

성직자이지만 현장 스님과 해인 수녀에게도 터놓고 말하기 어려운 고뇌가 있다. 그럴 때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서로의 지혜를 구하곤 한다. 그래도 풀리지 않을 때는 상대의 종교적 힘으로 기도해 달라고 떼도 쓴다.

뭐든 터놓고 말하는 편한 사이
서로에게 지혜의 창구 역할

현장 스님과 해인 수녀가 처음 만난 것은 80년대 후반. 당시 서울 법련사 주지였던 스님은 타종교 성직자들과도 많은 교류를 나누고 있었다.

하루는 화순에 살고 있는 한 수녀의 소개로 해인 수녀의 특강에 참석했다. 강의가 끝나고 해인 수녀가 육체질환이 있는 미혼 독신 여성들의 모임인 '사랑의 고리' 회원들과 함께 잠을 자러 갔다. 그날 현장 스님은 해인 수녀가 남들이 함께 하기를 꺼리는 잠자리에 스스럼없이 찾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감성적인 언어로 사람들의 아픔을 승화시키는 그녀의 시가 그냥 나오지 않음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 후, 현장 스님이 보성 대원사로 주석처를 옮기면서 서로의 인연은 더욱 빈번해졌다. 외국에서 신부나 수녀가 해인 수녀를 찾아오면 대원사에 템플스테이를 요청하곤 했다. 가끔 수도원 피정 때 스님이 초청되어 참선, 108배 등 불교수행을 소개한다. 2002년 대원사 개산 1500주년을 기념해 '세계평화기원 종교음악축제'를 대원사에서 개최했다. 그날 해인 수녀는 축시를 직접 낭송하며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지난해 대원사에서 열린 국제 차문화 교류대회에서도 해인 수녀는 '차를 마셔요'라며 축시를 낭송했다.

현장 스님과 해인 수녀, 그들은 종교와 성(性)은 달라도 가장 마음이 잘 통하는 도반이다.

■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2003년 5월 23일.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며 세 번 걷고 한번 절하며 먼길을 돌아온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삼보일배 순례가 끝나자마자 수경스님은 문 신부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총 2백85km의 수행길을, 하루 3천배의 절을 올리며 5km를 행진한 고된 길이었지만 오체투지를 하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았다는 두 성직자. 수경 스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건 고행에는 늘 문규현 신부가 옆에 있었다. 스님이 문 신부님과 함께

실천으로 보여준 따뜻한 우정
생명존중 코드 맞춘 형·아우

삼보일배를 한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1999년 12월 지리산 댐 문제로 낙동강도보순례를 하면서부터 만나 단식과 삼보일배를 하면서 북한산 관통도로를 온몸으로 막고 새만금 건설 반대에까지 함께 한 동지다. 서로를 형님, 아우로 부를 정도로 각별한 그들의 만남을 우정을 넘어선 형제애로 묘사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면 맨날 단식에 삼보일배로 농성하는 일뿐인데 그만 갈라서자"는 수경 스님의 농에 "나도 바라는 바다. 제발 안보고 살자"며 답하는 문 신부이지만 이들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하루 12번도 더 연락을 하는 살가운 정을 과시하곤 한다.



왼쪽부터 장덕훈 교무, 김동규 신부, 종선 스님, 송영웅 목사.

■ 종선 스님과 김동규 성공회 신부

"어, 동규(신부)야!" "어? 재철(종선스님)아!"

고등학교 동창이 스님과 신부가 되어 25년 만에 다시 만났다. 2000년 초파일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8개 교단 대표들이 통도사를 축하 방문한 자리에서 다시 만난 두 주인공은 종선 스님(내원암 주지)과 김동규 신부(성공회 용호교회).

고교 동창 … 성직자로 재회
축구·봉사 등으로 교류 확대

종선 스님은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 당시 함께 왔던 송영웅 목사와 김동규 신부를 내원암에 초청, 종교를 초월한 연합 봉사단체 결성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매년 10월 열리는 산사음악회 무대에는 스님, 신부, 목사가 손을 맞잡고 무대에 올라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만남이 잦아지면서 종교인 한마음 축구대회로 크게 승화됐다.

월드컵 개최 1주년이 되던 2003년 6월 울산 남구 월드컵 문수축구경기장에서는 불교, 기독교, 성공회에 이어 원불교까지 합세했다. 2003년 10월에 열린 내원암 산사음악회에는 불교, 기독교, 성공회, 천도교, 원불교 5개 종파 종교인들이 한 무대에 섰다. 비구, 비구니, 신부, 수녀, 교무, 정녀 등 성직자 20여명으로 구성된 5대 종교연합합창단의 합창도 선보였다.

2004년 6월 울산 남구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종교인 축구 대회가 다시 열린다.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가 열리는 내원암에서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축구대회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 올해는 천주교, 천도교의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관욕하는 정홍규 신부(왼쪽)와 허운 스님.

■ 허운 스님과 정홍규 신부

"우리의 만남은 산골짝에 물이 갈라져 따로 떨어져 흐르다가 다시 만난 것과 같습니다. 종교를 떠나 같은 구도의 길을 가는 입장에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 사이지요."

대구 수성구 고산성당 정홍규 신부는 허운 스님과의 사이를 이렇게 이야기 했다. 비슬산 은적사 주지 허운 스님은 사찰이나 불교가 사회나 이웃에 회향하는 여러 실천방법 중 제일 시급한 것이 환경문제라고 생각한다. 허운 스님은 2002년 10월 대구 시민의 자연공원인 앞산 은적사로 부임하면서 환경문제에 마음을 쏟게 됐고, 그러면서 정 신부를 만났다.

"정홍규 신부님은 심성이 부드럽고 사고가 유연하지요. 15년간 환경운동을 상당히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배울 점이 많아요." 허운 스님은 정 신부를 이렇게 자랑한다.

환경운동하며 마음 공유
지역발전위해 한마음 큰 뜻

정 신부와 허운 스님의 만남은 오래 되진 않았지만 종교를 초월한 우정이 지역에 따뜻한 화제를 남기면서 지금까지 돈독히 다져지고 있다. 허운 스님이 작년 부활절을 맞아 축하의 의미로 난 화분을 보낸 것이 시작이었다. 같은 해 부처님오신날엔 정 신부와 신도들이 은적사를 방문해 관불의식을 같이 했으며, 급기야 작년 5월 25일에는 허운 스님이 종교간의 벽을 넘어 고산성당에서 법문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작년 11월 고산성당에서 개최한 우리쌀 살리기 시식회에도, 12월 은적사 송년법회에도 올 2월 예수재에도 두 성직자는 함께 있었다. 올 초파일에도 정 신부는 평화의 등을 달기 위해 은적사를 찾을 예정이다.

정 신부는 스님이 방문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가움을 표했는데, 목가적 평화로운 풍경의 동판액자를 선물하는가 하면, 한번은 수련을 사다가 성당주위에 심어 온통 수련밭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작년 부활절 날 허운 스님이 선물한 난 화분에 꽃이 활짝 펴, 정 신부가 미사시간에 신도들에게 보이고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허운 스님과 정홍규 신부는 앞으로 지역발전과 환경을 위해 함께 갈 길을 구상중이다. 환경을 위한 작은 음악회도 구상중이며 과거에 사상적 대립으로 억울하게 스러져간 영가를 위한 위령제도 생각중이다. 성가대와 합창단의 화음을 이끌어 내는 것도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이준엽 · 천미희 · 배지선 기자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3>



일심이란 무엇인가

원효는 <기신론소>에서 성취해야 할 법이 왜 일심(一心)인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심법을 세운 것은 법을 의심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대승의 법에는 오직 일심만이 있으니, 일심 밖에 다시 다른 법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다만 무명(無明)이 자신의 일심을 미혹하여 모든 물결을 일으키고 육도(六道)에 유전한다.

그러나 비록 육도의 물결을 일으키지만 일심의 바다를 벗어나지 않는다. 진실로 일심이 움직여 육도를 짓기 때문에 널리 제도하려는 원을 일으킬 수 있다. 육도가 일심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체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심을 제거해야 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깨끗함과 더러움, 본성은 둘 아닌 하나
일체 경계가 자기 마음과 다를바 없어

일심이라고 이름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은 그 본성이 둘이 없어 거짓과 참됨의 두 문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일(一)'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 둘이 없는 곳이 모든 법 가운데의 실체이나, 허공과 같지 않아서 본성이 스스로 신령(神靈)하게 이해(理解)하기 때문에 '심(心)'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체 경계가 자신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일심을 깨달아야, 주객이 한몸인 줄 알고 자비의 마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심을 대승의 유일한 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일심이라고 이름한 뜻은 진여가 일체법의 본질이지만, 분별심이 없고 신령한 작용을 일으키는 마음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일심이라고 이름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종요>에서는 일심(一心)은 번뇌에 물든 중생심이 아니라 중생심의 본체임을 이해하도록 중생심의 본성(衆生心性)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미타경소>에서는 이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중생심의 바탕 됨(衆生心之爲心地)은 모양도 없고 성품도 없어서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심은 연기의 세계관을 신해(信解)하여 '연기즉공(緣起卽空)'을 통찰함으로써, 일체 경계는 일심임을 주체적으로 증득한 지혜입니다. 일심(一心)은 대승의 유일한 법(法)이며, 여래의 마음이고, 중생심의 본성입니다. 무아의 생명이며, 나의 생명이고, 우주적 생명입니다.

일심은 자신에게 있으면서 일체의 경계를 포함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보는 마음이고, 일체경계는 보이는 마음입니다. 곧 일체 경계는 자신의 마음이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심의 경지에서는 색(色)과 심(心)이 둘이 아니고, 예토와 정토, 생사와 열반이라는 상대적 개념도 사라져 버립니다.

원효는 '일체 경계는 일심'이라는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믿어야 한다(仰信)고 하였습니다. '우러러 믿어야 한다'는 것은 곧 종교적 신념입니다.

원효에게는 깨달음 혹은 열반이라 하여도 그것은 일심의 다른 이름이며, 정토 역시 종교적 신념으로 염원해야 할 세계인 동시에 스스로 깨달아 일심의 바다에 나아가는 한 문이었습니다. 이치가 이러한 때문에 허망한 번뇌를 여의고 꿈에서 깨어나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면, 예토와 정토, 생사와 열반 등 일체의 상대적 경계는 일심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심의 근원에 있는 사람이 불보(佛寶)입니다. 일심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법보(法寶)입니다. 일심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승보(僧寶)입니다. 일심은 곧 삼보입니다.

<양산 정토원 원장>

금강선원 혜거스님의 선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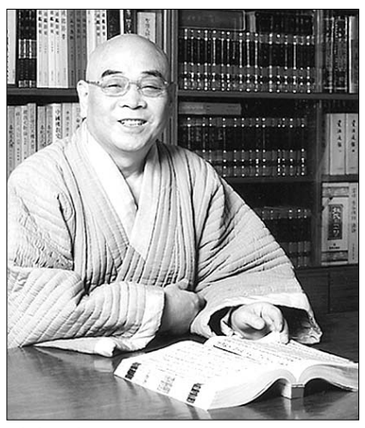
초심자 위한 '좌선의' 출간

4월 30일(금)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빌딩에 자리잡은 금강선원(cafe.daum.net/sunmoontemple). 비교적 넓은 법당에 가득 자리를 메운 300여 불자들이 원장 혜거(慧炬) 스님의 금강경 강의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시되 실로 얻으신 것이 없다는 것은 최상의 지혜는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배우고 익혀서 얻는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관념을 내버려야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혜거 스님이 <금강경> '무법가득분(無法可得分)'을 원문과 함께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자, 어렵게만 느껴지던 <금강경> 법문이 명쾌하게 이해된다.

이달은 참선을 위주로 도심 포교를 해 온 금강선원이 개원한 지 16주년을 맞은 달. 1988년에 혜거 스님이 처음 법당을 열었을 때만 해



혜거 스님.

도 함께 공부하던 신도는 10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천여명으로 늘어났다. 매주 1회 3개월간 진행되는 기초참선반, 이곳을 이수한 뒤 매주 목요일 오후 1~5시 참선법회를 갖는 정수회(회장 김은민)를 중심으로 한 참선 공부와 신도회(회장 박영희)의 경전 공부가 한 주도 쉬지 않고 이어져 왔다. 2000년 3월부터는 강원도 홍천에 참선 수련도량 '선문장(033-433-5845)'을 개설, 주말 및 하계수련회와 산철 결제도 열고 있다.

혜거 스님은 불교TV에서 <금강경> <육조단경> <유식30송> 등 '경전 강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최근 초심자를 위한 참선책 <참나-좌선의 강의>(선문출판사)를 펴낸 혜거 스님으로부터 참선 공부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금강선원 만의 독특한 공부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강선원은 전통적인 조사선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입문자들을 위해서는 여래선(위빠사나, 지관법(止觀法) 등)의 장점도 도입하여 실참에 가미하고 종국에는 조사선으로 회향하는 차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홍천 선문장에서 수련생들이 참선하는 모습.



수련생들에게 보행선을 지도하는 혜거스님.

기본은 '내 안' 들여다 보기

수행원칙

- 망상 가라앉히기
- 내려놓기
-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 자기와의 만남 갖기
- 늘 깨어있기

▲좌선을 배운 뒤 망상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내려놓기(방하착),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기,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자기와의 만남 갖기, 늘 깨어있기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과제로 '빨리'라는 말 사용하지 않기, '나'라는 것을 빼고 말하기, 스스로 느낀 것을 스스로 화두삼아 정진하기 등을 제시합니다.

▲좌선과 행선을 뺀 일상사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십시오.

-수행자는 늘 마음을 시선가는 곳에 두어야(心存目想) 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자각하며 몸의 움직임과 마음의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단지 알아차려 바라볼 뿐 그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식으로 판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선(禪)이 깊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나'라고 하는 느낌이 없어질 겁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평소 스님은 경전 공부로 기초를 다진 후에 참선하라고 당부하시는데요.

-경전을 먼저 공부한 이는 사교입선(捨敎入禪) 해야 하고 선문에 먼저 든 이는 반드시 경전에 입각해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초심자가

여래선 장점 실참에 가미
염불 · 독경 등도 권장

참선문부터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녹용을 먹이는 것 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지요.

▲참선 공부의 요체는 무엇인가요.

-한번은 수덕사 혜암 스님을 찾아 뵙고 공부에 대해 여쭙자, 노장님께서 '공부는 반조(返照) 밖에 없어'라고 하시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조가 과연 무엇일까?' 궁구하다가 참선 수행으로 경지에 이른 수중 스님께 그 방법을 여쭙고 공부의 가닥을 잡게 되었지요. 우리들의 눈 귀 코 입은 밖으로만 향하는 데 비해 반조는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밖의 사물에 끄달리지 않고 내 안을 들여다 보는 회광반조(廻光返照)는 참선수행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잘 다졌을 때 수행은 급진전하기 마련이어서, 모든 상황에서 반조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참선은 공부의 진척 상황을 알기 힘든데, 어떤 점검 방안이 있을까요.

-공부의 경지는 부처님 말씀으로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참선 수행의 결실을 부득이 논하자면 얼마만큼 흔들리지 않고 비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이 뿌리까지 뽑혀져야 공부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을 비웠을 때 온 우주를 담을 만큼 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속 수행과제

- '빨리'라는 말 사용않기
- '나' 빼고 말하기
- 스스로 느낀것 화두삼아 정진하기

▲금강선원에서는 참선 이외에도 염불, 주력, 사경 등도 권장하는 걸로 아는데요.

-염불, 참선, 주력, 사경, 기도, 독경 등 여러 수행방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도리로 통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모두 삼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편이든지 부처될 성품을 지녔다는 것을 확신하고 발심해서 원력이 사무치면 지혜가 생기며, 나아가 용맹정진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좌선의(坐禪儀)'는 어떤 책?

혜거 스님이 펴낸 <참나-좌선의 강의>는 3년전 스님이 다보수련원에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좌선의>를 강의한 내용을 녹취해 정리한 책.

<좌선의>는 송나라 때 운문종의 선사 종색 스님이 펴낸 좌선 지침서. 종색 스님은 하북성 시방홍제선원에 주석하며 옛 <백장청규(百丈淸規)>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10권의 <선원청규>를 편찬했는데 <좌선의>는 이 가운데 제 8권에 수록된 내용이다.

혜거 스님은 선 일반에 대한 설명과 실참법, 조사선과 화두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을 함께 수록하여 좌선에 관한 의의를 쉽게 전달하고 있다. 게다가 스님은 책 후반부에 1700가지에 이르는 공안 가운데 옛부터 제방선원에서 가장 많이 참구되었던 오도기연(悟道機緣 : 선사의 출생과 출가인연, 그리고 스승을 만나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을 통칭)을 가려 뽑아 함께 수록해 참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었다.

봉은사 어린이불교학교를 이끌어 주실 분(지도자)을 모십니다

모집기간
2548년 5월 한달간

모집대상
① 어린이 법회에 신심과 원력이 있는 분
② 포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
③ 어린이 포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 우대

제출서류
① 이력서(사진 첨부-최근 3개월 이내)
② 주민등록 등본,
③ 자기 소개서
④ 어린이법회에 대한 소견서
⑤ 어린이법회 계획안(1년간)

봉은사 파라미타(중 · 고등부)를 이끌어 주실 분(지도자)을 모십니다

모집기간
2548년 5월 한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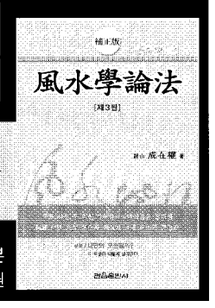
모집대상
① 중 · 고등부 법회에 신심과 원력이 있는 분
② 포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
③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있는분 환영

제출서류
① 이력서(사진 첨부-최근 3개월 이내)
② 주민등록 등본,
③ 주민등록 등본, 자기 소개서
④ 파라미타법회에 대한 소견서
⑤ 파라미타법회 계획안(1년간)

● 문의처 : 봉은사 포교교육실 02)3218-4811~16

도표 사진 등 최신 기획자료 4백여점을 집대성
佩鐵 向法 九星 紫白을 해설한 국내 최초의 결정판

풍수학논법



본서는 불필요한 논리전개과정을 과감히 축소하고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지름길 안내를 시도했다. 내용과 표현방법을 단순화 해 흔한 스타일의 표현은 탈피했다.

부록 / 나만의 모순일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성재권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512페이지 / 정가 25,000원

출간예정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성체질(원초적인 본능=끌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격)까지 나온다.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녹현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48페이지 / 정가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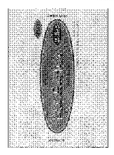
일현스님 지음 양장본 값 20,000원

일현스님의 정설 사주공부

역술인의 완전정복 지침서
"기초부터 전문감정까지 한 권으로 끝낸다!"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이론은 정리하였다.
기초부터 전문이론까지 핵심을 꿰뚫었다.
고전이론을 현대에 맞게 적용시켜 풀이하였다.
10년 공부한 사람도 막히는 격국 용신을 원리적으로 해결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임,천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註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曹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曹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궐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흥가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김봉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28 新 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9,000원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장본/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자각없는 요가수행은 단순 체조"

현장 | 스와미 사티야다르마 초청 요가 지도자 워크샵



스와미 사티야미뜨라 원장의 지도하에 요가니드라 수행에 참여중인 워크샵 참석자들. 사진=강신재 기자



스와미 사티야다르마 교수와 요가의 본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워크샵 참석자들.

국내 요가인구가 100만을 넘어섰다. 요가 특유의 동작(아사나)이나 요가의상 등의 요가용품이 일반에 보편화되면서 요가가 하나의 문화코드로 부각되고 있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수행자나 은둔자에게만 전해지던 요가가 지금 이 시대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도의 요기(yogio · 요가수행자) 스와미 쉬바난다는 일찍이 요가가 기술문명에 멍든 현대인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수행자의 전유

이른 새벽 일어나
꾸준히 수행하면
경험통해 본질 접근

물로 여겨지던 요가를 일반에 끌어내려 현대에 맞게 체계를 재정립했다. 스와미 사티야난다는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그 비전을 확장했으며, 현재 전 세계 곳곳의 요기들이 그 뜻을 공유하고 있다.

그 요기들의 선봉에 서 있는 스와미 사티야다르마(인도 비하르대학) 교수가 내한, 지금-여기에서 요가를 하는 의미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5월 4일 종로구 계동 요가문화원에서 열린 요가지도자 워크샵에서



워크샵 참석자들이 명상에 앞서 몸의 감각을 살피고 있다.

"요가적 삶을 체화하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빗나간 웰빙 열풍으로 요가 자체가 상업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한 듯 "요가는 육체단련을 위한 단순한 운동과는 구별돼야 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 같은 주장의 기저에는 '자각'의 의미가 깔려있다. 그는 자각 없는 요가수행은 기계적인 체조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요가수행자들은 삶의 순간순간에 깨어있어야 하며, 요가지도자의 경우 '자각'이 으뜸의 자질로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순간 몸과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같은 수행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스와미 교수는 주저없이 "요가를 규칙적으로 수행하라"고 답했다. 체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좋은 지식으로도 요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래서 그는 요가를 '경험의 과학'이라 했다. 규칙적인 요가수행을 꾸준히 지속하다보면 경험으로서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적 요가수행은 그가 말하는 '요가적인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스와미 교수는 자칫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

우주 에너지와
자연스레 하나되면
행복의 열쇠 얻어

'요가적 삶'의 개념을 "규칙적인 생활습관"에 초점을 두고 설명했다. 규칙적인 생활이란 특별한 게 아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한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요가수행을 지속하는 일이다. 즉, 가장 깊이 잠들 수 있을 때 자고 가장 맑게 깨어있을 수 있을 때 수행에 매진하라는 말이다. 스와미 교수는 "그 같은 삶의 방식을 통해 우주의 에너지와 자연스레 합일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행복한 삶에 다가가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쉬바난다 요가를 보급하고 있는 스와미 사티야미뜨라(장흥 싸띠아난다 요가센터, www.satyananda.co.kr) 원장은 "요가적 삶 속에서 몸과 마음과 호흡이 일치되는 요가수행을 지속하다보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일문일답

"性에너지 억압하거나 무시해선 안돼"



▲수행보다는 치유나 건강에 초점을 맞춘 테라피 요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건강증진을 위해 요가를 택한 사람도 많이 있다.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 역시 요가지도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다. 그러나 육체적인 평안을 넘어서는 깊은 평화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가지도자의 사명일 것이다.

▲요기들의 규칙적인 삶에 대해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들어 설명해 달라.

-규칙이 일상에 자리잡다 보면 취할 것과 걷어낼 것에 대한 답을 자연스레 얻을 수 있다. 다만, 가장 의식이 맑은 새벽 4~6시경에는 역동적인 수행을 통해 높은 상태의 에너지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소화력이 가장 왕성한 정오 즈음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몸이 이완되어 있는 오후에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요가니드라를 실시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라자요가 등의 명상을 실시해 숙면을 유도한다.

▲요가수행자가 성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가는 풍부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고안된 수행법이다. 성적인 욕망 역시 인간의 중요한 에너지 가운데 하나다. 요가는 성적인 에너지를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그것이 잘못되면 또다른 정신적인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가수행자가 되는 길은 중용을 훈련하는 길이다. 나의 몸과 마음을 매 순간 자각하라. 억압과 과도한 접근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말 것을 다짐하라. 적정한 양의 식사, 수면 등을 생활화하라. 그러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샤론 살즈버그 (上)

"마음챙김은 생활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제아무리 오랜 세월을 무력감 속에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 일단 불을 켜게 되면 그 방이 하루나 한 주일을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든지 아니면 일만 년 동안 내내 어둠 속에 있었든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불을 켰고, 그래서 방안이 환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은 이미 켜진 것입니다."



미국 메사추세츠선원장 샤론 살즈버그(Sharon Salzberg) 법사의 <자비-사랑의 기술(Lovingkindness: The Art of Happiness)>은 명상수행에서 찾는 행복은 바로 유정, 무정물과 나누는 사랑에 있다고 설명한다.

주부수호 성인 디파마의 제자
英·美 오가며 통찰명상 지도

그녀는 이 같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행복한가, 인간적 사회적 위험에서 자유로운가 등의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우리의 호흡과 생각을 계속 관찰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각자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1971년부터 위빠사나와 선(禪) 등 다양한 불교 전통의 수행법을 공부한 샤론 살즈버그 법사는 집중적인 알아차림 명상과 자애관(慈愛觀)의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 통찰명상회(Insight Meditation Society)와 메사추세츠선원의 공동설립자 겸 지도법사인 그녀는 영국 데본에 소재한 가이아 하우스(Gaia House)에서도 통찰명상 수련회를 지도하고 있다.

<믿음(Faith)> <자비-사랑의 기술> <통찰의 음성(Voice of Insight)> 등 명상과 불교에 대한 유명한 저서를 펴낸 그녀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수행지도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살즈버그 법사의 명상 지도법의 특징은 전통 위빠사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자들이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챙김(mindfulness)할 수 있는 수행법을 지도한다는 점이다.

그녀는 마음챙김 수행이 말하기, 다림질하기, 요리, 쇼핑, 아기 돌보기 등 어떤 순간 어떤 활동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 몸과 마음을 관찰하세요."라는 말로 요약된다.

살즈버그 법사가 일상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진가를 발휘하는 통찰명상의 힘에 대해 확신하는 이유는 그녀의 스승 디파마(Dipa Ma Barua: 1911~1980) 법사의 가르침에 기인한다. '주부들의 수호성인(Patron Saint)'으로 불리는 인도의 디파마 법사는 살즈버그를 비롯해 조지프 골드스타인(Joseph Goldstein), 잭 콘필드(Jack Kornfield) 등 미국의 대표적인 위빠사나 수행자들의 스승이기도 하다.

샤론, 잭, 조지프는 1970년대에 디파마 법사의 제자가 되어 인도 캘커타의 작은 아파트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1980년대 초반, 그들은 미국 매사추세츠 바르에 설립한 위빠사나 명상센터에서 두 달간의 수련회를 열어 줄 것을 디파마 법사에게 요청했는데, 여기서 수백명의 미국 수행자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했다고 한다. 특히 살즈버그 법사는 같은 여성으로서 스승의 인격과 독특한 지도방식,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에 매혹되었다.

살즈버그 법사는 스승을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저 단순히 나 자신인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초월적 삶으로 변형시킨 특이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디파마는 바로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언제나 자비심이 넘쳐흐르던 그녀는 가장 고요한 평화를 간직한 분이었죠. 그의 고요함과 깊은 자비심은 어느 수행자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김재경 기자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지베이 천초 자기어비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신수회 회장상)

최봉종 (대전교도소)

나유타 <하>



그림 · 김흥인

새로운 출발…인연의 손길에 감사
제대로 공부해 희망노래 만들고 싶어
16년 옥바라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처음 세종문화회관에 들어서니 내가 이곳에서 노래를 한다는 생각에 너무 감격스러웠다. 하지만 리허설을 하면서 시립국악단과 연합합창단의 노래가 잘 맞지 않아 무척 걱정스러웠다. 꼬박 이틀간 잠을 자지 못해서 목 상태도 너무 좋지 않았다. 두 근대는 가슴과 더해만 가는 걱정에 불안을 누를 길이 없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내 순서가 다가왔을 때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어렵게 음악을 배웠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노래했다. 음악에 몰입될 수록 그동안 어려웠던 준비과정도 잊은 채 오직 노래의 가사와 함께 모든 생각들이 하나가 되는 듯했다.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르게 행사를 끝낸 뒤 쏟아진 많은 사람들의 격려한 마디 한 마디에 16년 교도소 생활의 설움과 외로움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제 내가 가야할 길을 알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라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로소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제 겨우 한발짝 걸음을 옮긴 것이었다.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마치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내가 하나의 일을 하고 나면 두번째의 길이 열리고, 둘을 이루고 나면 세번째의 길이 열린 것 같았다. 힘들고 지칠 때 손을 잡아주시고 바른 길을 일러 주신 부처님과 여러 고마운 분들의 공덕이 있을 뿐이었다. 이런 것을 인연법이라 하든가. 보이지는 않지만 고맙기 그지없는 인연의 손길에 불법(佛法)의 지중함도 뼈저리게 느꼈다.

사실 어려서 나에게는 음악적 소질이 없었고 그것을 키울만한 환경도 아니었다. 다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오직 한번의 기회가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피를 자아내는 고통과 육체적인 통증을 수반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남들이 모두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늦도록 같은 곡을 수백번씩 반복해서 연습했고, 동료들의 숙면에 방해될까봐 소리도 나지 않는 종이 건반을 눌러대야 했다.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만큼 걱정해 주는 사람도 많았다.

나의 음악 실력은 수십 년동안 실력을 쌓아온 대가들에 비하면 미천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정도라도 그 기간 내에 이루어낼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이상은 앞으로의 노력과 여건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오로지 독학으로 공부하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음악에 대한 안목과 실력을 키워온 터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기회가 된다면 음악대학에 입학하여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고, 이를 계기로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 내 가능성은 어디가 끝인지 알고 싶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16년 전의 나처럼,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 또한 이 죄인이 밝은 세상, 귀한 자리에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에도 보답하고 싶다.

끝으로 16년간 못난 자식 위해 옥바라지 하시느라 병과 주름을 얻은 어머니를 생각하니 저미어 오는 가슴을 감당할 수 없어, 어머니의 아픈 가슴 한 켠이라도 낫게 하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어머니!

어머니란 말은 언제 불러봐도 가슴을 울립니다. 어머니, 제가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식당일 하시던 어머니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시어 철창에 매달려 통곡하셨습니다. 그리 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많은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16년 만에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만남을 오래토록 허락하지 않네요. 이곳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시며 언제나 근심 걱정에 눈물로 사시다 병까지 얻으신 어머니. 아버지 없이 아들만 삼형제이다 보니 모두 무뚝뚝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도 해드린 적이 없네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말입니다.

어머니, 어서 건강 찾으세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저는 더 바람이 없습니다. 그래야 이 아들이 어머니 소원처럼 밝은 세상에서 부처님의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리지요. 제가 이곳에서 가장 바라는 그것이 어머니 건강이란 걸 아시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상>



이종린
홍익소아과 원장

불혹 나이에 다시 발심 "아상 버리자"
금강경 · 보현행원품 읽으며 '환희심'

대학생 시절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불교를 알게 된 지 햇수로 22년. 남들 하듯 법회도 나가고 좌선한다며 단전에 힘 주고 앉아도 보고, 염불도 진언도 독경도 해 보았지만 어디까지나 흉내였을 뿐 나의 수행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니 어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헤쳐나갈 힘이 길러질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내 곁에 오시는가. 불혹의 나이에 한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던 1994년 여름, 자나 깨나 그리워하던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했다. 화두를 못 깨쳐 몇 아승지겁을 중생으로 떠돌더라도 오로지 부처님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것은 유위법이라 덧없고 허망하며 허물어지고 영원하지 못하지만 우리 부처님이야 시공을 뛰어넘어 늘 존재하고 옆에 계신 분 아니신가. 그리워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부처님께 항복하고 그리움이 일 때마다 불러도 다함없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을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록의 싱그러움과 함께 눈을 뜨고 바라보니 그리운 이는 어느 한 곳에만 있지 않았다. <금강경>에서 그렇게 형상으로만 부처를 찾지 말라 하셨건만 불어오는 봄바람, 귓가에 스치는 장미꽃 향기가 다 님의 얼굴이요, 님의 소리 아닌 것이 없지 않은가. 한량없는 부처님께 그리움을 공양드리던 어느 날 문득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광수공양원(廣修供養願)이 생각났다. "선남자야,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 잘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며,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 받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이 법공양 일곱 가지는 큰 가르침을 주었다. 형상을 떠나 우리의 본성을 밝히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법공양이요,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법공양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부처님의 공양구 아닌 것이 없었다.

<금강경>을 읽을 때도 '보현행원품'을 읽을 때도 '부처님, 제가 읽는 이 경 소리가 시방세계 일체 중생들의 가슴에 스며들어 이 깊은 뜻 이해하고 모든 중생들이 크게 기뻐하여 보리심 일으키길 기원드립니다.' 하며 원(願)부터 공양드린 후 일정한 시간에 매일 쉬지 않고 일과수행을 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뜻도 모르던 <금강경> 문구들이 하나 둘씩 와 닿기 시작했다. '행원품'도 마찬가지였다. 광수공양만 알았는데 예경제불, 칭찬여래, 참회업장 등도 어느 사이엔가 조금씩 와 닿더니 마음을 서서히 밝혀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가슴에 환희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이들이 부처님으로 보였다. 주위에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점점 없어지며 번뇌가 줄어들었다. 모든 이들이 선지식으로 다가오고, 그 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수행법들이 점점 쉬워지는 것이었다.

행원은 부수적으로 여러 공덕을 안겨 주었다. 마음의 안정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마음의 안정이 저절로 왔다. 아상(我相)을 없애려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일체 중생을 칭찬하고 공경하며 만나는 이마다 섬기고 공양하는 보현행은 찾지도 않았고 뵌 적도 없는 무수한 반가운 분들을 그렇게 모셔 오고 있었다. 행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밀려오는 깨달음이 한도 끝도 없었다. (계속)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다양한 연등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을 밝힙시다



만월등 ▶ 사이즈 : 32cm X 32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가), 오색등



공단등(비단등,실크등) ▶ 지 름 : 23Cm(大)18cm(中)15cm(小) ▶ 색 상 : 황금, 연분홍, 진분홍, 빨강, 흰색(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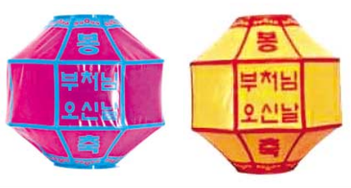
종 등 ▶ 사이즈 : 40cm X 27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팔각조립등 ▶ 사이즈 : 높이26cm 폭28cm 입구11cm ▶ 색 상 : 핑크, 봉축노랑,오렌지,성도일 노랑, 봉축빨강 등



비단팔모접등 ▶ 사이즈 : 높이28cm 폭24cm 입구11cm ▶ 색 상 : 연분홍, 노랑, 연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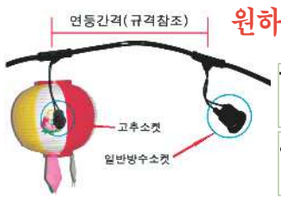


비닐팔모접등 ▶ 사이즈 : 높이28cm폭 24cm입구11cm ▶ 색 상 : 핑크, 노랑, 연녹, 파랑



팔모조립등 ▶ 사이즈 : 26cm X 26cm ▶ 색 상 : 핑크, 오렌지, 연두, 파랑

연등용 전선케이블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 특 징 : 안전검사를 완료한 전선(KS인증) 100%사용
연등전선구입시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전선인지 확인하십시요.

▶ 등간격 : 1M, 2M, 3M, 4M, 5M ※기타 규격 별도 주문
연등의 간격은 등1개당 간격을 말합니다.



마하몰에서 빠르고 편하게 연등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주문 전화 : 02)732-1520

주장자따라…

⑲ 달라이 라마의 '윤회론'

조태호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 종파인 겔루크파의 법왕이다. 현재 다람살라 망명정부를 이끄는 14대 달라이 라마는 텐진 가쵸.

네티즌 교리문답

'∴'의 명칭과 의미는?

문 사찰의 벽에 간혹 점셋(∴)의 표시가 있는데 무슨 의미 인가요? (ID '학생')

답1 : 솥의 세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계정혜(戒定慧) 삼학을 말하기도 하지요. 탐진치(貪瞋痴) 삼독심을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요, 궁극적으로는 마음 심(心)으로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ID '心')

답2 : 이것은 탄허 스님의 논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西域의 圓伊字三点', 이것은 '종(縱) 횡(橫) 병(幷) 별(別)을 也(또) 難分(나누기 어려움)'이라 하여 우리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즉 도(道)는 종도 아니요 횡도 아니요 3점이 붙은 병(幷)도 아니요 3점이 떨어져 있는 별(別)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냐? 곧 언어도단(言語道斷)하고 심행처멸(心行處滅)이라는 도체(道體)를 그려 보인 것이다. (ID '조조')

답3 :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자삼점(伊字三點) 문은 점 세개가 삼각형을 이루며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를 상징한다. 이 문양은 만(卍)자와 더불어 불교를 상징하며 일즉삼(一卽三), 불일불이(不一不二), 비전비후(非前非後) 등의 뜻을 담기도 한다. (ID '서울시민')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㊸



교외별전(敎外別傳)- 3

선사들의 어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선의 문헌에서, 또 지금 살아있는 선사들의 설법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다. 앞의 글에서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心爲萬法之根本)이라고 한 <마조록(馬祖錄)>의 한 대목을 인용했듯이, 선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곧 만법의 근본으로서의 마음을 가리킨다.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라는 얘기를 선종에서 처음 한 것은 아니다. <화엄경(華嚴經)>에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 뿐'(一切唯心造)이라 하고 또한 '이 세상은 허망하며 다만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 뿐'(三界虛妄但是心作)이라고 한 것이나, <대승기신론>에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것이 생기고 마음이 스러지면 모든 것이 다 스러진다'(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고 한 것도 다 같은 취지이다.

마음은 우주 만법의 근본

'법'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그런 얘기들이 왜 다 같은 취지인가를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잠깐 법(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풀이하고 얘기를 이어야 하겠다. 법이라고 하면 우선 연상되는 것이 헌법, 민법, 형법, 국제법 등등일 터이고, 나아가 자연법칙이라든가 인간사의 이치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그런데 불교에서 사용하는 법이라는 개념은 인도 말 다르마(dharma)를 번역한 말이어서 좀 독특한 뜻을 담고 있다. 다르마라는 말은 워낙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불교에서 그 말을 중요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말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몇 가지 중요한 뜻을 짚어보자면, 다르마는 우선 올바른 행위를 뜻한다. 인도의 유명한 옛 서사시 <마하바라타>라든가 <라마야나> 같은 데에서는 대개 그런 뜻으로 쓰이는 예가 많다. 여기에서 올바른 행위란 각 존재가 해야 할 일, 의무를 제대로 행하는 것을 뜻한다. 다르마는 또한 가르침을 뜻한다. 불교의 삼보(三寶) 중에 법보(法寶)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런 용례이다. 그래서 삼귀의례(三歸儀禮)의 두 번째를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라고 번역한 것이다. 그 뜻의 연장선상에서 다르마는 또한 불교의 경전을 가리키는 뜻도 가진다. 그리고 다르마의 또 하나 중요한 뜻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킨다. 불법(佛法)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되고 부처님이 깨닫고 가르친 진리라는 뜻도 되는 것이다. 다르마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또 한편으로 온갖 개별적인 존재와 현상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삼법인(三法印) 중에 제법무아(諸法無我)라 하면 모든 것이 무아라는 뜻인 것이 그 한 예이다.

다르마의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두고, 그저 우연히 그런 서로 다른 뜻이 하나의 말에 가서 붙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서로 연관되어 다르마, 즉 법이라는 말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구성한다. 성인의 가르침은 궁극적인 진리에 관한 것이고, 궁극적인 진리는 세상의 모든 개별적인 존재와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며, 각각의 존재는 그 진리에 입각해서 제 할 바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 거기에 한꺼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이 그런 뜻인데, 마음이 곧 만법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또 과연 무슨 뜻인가?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9>

미륵보살의 법문(1)

미륵보살 출현은 대자비의 본질 강조

보리심 갖고 정진하면 한 생애에 성불

선재동자가 미륵보살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내용은 매우 길어서 <입법계품>의 사분의 일이나 되는 분량이다. 바로 앞의 선지식인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는 '환술처럼 머무름(幻住)'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 법문을 설하고 나서, 남쪽 해안(海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장엄 동산이 있고, 그 안에 비로자나장엄장(毘盧遮那莊嚴藏)이라는 광대한 누각이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에 미륵보살마하살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으라고 선재동자에게 권했다.

미륵보살은 보살의 수행을 거의 다 완성해 다음 생에는 이 세상에 오셔서 부처가 될 일생보처(一生補處)보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방문만을 남겨두고 있는 선재동자 구법여행의 종반부의 선지식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륵은 범어 '마이트레야(Mitreya)'를 음역한 것으로서 그 의미는 '자비롭다'이다. 그러므로 중국어 이름으로 '자씨(慈化)'라 한다. 이것은 미륵보살이 자비로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가 사는 나라의 이름이 해안(海岸)인 것은 이미 부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서 생사의 바다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머무르고 있는 동산의 이름이 '커다란 동산(大莊嚴)'인 것은 보살 만행(萬行)을 통해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덕을 이미 다 갖춘 것을 나타낸다. 그 동산 속에 있는 광대한 누각의 이름이 비로자나장엄장인 것은 한량없는 지혜가 밝게 빛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지혜로써 모든 만행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는 이러한 장엄은 "보살의 선근의 과보와 서원력(誓願力)과 교묘한 방편으로 생긴 것으로서, 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대비심으로써 중생을 위하여 이러한 경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장엄을 모으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선지식으로서 미륵보살을 들고 있는 것이다.

부사의해탈과 대비심은 바로 입법계품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근본사상이다. 여기에서 미륵보살이 선지식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선지식의 여러 가지 해탈 법문을 집결함과 동시에 보살행이 궁극적으로 대자비를 본질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최초의 문수보살에 의해 부사의해탈의 문이 열린 이대로 문수보살의 지혜가 보살행을 수행케 해서 마침내 미륵보살의 대비(大悲)를 일으키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륵보살의 출현에 의해서 선지식 사상은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다.

선재동자는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로부터 미륵보살을 찾아가라는 가르침을 듣고 해안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비로자나장엄장 누각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깊고 광대한 신해심(信解心)을 일으키는 것이다. 선재동자는 이 누각의 훌륭한 장엄을 관함으로써 그곳에 머무는 미륵보살을 비롯한 보살들의 공덕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깊이 느끼고 그것을 찬양하는 장편의 게송을 읊으면서 일심으로 미륵보살을 뵙고 공양하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미륵보살은 누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둘러싸여서 누각 밖의 다른 곳에서 오고 있었다. 선재동자를 살펴본 미륵보살은 대중에게 그의 덕을 찬탄하는 게송을 설하고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착하도다. 참된 불자여, 감관을 잘 다스려서 게으르지 않으니 오래지 않아서 모든 공덕을 구족하여 나의 몸이나 문수보살과 같이 될 것이다"라며 그를 격려했다. 이때 선재동자가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설해주기를 청하자, 미륵보살은 먼저 도량에 모인 대중들에게 선재동자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장자의 아들은 지난날 복성(福城)에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점점 남쪽으로 오면서 선지식을 찾았고 백 열 선지식을 만난 뒤에 내게 왔는데 잠깐도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았다. …보리심을 내고 쉬지 아니했고, 대승의 길을 구하며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 어지신 이들이여, 다른 보살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을 지내고야 비로소 보살의 원과 행을 만족케 하며 능히 부처님의 보리에 친근하는 것이거늘 이 장자의 아들은 한평생 동안에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로써 법계에 깊이 들어가고 모든 바라밀다를 성취하고 모든 행을 능히 넓히고 모든 큰 서원을 원만케 하고 모든 마의 업에서 뛰어나고 모든 선지식을 섬기고 모든 보살의 도를 청정히 하고 보현의 모든 행을 구족하였다."

미륵보살의 이 법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보리심을 발하여 한결같이 정진하면 한 생애(一生)에서 불도를 성취한다고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무량겁을 수행하여 보살행을 완성하여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한 생애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주목할만한 법문이라 할 수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30면에

가로

1. 부처나 보살에게 음식물이나 꽃 따위를 바치는 일 5. 원망의 소리 7. 보리심을 일으켜 공덕을 세운다는 뜻 8.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기세가 대단함 9. <경덕전등록>의 준말 11.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자리 13.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언어로 기록한 것 14. 국가 15. 잠이 오거나 자고 싶은 느낌 16. 솔방울이 맺히는 나무 19. 비석, 탑 따위의 바닥이 되는 단을 이루는 돌 21.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 23. 한 집 한 집 24. 높고 큰 벼슬 자리, 또는 그 벼슬아치 26.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 표시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 27.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세로

1. 지구 대기의 하층 부분을 이루고 있는 무색 · 투명한 기체 2. 양심에 걸리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맞게 사실을 말하는 것 3. 직지사에서 건립한 국내 최대의 전각 4. 속기로 적은 내용을 보통 글자로 옮겨 적은 기록 5. 원만하게 이루어짐 6. 생물이 자라남 10. 기름을 담아 등불을 켜게 만든 기구 13. 녹음하는 기계 17. 나무의 가지 18. 힘차고 씩씩하게 뻗어 나아감 20. 한 가지 계통의 학부로만 구성된 대학 21.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스님 22. 어떤 일을 하라고 권하는 공식적인 말 또는 문서 23. 남에게 손해를 끼침 25. 남을 업신여겨 홀대해서 이르는 말.





인류를 살리는 삶의 철학 '채식'



베지테리안, 세상을 들다
쯔루다 시즈카 지음 | 손성애 옮김
모색 펴냄 | 1만1천원

철학 · 수학 · 문학 · 음악 등에서 세계를 움직인 위인들 중 '베지테리안'들이 많다. 사진 맨 위 좌로부터 헨리데이비드 소로, 피타고라스, 플라톤, 존레논, 루소, 톨스토이, 애니베전트, 간디, 바그너.



부조리 · 불평등의 기원
육식위주 식습관에서 찾아
베지테리안의 본래 의미는
'~에게 생명을 주다'

잉태한 암컷이 죽으면서 수많은 자손까지 함께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알을 밴 채 잡혀 식탁위에 오른 물고기다. '웬 수수께끼'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평생을 베지테리안(Vegetarian)으로 살았던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궁정 호위병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낸 문제다. 베지테리안? 흔히 '채식주의자'라고 쉽게 번역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베지테리안' 이란 단어의 어원은 뜻밖에도 채소를 말하는 베지터블(vegetable)이 아니라 '~에게 생명을 주다' 또는 '활기차게 ~하다'는 라틴어 'vegetus'이다. 1842년 이 단어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 졌을 때 그 원래의 뜻은 '건강하고 생기 넘치며 힘센 사람'이었다.



그래서 베지테리안에 담긴 본래 의미는 인간의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동 · 식물에 대한 사랑,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의 평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좀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채식주의자란 말 대신 굳이 '베지테리안'이란 원어를 책 속에서 고집하고 있다.

저자의 해석대로 베지테리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 육식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현대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원시사회에서 사냥으로 고기를 얻은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남녀 불평등은 출발했다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이 먹을 고기를 얻기 위해 10여명의 식량을 사료로 사용하는 사이에 지구 저편에서는 수만명이 굶어죽는 가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채식문화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저자는 "1파운드(450 g)의 식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에게 16파운드, 돼지에게 6파운드, 닭에게 3파운드의 콩과 곡식을 먹여야 한다. 하지만 1에이커의 땅에 곡식을 재배하면 고기 양의 5배나 되는 단백질을 산출할 수 있으며, 콩류를 재배하면 10배, 야채는 15배, 시금치는 무려 쇠고기의 26배나 되는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며 채식이 육식에 비해 더 나은 영양분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자칫 뻔한 수치와 이론만으로 책을 끝마친다면 채식에 대한 설득력이 식상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육식의 시대에도 베지테리안으로 살다 간 22인을 등장시킨다. 피타고라스, 톨스토이, 장자크 루소,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간디, 히틀러 등 역사속 인물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채식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나도 한번 채식주의자가 되어 볼까' 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

피타고라스는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한 뒤 신에게 100마리의 소 대신에 밀가루와 꿀을 섞어 소의 형상을 빚은 케이크를 바쳤다. 톨스토이는 고기를 가리켜 '시체'라고 불렀을 정도로 59세부터 육식을 철저히 포기했다. 마하트마 간디도 힌두교의 계율에 따라 때어날 때부터 채식을 했으며, 남녀 평등을 주장한 영국의 문학가 버나드 쇼도 25살 때부터 채식을 했다.

인류역사에서 가장 열렬한 채식주의자이자 동물애호가를 꼽는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저자는 아돌프 히틀러를 지목한다. 히틀러는 술과 담배를 즐기지 않았고, 만찬을 베풀 때 손님들에게 육류를 내놓더라도 자신은 그것들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다소 비약된 논리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소개되는 위인들이 채식을 통해 삶과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무턱대고 맛나는 음식만 찾아 게걸스럽게 먹기 보다는 음식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갖고 올바른 식사가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하게 만드는게 바로 이 책의 강점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현의 노래
김훈 지음 | 생각의 나무 펴냄 | 9천5백원

<가의 노래>로 '한국 문학에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이라는 찬사를 받은 작가 김 훈의 신작 장편으로 가야금의 예인(藝人) 우륵과 그의 시대를 그린 소설이다. 작가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우륵의 생애를 역사적 상상력의 극한으로 밀어붙여 소설화 시켰다. 악곡을 짓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바꾸어 음악을 연주한 한 가인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그 시대가 가야금 줄을 튕기듯 한껏 긴장되고도 울림이 큰 언어로 다가온다.

가야국 가실왕의 명에 의해 우륵은 가얏고를 위한 악곡 12곡을 짓는다. 그 중 9곡은 가실왕의 뜻에 따라 그 지방의 독특한 정서가 드러나도록 만든 곡. 그러나 대가야는 망하고 우륵은 다시 신라에 몸을 맡기게 된다. 신라 진흥왕은 지금의 충주에 특별히 거처를 마련해주고 세 사람을 보내 우륵의 음악을 전수케 한다는 이 간략한 역사적 줄거리에 의해 이야기는 시작된다. 작가는 꼼꼼한 사료조사와 역사적 상상력을 보태 왕과 장수, 대장장이와 궁녀, 관리와 범부 등을 불러내어 기원전 500년의 세간의 욕망을 그려냈다.

파란만장한 우륵의 삶과 욕망

특히 이 책은 군인과 예술가를 대조시킨다. 야로는 군인으로서의 길을 가고, 담징은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는다. 우륵은 비겁하더라도 우선 목숨을 부지하려 한다. 망명인으로서 적국에 들어가 마음을 감추며 가야와 신라를 떠돈다. 우륵은 현을 통해 삶을 배웠다.

가야금 소리에 높아짐과 낮아짐이 있고, 울림과 잦아짐이 있듯이 인생도 그러한 것이란 걸 우륵은 깨달았다. 살아있는 소리라야지, 울림이 끝난 소리는 의미가 없음을 알기에 우륵은 가야금만 타며 평생을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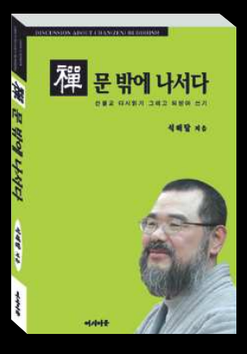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시대를 살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화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야로처럼 살것인가, 아니면 담징이나 우륵처럼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혀 몇일 씩 책장을 넘기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보아오던 김훈의 문체와는 사뭇 다른 빛깔과 풍성한 맛이 베어있어서 인지 책을 덮은 뒤의 여운이 사뭇 강하다.

■정복교(영서대 국문과 강사)

티벳 佛敎 성지순례
카일라쉬(수미산) 대탐사 24일 / 345만원
■ 5월 25일 - 출발 확정, 6월 23일, 7월 27일, 8월 3일
인천/성도-라사-장체-사가체-라체-사가-피망-다르첸-카일라스코라-구계왕국-마나사로버호수-피망-사가-라체-에베레스트BC-텅그라-니얼람-카트만두-방콕/인천
패키지 상품
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89만원
티벳/네팔 문화탐방 11일
▸ 5/27, 6/3, 6/17, 7/15 ▸ 260만원
단체 배낭 상품
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43만원
환상의 우정공로를 횡단하는 티벳/네팔 12일
▸ 5/21, 6/18, 7/23, 7/30 ▸ 173만원
티벳/네팔/인도 23일
▸ 6/20, 7/4, 7/29 ▸ 239만원
티벳 전문 혜초여행사(주) (02)733-3900 / www.hyecho.com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이 「선,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패치워크)처럼…
- 본문 중에서

신국판 / 456면 / 14,000원 / 석해탈 저 / 여시아문

「금강경」 해설의 3대 법사는 해안 스님, 백성욱 박사, 석해탈 스님, 이 세 분이 꼽힌다.
– 현대불교신문 2544년 6월 21일자 275호 지묵 스님의 글에서 –

禪
문밖에 나서다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Tel : (02)737-8881(代) / Fax : (02)737-0696

“석가모니도 태어날때부터 부처님은 아니었죠”

‘부처님의…’ 펴낸 한진흥업 한갑진 회장



불서 법보시 운동에 앞장 서 온 원로 영화인 한진흥업 한갑진(81 · 사진) 회장이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펴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신화적 존재나 절대자의 모습이 아닌, 역사적 인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살핌으로써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자는 것이다.

“생활하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빛은 곧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참모습을 봄으로써 깨달음의 길을 향하는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이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한 회장은 책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좇고 있다.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한 회장은 부처님을 초인(超人)이나 신으로 묘사한 경전 대신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함경> 속에서 그 참모습을 찾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구도와 정진 끝에 스스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무조건적인 기도나 영험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참 가르침을 알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제신문사 정치부장을 역임한 그는 1966년 대양영화주식회사를, 70년 한진흥업을 설립해 영화 ‘팔만대장경’과 ‘김의 전쟁’ 등을 제작하고 ‘로키’ ‘백야’ ‘스팅’ 등의 외화를 수입해 거듭 흥행에 성공하면서 ‘영화계의 대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던 72년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 <반야심경>을 독송해주며 불교에 빠지게 된 그는 이후 불교서적 법보시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국내 불교서적뿐 아니라 영화 일로 외국 출장을 갈 때마다 불교관련 책을 구해 읽었고 <알기 쉬운 불교>(80), <알기 쉬운 불경집>(81), <인도와 불교>(85), <새천년을 헤쳐갈 불교>(2000) 등 수 십 권의 책을 펴내 전국의 사찰과 신행단체에 보시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베풂, 즉 보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불자들의 가장 큰 보시는 물론 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이지만, 그 길로 이끌어 주는 법보시도 그에 못지 않은 수승한 베풂이 아닐까요?” **여수령 기자**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한갑진 지음
한진출판사 | 1만원

초기 경전 이해의 나침반

‘청정도론’ 국내 첫 번역 … 5월18일 송현클럽서 출간 기념 강연회도



상좌부(남방)불교 이해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청정도론(위숫디막가, Visuddhimagga)>의 팔리어 원문이 국내 최초로 번역되어 나왔다.

<청정도론>은 부처님의 직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장(經藏)인 4부 니까야(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쌍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에 대한 주석서다. 425년 경 인도출신의 붓다고사(Buddhaghosa) 스님이 편찬한 이 책은 방대한 불교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가르침이나 문장들을 계 · 정 · 혜의 주제 하에 일목요연하게 해설하여 초기불교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이처럼 <청정도론>이 초기 경전 해설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장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번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기불전연구원장 대림 스님이 번역 출간한 <청정도론>에서는 600여 쪽이 넘는 원문에 1천여 개에 달하는 상세한 주석을 달아 이해를 돕고 있다. 100쪽에 이르는 해제에서는 <청정도론>의 성립 배경과 의의, 상좌부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성격 등을 설명한다. 또한 1956년 발간되어 <청정도론>에 대한 최고의 번역서로 인정받고 있는 냐나 몰리 스님의 영역본인 <The Path of Purification>에서 잘못 옮겼거나 애매한 부분 90여 군데를 지적하고 바로 잡



대림 스님. 사진=고영배 기자

팔리어 원문…3권으로 완역
원문 600쪽 주석 1000여개 상세히 달아 이해 도와

음으로써 좀 더 부처님의 원음(原音)에 가까이 다가서려 노력했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발간사에서 “<청정도론>은 팔리 삼장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둣돌입니다. <청정도론>에는 팔리 삼장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와 술어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팔리어 사전에 등장하는 단어가 대략 1만3천개 정도인데 <청정도론>에 등장하는 단어만도 약 1만1천여 개에 달한다”며 “본원에서는 <청정도론> 발간을 계기로 대부분의 팔리 어휘와 술어를 통일하게 됐으며 조만간 이를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책을 번역한 대림 스님은 인도 뿌나대학 산스크리트어과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청정도론>의 주석서인 <빠라맛타 만주사>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년 전 ‘팔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설립취지로 초기불전연구원을 개원하고 초기불경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대림 스님은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으로 불교학자와 수행자, 위빠사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을 꼽는다. 초기경전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청정도론>은 부처님 법을 정확히 해설하려는 아비담마와 실제 수행체계인 위빠사나를 이어주는 수행 지침서입니다. 남방에서 아비담마를 중시하는 이유는 아비담마가 위빠사나 수행의 근본 골격을 이루는 완벽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남방의 스님들은 아비담마가 위빠사나요, 위빠사나가 곧 아비담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이 지난 2002년 출간한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아비담마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교학의 지침서라면 <청정도론>은 아비담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심도 깊게 밝히고 있는 수행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초기불전연구원은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송현클럽에서 출간기념 법회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각묵 스님이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을 주제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수행과 명상에 대한 관심을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붓다고사 스님 지음,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전 3권, 각권 3만원. (02)391-8579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무산선림 회원들의 ‘수행일기’ 엿보기



공짜입니다
무산선림 지음
무산본각 엮음
바보새 | 9천원

“선생님, 수강료는 얼마입니까?”

“공짜입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공부를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보물이기에 수강료는 누구에게나 공짜입니다.”

전남 목포에 자리 잡은 무산선림(無山禪林).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짜로’ 전하기 위해 문을 연 무산선림은 강의를 위한 특별한 장소나 사찰도 없다. 하지만 이곳에는 교사, 주부, 정신과 전문의, 아동미술가,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22명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무산선림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이용현 씨. (주)선경의 테헤란 지사장과 주 이란 한국상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이란 ·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해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이번에 펴낸 <공짜입니다>는 무산선림 회원들의 ‘수행일기’를 모은 책이다. 직업과 연령 심지어 종교까지 각양각색인 회원들이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된 인연과 서울과 광주, 울산 등에서 야간열차와 심야버스를 타고 무산선림을 찾은 사연, 수행을 하고 난 뒤의 변화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새로나온 책



■ **<지장경><관음경><불유교경>**(무비 스님 · 조현춘 공역, 운주사, 각 7천원, 5천5백원, 6천원)=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한 무비 스님과 경북대 심리학과 조현춘 교수가 함께 우리말로 옮기는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경전’ 시리즈. 책 마지막 장에는 ‘용어해설’ 코너를 두어 경전 이해에 도움을 준다.

■ **<엽서로 그린 그 진한 사랑>**(신경림 외 지음, 옹기장이, 9천8백원)=신경림 시인과 소설가 조정래, 역사학자 이이화, 만화가 박재동, 철학자 윤구병 씨 등 열두 명의 ‘자녀’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과 사랑과 꿈을 잔잔한 글로 풀어내고 있다. 세밀화가인 이태수 씨의 꽃 그림이 담겨 있어 글맛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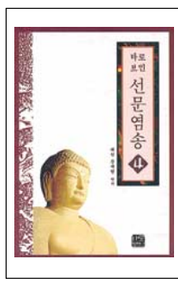
‘한국의 책 100’ 번역자 선정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강숙) 산하 번역출판본부(본부장 진형준 · 한국문학번역원장)는 도서전에 전시될 ‘한국의 책 100’의 번역자를 지난 4월 28일 최종 선정 · 발표했다.

불교 관련 서적 중 <선가귀감>(영어)은 현각 스님이, <한국선시>(영어)는 김원중 씨가, <지눌의 선사상>(독어)은 황보정미 씨가, <석불, 돌에 새긴 정토의 꿈>(서반아어)은 서정희 씨가, (불어)는 김수희 씨가, <백제금동대향로>는 김용권 씨가 각각 번역하게 된다. (02)732-1442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문의 : (02)737-0695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2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 림
3	묻지 않는 질문	현응 스님	민 족 사
4	무문관강송	김 광 하	운 주 사
5	생활수행이야기	법상 스님	불 광
6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틱 낫 한	장 경 각
7	선 문밖에 나서다	해탈 스님	여 시 아 문
8	불교의 이해와 신행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9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 경 각
10	365일 부처님말씀	윤 청 광	동 숭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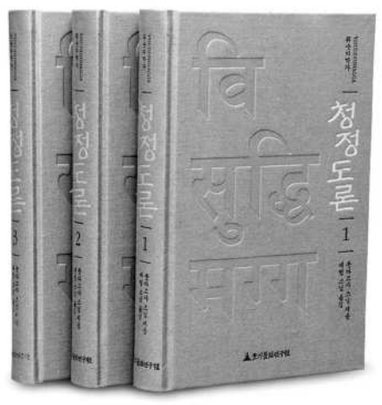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4권 출간 〉
『선문염송』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본 공안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법문과 송이 딸려 있다. 역저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는 선문염송 매 칙마다 도움말과 송으로 취모검을 휘둘러 법문의 참 의중이 숨어있는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 www.zenparadise.com
☎ 02-597-2460 도서출판

〈청정도론〉 완역 봉헌법회 및

각묵스님 특강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

〈청정도론〉



빠알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근본 취지로 설립된 ‘초기불전연구원’이 개원한지 1년 6개월 여 만에 빠알리 삼장의 나침반격인 <청정도론>을 완역하여 上中下 세 권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역경불사를 위한 토대가 제대로 다져졌다고 자평하면서, <청정도론> 완역 봉헌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또한 이날 법회장에서는 각묵스님의 특강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을 마련해, 최근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수행과 명상에 대한 열기에 이론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스러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뜻깊은 봉헌법회와 특강에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축하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8년 5월
<청정도론> 완역 봉헌법회 추진위원회
황경환.임수희.오성식.이완기.김중복

■ **주 최 :** 초기불전연구원
■ **후 원 :** 불교방송, 불교TV, 대한불교, 법보신문, 불교신문, 주간불교,현대불교
■ **협 찬 :** (주)진양유조선
■ **일 시 :** 불기 2548(서기 2004)년 5월18일(화요일) 오후2시
■ **장 소 :** 한국일보사내 송현클럽 대강당(12층)

청 정 도 론

초기불전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1동 311-6번지 수미정사내
전화 : (02)391-8579
홈페이지 : cafe.daum.net/chobul

1부(오후2:00~3:30 / 송현클럽 대강당)
■ **특강**(오후2:00~3:00)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
<각묵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 **질의 응답**(오후3:00~3:20)

2부(오후3:30~4:00 / 다과회장)
■ **봉헌법회**
· 삼귀의
· 반야심경
· 인사말씀
<대림스님:청정도론 번역자>
· 격려사
· 축사
· 축하 케이크 절단
· 사홍서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⑪

주제 : 禪-스스로 만드는 행복

지금 깨어있음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속에 있는 행복을 스스로 찾아 쓰라"고 법문하시는 도현 스님. 스님은 지금 이순간 하고 있는 일에서부터 정성을 다하라고 주문한다.

지상 백고좌

도현 스님
(쌍계사 금당선원 선덕)

약인정좌일수유(若人靜坐一須臾)하면
승조항사칠보탑(勝造恒沙七寶塔)이니라.
보탑필경화위진(寶塔必景化爲塵)이나
일념정심정정각(一念淨心成正覺)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고요히 앉아 잠시라도 일념에 들면
그 공덕이 항하사 모래수의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 크다.
보탑은 반드시 쇠락하여 무너지고 흩어져 흔적이 사라지지만
한 생각 맑은 마음은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기 때문이니라.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물질과 정신적 가치입니다. 이 게송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고뇌하고 휘둘리게 됩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 미리미리 정신적 부(富)를 쌓아 두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간화선 위기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은 내 · 외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10여 년 전부터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봐타 마음수련, 요가명상 등 불교 유사수행법이 전래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화선 풍토의 우리 선(禪)이 상대적으로 비교됨에 따라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됐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간화선 전통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 문제를 우리 간화선 풍토 안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재가불자가 '일생생활 속에서 선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가불자 선수행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화선 풍토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물론 선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선 그 자체는 흥할 것도 없고 쇠할 것도 없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간화선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간화선 풍토의 내적 ·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5월2일 조계사 대웅전 안에서 도현 스님의 법문을 듣고있는 재가불자들.

첫번째 문제점은 조실 스님들의 역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조실 스님은 조계종의 선풍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배로 비유하면 선장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조실 스님들께서 하시는 역할이 많아졌습니다. 법문이다, 불사다, 행사참석이다 해서 밖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안거 중에도 조실 스님 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문이나 공부점검도 원하는 때 듣고 묻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간화선 풍토에서는 법에 관해 묻는 일은 오직 조실 스님께서 전담하시는 일이라 초학자(初學者)가 공부 길을 물어가며 바로 가는 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작은 일같지만 사실은 선원의 분위기나 선객들의 의식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히 청을 들인다면, 조실 스님께서 밖에 나가서 하시는 법문은 법사 스님들에게 맡기고, 불사는 주지 스님들이 주관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좌들에게 정성을 더 기울여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래야 간화선 풍토가 새로워진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계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불교는 계정혜(戒定慧) 삼학을 근본으로 합니다. 정혜를 아무리 잘 닦아도 행동과 사는 모습, 마음 쓰는 데서, 계행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셋째, 간화선 전통의 한문투 설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세대가 계송위주의 큰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가불자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수백전의 그 시대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의심을 유발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넷째는 선수행자의 구도자세가 느슨한 점입니다. 지금 선방이 양적으로는 팽창해 있으나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법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는 구도열은 옅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행 자체를 즐기며 공부하는 방법이 모색돼 좌선 일변도 수행풍토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그간 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선학에 관심 있는 교수들을 초빙해서 지도급에 있는 스님들이 함께 간화선 지침서를 만드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수좌 스님들이 실참실구를 중시하다보니 선학자를 약간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에도 이론물리학자가 있고 실험물리학자가 있듯이 선학자들이 발표한 이론이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수행자가 그런 점을 자기 수행에 적용해 보는 것도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섯째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도래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간화선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수행법에 솔깃해하니 간화선 수행방법 풍토에서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간화선 수행자는 이 같은 불교유사수행법을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위빠사나를 직시하고 그 원리를 잘 알아 화두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불자들이 진지하게 정법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간화선 발전을 저해하는 한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일도 골치가 아픈데 새삼스럽게 어려운 불교를 할 게 있나. 마음이 시끌할 때 절에 가서 마음이나 좀 쉬다오면 되지' 하는 안이한 생각과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재가불자들이 정법을 알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고 봅니다.

간화선 풍토의 문제점

- 조실 스님, 수좌들 공부 점검 미흡
- 계율에 대한 관심 소홀
- 한문투 설법
- 수행자의 느긋한 구도자세
- 선 연구자 역할 홀대
- 다양한 수행법 봇물
- 정법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많은 불자들

현재 붙들고 있는 일에 최선 다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5월2일-조계사 대웅전)

선은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춰진 행복을 찾아쓰는 조건없는 방법

'깨닫는다 성불한다' 생각조차 덜어내야

그럼, '선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연기의 세계입니다. 한 개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는 많은 관계가 얽힌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특별하게 구속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지도 편안하지도 못합니다. 선은 이러한 현대인의 상황을 얽매임에서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법회 주제를 '선-스스로 만드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수행을 통해서 이미 우리 속에 있는 행복을 스스로 찾아 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순간을 알 수 없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삶의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자신을 살피는 선을 일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살며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선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춰진 행복을 찾아 쓰는 조건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간단히 화두만 드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두를 드는 집중력과 지속력에 의해서 번뇌 망상의 구름이 사라지면 곧바로 맑은 기쁨이 드러나고 행복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은 화두를 들고 공부함으로써 집중력, 지속력, 기쁨, 행복감, 일념지경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하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은 생활 일선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간에 서로 마음을 써야할 일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님들이 쉽게 수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화두공부가 몸에 배이도록 하세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깨달아야 한다든지 성불해야 한다는 말은 접어두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정성스럽게 사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두만 타파하면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평소에 화두 외적인 문제에도 마음을 쓰십시오. 마치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일을 하듯이 말입니다.

봄이 오면 농부는 삽이나 괭이를 들고 밭에 나가 먼저 단단해진 땅을 뒤집어 밑거름을 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처럼 참선하는 사람은 먼저 계를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괭이나 삽으로 묵은 밭을 일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선행도 평소에 착실히 쌓아야야 합니다. 이것은 밭을 일군 곳에 밑거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에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는 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근본화두를 챙기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고 선한 공덕을 쌓는 것은 밖으로부터 자신을 안으로 고쳐가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것은 안으로부터 자신을 밖으로 고쳐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안팎이 만날 때 원만한 인격을 점진적으로 갖춰져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화두를 앞세워 놓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려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일을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일을 또박또박 잘 해나가다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행복감이 차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그 마음 바탕에 '이뭣꼬, 이뭣꼬' 알 수 없는 의심을 꼭꼭 챙겨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자연스럽게 하다보면, 화두를 또박또박 챙기는 마음이 일상생활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뭣꼬' 하는 알 수 없는 의심이 바탕을 이룬 곳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힘을 얻은 때'라고 합니다.

깨달아야 한다든지 성불하는 일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두를 들고 늘 깨어있는 그 자체를 행복하게 누리세요. 그래서 그러한 순간순간을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으로 수행을 삼으세요. 그러다보면 점차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실상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집착을 조금씩 덜게 됨으로써 삶의 모든 문제에 급급하지 않고 점차 이상에서 초연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재가불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마음을 크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일도 어제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살아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큰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시원스럽게 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 '성불하는 좋은 법 만난 인연'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화두의심, 알 수 없는 '이놈'을 잘 챙기십시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사 앞마당을 가득메운 재가불자들이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묻고 답하기' 현장

▲진흙소가 쟁기질 한 이치를 알고 싶습니다.
-진흙소가 되어 쟁기질 해보세요. 그럼 알 것입니다.
▲행간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행해서 스스로 아세요.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화두 의심이 성성합니다. 그러나 잠만 자면 화두 의심은 은 데 간 데 없고 잠만 잡니다. 어떻게 화두 의심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잠이 오면 자세요. 깨어있을 때 화두를 잘 챙기세요.

"법문, 테이프로 들으세요"

도현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 도현(道玄) 스님

일반은 물론 불교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도현 스님은 1963년 부산 범어사에서 입산 출가해, 72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았다. 은사는 범어사 덕명 스님으로, 법랍은 40년. 현재 스님은 전기도 수도도 들어 오지 않는 지리산 연암토굴에서 홀로 수행정진 하고 있다.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9>



존경받는 노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고 있나' 삶의 질이 존경받는 기준
나이 많아도 오욕 가득차 있으면 자격 미달

최근 우리나라도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된 탓에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대가족제도의 해체 및 핵가족화로 자식과 떨어져 생활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인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로 대표되는 노인문제이면에는 노인에 대한 천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연장자를 배려하는 예절이 즐어들고 있다. 나이든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는 버릇이 없다고 불평한다.

노인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본, 미국, 유럽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문제를 행정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노인들을 의식주의 궁핍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의 정착 이전에 먼저 가정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가정이나 사회에서 노인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노인들의 태도도 변화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섬김 받는 입장에만 서지 말고 젊은 층을 이해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경전에서는 산술적인 나이로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붓다가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적에 일어난 이야기이다. 존자 마하가전연은 바라나(婆羅那)의 오니지(烏泥池) 연못가에 있었으며, 많은 비구들과 어떤 문제로 함께 모여 있었다. 그 때 나이 많고 신체가 연로한 범지가 찾아와 한쪽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한동안 잠자코 서 있다가, 여러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찌하여 연로한 사람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안부도 묻지 않으며, 앉으라고 공손하게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때 대중 가운데는 존자 마하가전연도 있었다. 그 때 존자 마하가전연이 그 범지에게 말했다. "우리 법에서는 연로한 사람이 올 경우, 다들 서로 말을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공경히 예배하며 앉기를 청합니다."

범지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이 대중 가운데는 나보다 연로한 이가 없건만, 공경히 예배하며 앉기를 청하지 않소. 그런데도 당신은 어찌 '우리 법에서는 연로한 이를 보면 공경히 예배하며 앉기를 청한다'고 말하오?" 존자 마하가전연이 말했다. "범지여, 혹 어떤 연로한 사람이 나이 80이나 90이 되어, 머리는 희고 이는 빠졌더라도, 만일 젊은이의 법을 가졌다면 그는 연로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나이가 젊어 25세쯤 되어서, 살결은 탄력있고 머리는 검어 한창 젊음과 아름다움이 넘치더라도, 연로한 이의 법을 가졌다면 그는 연로한 사람의 수에 포함됩니다." 범지가 어떻게 나이 80이나 90이 되어도 젊은이의 법을 가졌다 하며, 또한 나이 25세쯤 되어서도 연로한 사람의 수에 포함되는 지 물었다.

존자 마하가전연이 범지에게 말했다. "다섯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이른바 눈은 빛깔을 분별하여 애착하고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혀는 맛을, 몸은 촉감을 분별하여 애착합니다. 이 다섯 가지 대상에 대해 애착을 떠나지 못하였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나이 80이나 90이 되어 머리는 희고 이는 빠졌더라도, 그는 젊은이의 법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비록 나이 25세쯤 되어 살결은 희고 머리는 검어 한창 젊고 아름다운 몸일지라도, 다섯 가지 대상에 대해 애착을 떠났으면, 이런 사람은 비록 나이가 젊어 25세쯤 되어서, 살결은 희고 머리는 검어 한창 젊고 아름다운 몸일지라도, 그는 연로한 이의 법을 성취하여 연로한 사람의 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은 아름다운 풍속이다. 그러나 단지 오래 살았다는 시간의 길이로 연장자에게 공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삶의 질이 존경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행실이 탐욕에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언행이 더러운 욕망에서 벗어나 있다면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경 받으려면 존경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이 검소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이면 주위 사람들은 아름다운 노인으로 여기고 존경하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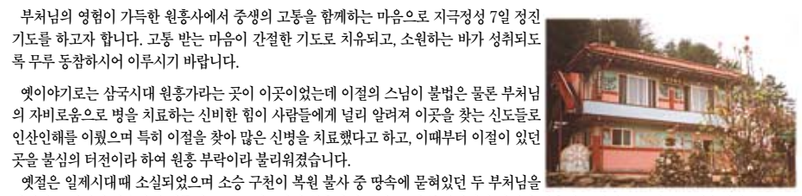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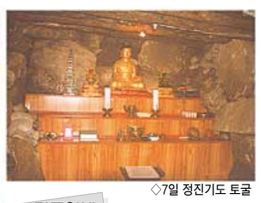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루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천이 복원 불사 중 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욕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괴롭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토굴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흥사 주지 구천 합장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1 하롱베이 / 앙코르와트 6일 999,000원
●일정 : 인천-앙코르와트-하노이-하롱베이-인천 ●출발일 : 5월 28일

특선2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세계자연유산 구채구 112만원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 6월 7일
▶일 정 :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9일 ▶출발일 :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함하이웨이르 따라 파미르고원(총령)를 넘어 실크로드로-세계최장수 마을 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 정 : 인천-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카슈카르-쿠차-우루무치-돈황-서안-인천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 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149만원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쉐다곤대탑,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인천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6월 3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 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리아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초록빛 5월 축제마당 활짝









청도 국제소싸움축제에서 체급별 소싸움 모습(위)과 춘천 국마임축제에 선보일 프랑스 · 브라질 '도아드' 팀의 공연모습과 국내팀 '프로젝트판'의 공연 모습(아래).





서울대공원의 '장미원 축제' 모습(위)과 '제9회 울산 고래축제때 선보인 일본 타악기 공연팀의 축하공연과 고래잡이 재현행사 모습(아래).

초록 물결 넘실대는 5월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로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
때마침 곳곳에서 벌어진 흥겨운 축제와
잔치들이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옷차림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의 열기 속으로 빠져보자.

발품 팔며 가 보면 감동~ 감동~

인천 꽃전시회 봄의 여왕은 단연코 꽃. '제1회 인천 꽃전시회'가 5월 8일부터 22일까지 인천대공원에서 펼쳐진다. 화훼관, 50가지의 야생화관, 30종의 난관, 150가지의 분재관, 야외분재전시관 등 5개의 실내 전시관과 화정원, 녹정원으로 꾸며진 이번 꽃전시회는 각종 꽃과 분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 (032)466-7282

노르웨이 현대도자전 노르웨이 도자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도자기들과는 어떤 점이 다르지? 이천시가 5월 14일까지 관고동 설봉공원 내 이천시립박물관에서 노르웨이 현대도자작품 전시회를 연다. 주한 노르웨이대사관과 이천시립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노르웨이 도예가 애스킴을 비롯한 작가 16명의 작품 34점이 선보인다. (031)644-2068

울산 고래축제 선사시대의 고래잡이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울산시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장생포 해양공원 일대에서 '제10회 울산고래축제'를 연다. '선사의 꿈, 고래와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될 축제는 고래마라톤대회와 고래당기기 대회, 고래얼음조각대회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로 진행된다. (052)226-5417

청도 국제소싸움축제 농경문화의 정착과 함께 민중들의 시름을 달래주고 흥을 돋우던 놀이, 소싸움이 국제적인 축제로 다시 태어난다. 청도군이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서면 서원천변에서 진행하는 '2004 청도 국제소싸움축제'가 바로 그것. 축제는 국제소싸움대제전과 체급별 소싸움, 전국사진촬영대회, 주한미군 로데오 경기, 세계민속 공예품 전시, 농경생활 전시체험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054)370-6373

춘천 국제마임축제 몸짓으로 표현하는 세계. 프랑스 미모스 마임축제, 영국 런던 마임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마임축제가 열린다. 춘천시가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마임의 집, 봄내극장, 춘천인형극장 등에서 펼치는 '춘천 국제마임축제'가 그것. 축제는 국내 '프로젝트판' 팀과 프랑스 · 브라질 '도아드' 팀 등의 초청공연과 자유참가공연, 아마추어공연 등 수준별로 다양한 공연들이 선보인다. (033)242-0585

인천해양축제 더 이상 '바라보는 바다'로는 만족할 수 없다. 직접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 '제2회 인천해양축제'가 인천시 주최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월미도 국립해사고등학교와 월미도, 인천항, 무의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바다'를 소재로 한 각종 프로그램들과 청소년 해양견학, 선상 낚시대회 등 다양한 체험들로 꾸며진다. (032)440-3492

화엄음악회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5월의 문화인물 '의상' 기념사업 일환으로 영주시와 부석사가 개최하는 '화엄음악회'가 5월 29일 부석사 범종루에서 열린다. 또 29일부터 30일까지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서는 '부석사 禪 다례축제'가 열리며, 30일 '의상 화엄일승 기념법회'와 '하나를 위한 소리와 몸짓의 공연'이라는 주제로 '화엄불교 공연예술제'가 부석사 무량수전과 범종루에서 각각 펼쳐진다.(054)633-2364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게시판

공부합시다

소프트웨어 전문교육 안산시가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양대 안산정보원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결정, 5월 6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은 마우스, 비주얼, 유니스 등 3개 과정이며, 안산지역 청년층 미취업자 및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 대학생 등 모두 참가 가능하다. (031)400-4485

함께 해요

주말 영어현장학습 공원녹지관리사무소가 5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초, 중생을 대상으로 '월드컵공원 영어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미국인 등 외국인이 영어로 동, 식물 이름 등 공원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02)771-6133

청도 어린이 사생대회 경북 청도 적천사가 5월 16일 적천사 경내에서 '청도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지역어린이들과 함께 진행될 이번 대회의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도 점심과 간식, 작은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054)373-0307

외국인과 함께 연등 만들기 부산 홍법사가 5월 16일 외국인과 함께 만드는 연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내국인도 참여가능하다. (055)242-8393

청소년자원봉사자 모집 서울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이 자연환경 정화활동과 지역사회개발활동을 담당할 청소년자원봉사자를 상시 모집한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번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02)838-1318

문화재 홍보요원 모집 안양시가 시내 각 지역에 분포한 문화재를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해 '문화재 홍보요원'을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역사 전공자나 교사 출신 또는 문화재에 관심 있는 만25세 이상 성인이면 된다. (031)449-4451

외국인 산사체험 하동군이 '제9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외국인 산사체험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쌍계사에서 진행한다. 예불참석 및 참선, 칠불사 탐방 등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15일까지 하동군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055)880-2622

올해의 작가 공모 경기도 부천문화재단이 '2004년 부천 올해의 작가'를 5월 10일까지 공모한다. 지원 대상은 부천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 미술활동에 참여한 미술작가로 장르나 연령은 제한이 없다. (032)326-6923

정오의 Mini-Rock 콘서트(사진) 서울시가 '서울광장' 개장 기념으로 '정오의 Mini-Rock 콘서트'를 5월 4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진행한다. '815밴드' '피버스' '미스터 펑키' 등 국내 대표적인 록밴드 등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02)731-6212



무료법률 상담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하구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051)264-9033

농사체험 인천녹색연합이 5월 20일 남동구 유기농연구회에서 건강한 음식문화를 위해 환경과 건강을 살리기 위한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현장 농사체험, 생생요리콘테스트 등으로 꾸며지며, 오는 17일까지 선착순 접수 받는다. (032)548-6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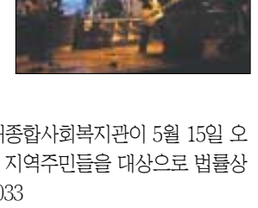
박물관 자원봉사자 선발 국립춘천박물관이 5월 3일부터 15일까지 전시안내와 사회교육 및 행사 보조를 도울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 우리 문화와 역사에 애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60세 이하의 일반인이면 모두 참여가능하며, 박물관 및 타문화기간의 문화강좌 수료자와 사학, 미술사학, 고고학 등 관련학과 졸업생, 외국어 능통자들을 우선 선발한다.(033)260-1530

프로세일즈 무료교육 세일즈 교육컨설팅업체 세일즈스쿨이 5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이벤트홀에서 '프로세일즈 무료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영업컨설턴트 신윤순 원장이 억대 연봉 세일즈 프로의 고객발굴법, 고객감동 판매상담기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400명. (02)3272-8243

즐겁게 떠나요

삼사순례 마산 정법사가 5월 16일 충북 영동 영국사, 반야사, 중화사 일대로 제42차 삼사순례를 떠난다. 동참금 2만 5천원. (055)242-8393

보성차밭 여행(사진)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이 5월 16일 보성차밭과 대한다원 삼나무 숲길, 운주사 등지로 주말여행을 떠난다. 산허리를 휘감은 150만평의 녹차밭과 그림같이 펼쳐진 삼나무길을 거닐다보면 자연스럽게 심신이 가다듬어진다. 성인 3만 8천원. 어린이 3만 3천원. (02)725-1284



불교문화 유적답사 광주불교교육원이 5월 23일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진행한다. '백제의 미소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답사는 서산마애불과 태안마애불, 보원사지 등을 찾아 백제불교문화의 멋과 향을 탐색해 본다. (062)228-9098

토요문화기행 안성시 관광정보센터가 5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수도권 나들이객을 위한 '토요상설 안성문화기행'을 운영한다. 이번 안성문화기행은 교통편 제공은 물론 1만원 상당의 안성맞춤 쌀밥정식과 3천원 상당의 농축산물 기념품이 지급된다. (031)673-0824

전시

화폭에 담긴 백두대간의 美

부산 열린화랑 설종보 '백두대간…' 展 18일까지



설종보 씨의 '법주사 팔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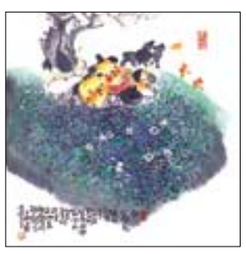
따뜻하고 아름답게 일상을 그려내는 화가 설종보 씨의 '백두대간을 따라와서 – 그 속의 일상'전이 5월 7일부터 18일까지 부산시내 열린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설종보 화백이 4년 동안 백두대간을 따라 내려오며 그림 속에 담아낸 오대산 월정사, 속리산 법주사, 가야산 해인사, 달마산 미황사를 비롯 설악산 울산바위, 동해 추암마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관념적 풍경이 아닌 직접 우리 산하를 체험하고 재구성한 우리 산하의 풍경, 삶을 그리고자 했다"는 화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4년간 백두대간을 직접 답사하며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았다. (051)731-5437

따뜻하고 나른한 오후 풍경

갤러리 시선 상봉 스님 '낮잠' 展 23일까지



맑고 투명한 동심으로 보는 아이의 모습(사진)과 달마의 얼굴.

호남대 사회교육원 고미술학과 교수 상봉 스님의 그림전시회 '낮잠'이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갤러리 시선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구도자와 불화라는 제한적 요건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품과 같은 편안함과 봄날의 나른한 자유로움을 담아낸 잔잔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또한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장학기금과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쓰인다. 이번 주말, 마음이 청량해지는 그림들을 감상하며 이웃을 도와보면 어떨까. (02)732-6621

국내 미개봉 불교영화 '샤워' 14일 무료상영

불교영화 '샤워(Shower)'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국제협력위원회가 국내 미개봉 불교영화 '샤워(Shower)'를 5월 14일 오후 7시 불교아카데미 불교경영정보센터에서 상영하기로 한 것.

'샤워'는 중국 장 양 감독 작품으로 고향에서 멀리 떠나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장남(극중 인물 '다명')이 정신지체아인 동생이 그린 그림엽서를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잘못 이해해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로 잃어버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가슴 따뜻한 영화.

이날 행사장에서는 영화상영뿐 아니라 영화평론가 모은영(DVD 칼럼니스트) 씨와 함께하는 영화 감상포인트, 비평나눔 자리도 마련된다. 관람신청은 5월 13일까지(선착순 30명, 관람료 무료). (02)745-7799

25면 상식 퍼즐 정답

공	양		만		속		원	성
기	심	입	덕		기	고	만	장
	선		전	등	록		성	
발	언	대		잔		녹	취	록
		나	라		졸	음		
소	나	무		웅		기	단	석
	뭇		묵	비	권		과	
가	가	호	호		고	관	대	작
해	지		자		안		학	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06:05 불교강좌
10:05 BBS 신행상담실
13:00 뉴스
15:05 음악의 마을
18:00 저녁예불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00:00 세계음악여행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TN 불교TV <ch 32>

12일 09:20 혜거 스님의 선특강
13일 14:30 정세채 교수의 선식건강법
14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15일 08:20 조선불교탄압사 부처 통곡하다
16일 16:10 다큐멘터리 티벳불교
17일 15:20 불교TV 메디칼
18일 16:10 성운 대사 불경강좌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영화음악실(5월 18일 22:05~23:00)–정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다양한 영화 정보와 함께 영화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감독 김준석 씨가 출연, 영화음악가의 음악세계를 집중탐구하는 '이 사람 그 음악' 시간으로 꾸며진다.

■**불교텔레비전**: 신영희의 소리한마당 얼씨구 좋다!(5월 12 8:20~15:20)–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우리 소리의 최고봉 판소리에 도전한다. 국악인 신영희 씨의 지도로 흥부가 중 가사가 재미있는 '놀부 심술대목'을 배운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개인용 백자향로



백자로 만든 개인용 향로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향을 피울 때 용이하다. 또한 구입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향로용 유리알도 증정된다.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 더 없이 좋은 제품. 크기 지금 90mm×높이 55mm. 가격 1만 2천원. (02)732-1520

외국차가 몰려온다

㊤ 차 시장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 건전한 차문화 형성을 위한 제안



보이차, 철관음, 대홍포…. 굳이 차인이 아니라도 한번 쯤 들어봤을 중국차의 이름이다. 최근 외국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수입되고 있다.

1980년부터 조금씩 일기 시작한 외국차에 대한 관심은 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됐다. 이때부터 조금씩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이차와 오룡차가 국내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우라센케 등의 각 다도유파들이 국내

92년 수교후 수입 본격화
국내 차인 기호 충족에 큰 몫

차 단체들과 교류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 차 업계는 말차로 대표되는 고가의 차를 우리 차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각종 시연행사와 광고행사 등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중국차 수입이 본격화 된 것은 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부터다. 특히 90년대 이후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집중적인 차 품종 개발과 차산업 진흥 노력으로 우수한 차를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다양한 종류의 차가 국내에 수입됐다.

이후 10여년 동안 국내 차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차의 수요도 자연스레 높아졌다. 발효차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차시장의 여건상 차인들의 다양해진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외국차가 큰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인터넷에는 수십 여 개의 외국차 전


4월 24일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차와 좋은 만남전'의 중국차 시연 (현대불교신문 사진자료).

문 판매 사이트와 정보 제공 동호회가 개설되어 있고 서울 인사동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외국차 판매점들이 성업 중이다. 이들 대부분이 중국이나 동남아 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인사동 중국차 전문 판매점 백련다다의 이춘화(34) 대표는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차나 대만차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주말에는 일반인들도 중국차와 다구에 대해 배우러 오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어느 정도의 외국차가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외국차의 수입과 판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농산물 개방에 열기 거셀 듯
우수한 질, 낮은 관세로 타격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WTO 농산물 시장 개방은 외국차에 대한 열기를 더욱 더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장 개방은 곧 차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져 외국차가 쉽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음을 뜻한다. 지금까지 쿼터내 40%, 쿼터초과 500% 이상의 높은 관세율 때문에 수입이 제한되었던 외국의 차가 시장이 개방되는 7월 이후부터는 더욱 많이 수입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연 생산량은 2천 톤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차값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5~10배 정도 비싼 국내 차시장의 현실은 생산량과 질 면에서 외국의 차와 경쟁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현재 질 나쁜 차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가 외국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좋은 차'를 선별하는 기준은 가격이나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일부 차 수입상들은 질이 나쁜 차를 '40~50년 된 보이차'로 둔갑시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차를 마시는 용기인 다구의 수입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다기인 자사호(紫沙壺)는 중국차의 수입 증가에 따라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1~2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는 다구들은 '중국 의흥 지방에서 생산되는 자사로 만든 다기'라는 뜻의 자사호가 아니라 '색깔과 무늬만 자사호'인 경우가 많다. 이는 전문 매장의 경우라고 해서 100% 안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나쁜차 판별 능력 부족 문제
자료 공유 통한 전문지식 필요

인터넷 차 판매 사이트 '중국차 즐기기(www.teancha.com)' 손성구(42) 대표는 "자사호는 1200도 이상의 불에서 소성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완전히 용해되지 않아 차를 마실 때 녹아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인사동 차전문매장 '훈'의 양경년(50) 대표는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다구나 차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준 이하의 제품일 경우가 많다"며 "이들 다구는 소성과정에서 유약이나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 대표는 "차 소비자들이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차 소비자들이 상인들의 기획이나 마케팅, 그들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차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들 스스로가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객관적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서대 차학전공 정인오(42) 주임교수는 "값싼 외국차가 밀려들어오는 이 시기를 위기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녹차 대중화 운동과 우리 차문화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올바른 차문화의 계승과 전승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지원이나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차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차문화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수종 개량을 비롯한 차나무 연구에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우리 사찰 차 모임 — 통도사 부산포교원 여란다회

사상·학문적 체계화 중점


통도사부산포교원 여란다회 회원들은 매년 봄 밀양 표충사 춘계향사에서 헌다례를 봉행한다.

각종 차 행사 해외홍보 열심
전회원 강사화로 차인 육성

1985년 故 원광 스님을 주축으로 창립된 통도사부산포교원 여란다회(회장 홍순창)가 성년의 해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여란다회의 지향점은 여느 다회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강조하고 다법에 치중하기보다는 차의 사상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차의 여러 가지 순기능들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다, 다도시연 등을 통한 차의 대중화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남다른 노력, 이것이 통도사부산포교원 여란다회 17명 회원들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89년 원광 스님의 갑작스런 열반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여란다회는 93년 통도사부산포교원내에 둥지를 틀면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55기가 수업중인 기초반에서는 다도에 대한 기본예절뿐 아니라 차밭 견학, 둔치요 견학 등을 진행하며 5백 여명을 넘는 차인을 배출했다. 통도사부산포교원 여란다회로 자리매김하면서 통도사부산포교원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행다 시연회와 차 겨루기 행사를 열고 한국차인 연합회, 부산차인 연합회에도 가입했다. 특히 통도사부산포교원 산하 단체인 한나래문화재단에 소속되면서 활동의 폭은 한결 넓어졌다. 부산 시민을 위한 차 잔치마당 및 화전놀이를 주최하는가 하면, 통도사부산포교원 국제포교부와 함께 외국인들에게 우리 차와 다식의 멋과 맛을 알리기도 했다.

99년 원광 스님 제 10주기 추모재를 지낸 여란다회는 원광스님의 차 정신을 되살리기를 여란다회의 향후 과제로 꼽는다. 원광스님의 차 정신을 재조명하고 차의 뿌리를 찾아가는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 상반기경,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 보다 다양한 차문화를 접하게 된다. 또한 전 회원의 강사화를 추진해,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차인을 육성하고 전 국민의 건강 책임지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기 멋에 빠지지 않고, 차를 통한 자기 수련의 토대 위에 대중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차인' 이것이 여란다회 회원들의 차 정신이다.

천미희 기자

인터뷰

홍순창 회장
차의 순기능 조명이 대중화 지름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조절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차입니다. 차가 갖고 있는 순기능은 중도(中道)의 도리와 일맥상통합니다."

통도사부산포교원 여란다회의 홍순창(46) 회장은 녹차의 기능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다. 홍 회장은 58년 차 불모지에서 차를 만드는 아버지를 보며 자연스럽게 차를 접했고 20대 중반에 차 생활을 시작했다. 차의 기능을 연구하고 알려내는 일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차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쓰고 있는 홍회장은 "차의 순기능을 조명해내는 노력은 곧바로 차의 대중화로 이어지며 그것은 국민의 심신 건강의 중심에 차를 세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차 정신과 규범을 정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여란다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추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일산에서도 고급 보이차와 좋은 찻그릇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차의 품격이 다른·茶人들이 즐겨 찾는
茶友茗家
고급보이차 전문(광운조기, 인급, 호급차)
고급 자사호(공예사, 고급공예사급)
고급 다관 및 다완
녹차, 청차, 말차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3호선주엽역 3번출구
(그랜드백화점건너편)
031)911-1044
011-307-6620
e-mail : hajun2000@dreamwiz.com
※ 자세한 문의나 주문은 전화나 이메일로 해주세요!



사진제공=좋은참숯

퀴퀴한 곳에 놓으면 '깔끔·상쾌'

중소기업 부장 J씨. 골프광인 그는 요새 골프를 대신해 한달에 한번 다니는 곳이 있다.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한 숯찜질방(사진 위).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한번씩 가요. 저번에 아내와 함께 갔는데, 그 후부터 아내가 찜질방, 찜질방… 아예 노래를 부르더군요." 숯이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숯 찜질은 물론, 숯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과 공기를 정화하는 정제 참숯부터, 생활용품인 참숯베개, 숯매트, 숯이불, 인테리어용인 숯부작, 목욕용 숯, 참숯 복대와 안대, 마스크, 숯비누, 목초액, 탈취제까지, 숯 관련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번쓰고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 말려 재활용

원적외선·음이온 방출
불면증 해소에도 한몫


인테리어용 숯부작.

왜 좋은가

김동섭 좋은참숯(goodsoot.com) 홍보차장은 숯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숯은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방출됩니다. 또 숯 덩어리에 생긴 미세한 구멍은 미생물, 세균, 악취 등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숯이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피부병은 물론 암처럼 큰 병을 앓는 사람도 숯과 관련제품을 찾는다고 소개했다.

열배로 잘 이용하기

숯의 효능은 탁월한 항균, 항취력에 있다. 숯의 미세한 구멍에 사는 각종 미생물들은 악취나 유해한 세균을 빨아들여 없애준다. 여름철 수원지에 녹조류가 무성해지면 숯의 일종인 '활성탄'을 뿌리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다.

신발장이나 화장실처럼 냄새와 세균에 민감한 곳에 숯 2~3개를 넣어두자. 퀴퀴한 냄새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는 일은 이제 그만. 냉장고에 500g 정도의 숯을 넣어두면 냉장고 냄새가 없어지고 야채, 과일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숯은 물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한다. 숯을 말끔하게 씻어서 병에 보관하다 물을 끓일 때 조금씩 넣어보자. 숯을 넣고 끓으면 물맛이 좋고 잘 변질되지 않는다. 물 1리터 당 20~30g 짜리 숯 1~2토막을 넣어 사용하고 10회 사용 후 깨끗이 씻었다가 말려 다시 쓴다.

목욕물에도 숯을 사용하면 좋다. 숯 속의 미네랄 성분은 온천욕을 한 것처럼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또 숯은 수돗물의 염소 성분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물을 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목욕물을 만드는 방법은 숯을 깨끗이 씻어 그물주머니에 넣은 다음, 가능한 뜨거운 물에 넣어주면 된다. 숯 추출물인 목초액은 아토피와 각종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

숯은 습기 조절도 한다. 장마철이 되면 습기가 많아져서 잠을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것은 너무 높은 실내 습도가 원인인데, 이럴 때 숯가루를 싸서 머리맡에 두어보자. '물먹는 하마'처럼 물을 빨아들인 숯 때문에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을 수 있다. 책상이나 침대 옆은 물론 자동차 안에도 하나씩 꼭 숯을 비치하는 것은 필수. 숯은 자동차 실내에 배어있는 담배 냄새, 에어컨 냄새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마음을 안정시켜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된다.

숯의 음이온은 불면증 치료에도 좋다. 수험생, 직장인을 비롯, 신경계통이 약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기 쉽다. 이럴 때 숯을 베개에 넣어 사용하자. 숯의 음이온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땀과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 베개 속 숯 입자는 머리를 시원하게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다. 또 음이온은 컴퓨터나 TV에서 나오는 해로운 전자파도 막아준다.

숯은 음식 맛도 살려준다. 튀김을 하기 전 기름에 약간의 숯을 넣고 끓이면 한층 고소하고 바삭거리는 튀김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 사용한 숯은 화분과 정원에 뿌려주면 훌륭한 거름 구실도 한다.

밥을 할 때도 숯을 함께 넣어 지으면 밥맛이 좋고 오랫동안 변색을 막을 수 있다. 쌀을 씻을 때 숯과 함께 물에 담가두면 농약 성분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숯가마솥(위)과 숯매트리스.

가 볼만한 숯공장 및 찜질방

강원참숯	(033-342-4508)
경원참숯	(033-342-0413)
고향참숯	(031-432-0183)
그린참숯	(033-763-5683)
김삿갓참숯	(033-374-6106)
동원참숯	(033-252-2344)
복골숯한증막	(033-671-9100)
삼계참숯가마황토찜질방	(055-231-6672)
숯굽는마을	(031-542-5970)
충주백운참숯	(043-651-1265)
좋은참숯	(1588-4922)
충주참숯공장	(043-651-1265)
화성참숯황토방	(031-357-5531)

우리집은 절로 통해요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9>

서울 불광사 반야성 보살 가족


지난 2002년 부처님오신날 불광사에서 개최된 불우이웃돕기 행사 후 반야성 보살 가족이 한자리에서 찰칵.

수련회서 절하는 모습에 반해 부부인연
모범생 두 아들 매년 봄·가을 1천배 정진

"우리 가족은 절로 통했어요."

절하는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연(佛緣)'이 아닐까? 서울 불광사 반야성 보살(43 · 김태순)의 경우가 그렇다.

"대불련 활동을 하며 故 이기영 박사가 지도한 구도회에서 불교 공부를 했어요. 한해는 산사로 수련회를 떠났는데, 어떤 남자가 앞에 서서 씩씩하게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키가 크면 싱겁다는데, 이 남자는 절도 야무지게 잘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찍었죠." 이 키 큰 남자가 반야성 보살의 평생 도반이 된 김창우(44 · 여연) 거사다. 절 잘하는 것이 두 남녀를 결혼에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 된 셈이다.

절이 결혼에 중요한 계기가 된 탓인지 반야성 보살의 아들 철언(오금고 · 16), 민언(보인중 · 14)이도 절하기를 좋아한다. 봄, 가을로 열리는 불광사 학생회 산사수련회에 갈 때마다 형제는 빠짐없이 1천배를 한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철언이는 "절은 힘을 쏟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며 "처음에는 주저하는 마음도 있지만 끝냈을 때 뿌듯한 느낌이 좋다"며 어른스럽게 대답했다. 절을 잘 하는 형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1, 2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다.

모범생 아들에게는 모범생 부모가 있다던가? 반야성 보살 부부의 신앙심도 보통이 넘는다. 유방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지난 2000년 오히려 반야성 보살은 불광사에서 불교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다.

반야성 보살은 "그 때 법당에 앉아 기도를 하다보니 내가 편히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 때 눈물을 펑펑 쏟으며 불법 만난 인연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이웃과 남을 도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야성 보살에게는 역경이 신앙심을 키우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남편 여연 거사도 함께 불교 공부를 시작해, 이제는 바쁜 공무원 생활 중에도 절대로 법등 모임에 빠지지 않는 핵심 멤버가 됐다.

반야성 보살은 얼마 전 암이 재발해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주 이틀씩 동사무소 도서관 봉사를 시작했다. 게다가 반야성 보살은 현대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도 한다.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엄마의 모습을 보고 배운 탓인지 철언, 민언 형제도 매주 법회가 끝나면 석촌호수 청소 봉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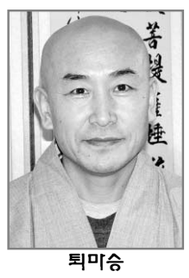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것이 수행이 부족한 증거라는 사실을 불교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반야성 보살. 반야성보살 가족은 "이웃을 부처님처럼 받들며 수행, 봉사를 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강유신 기자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 7시 ~ 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 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4년 5월 22일 토요일
군자전철역 4번출구 → 법왕정사 건너편 5번출구 능동주유소 앞 4시 30분 출발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망


퇴마승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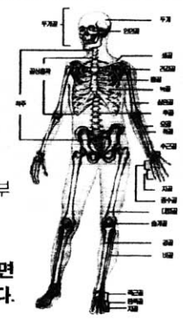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놓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끄달려

모두 나로부터 나오니 '자기의 탓' 둘 아니게 봐야 두루 건질 수 있어

집착 없이 사랑하려면…

문 스님께서는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으며 집착 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모든 것을 놓는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저는 정말 진정으로 집착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스님, 저희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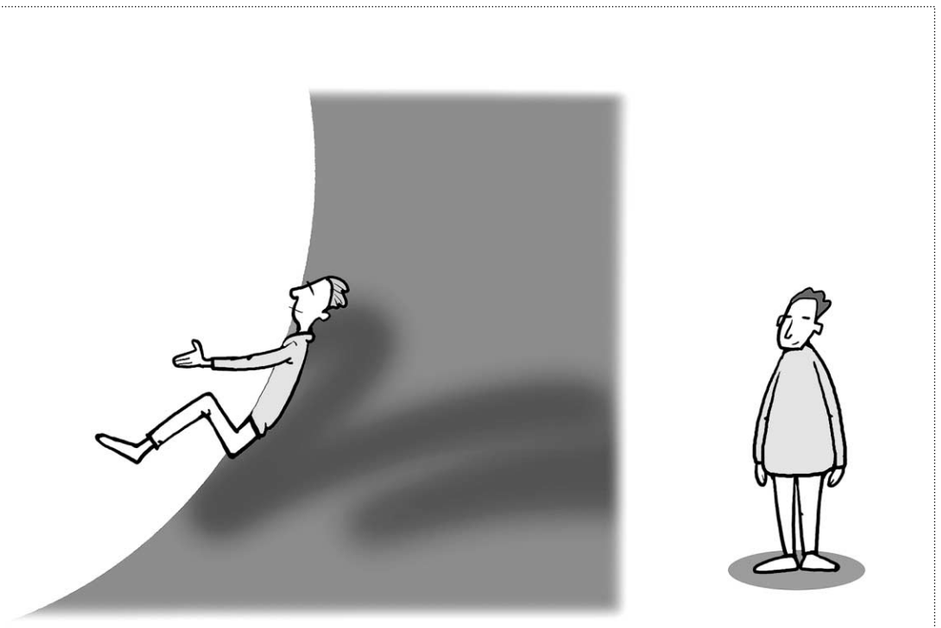
답 애정 문제도 그렇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끄달리는 겁니다. 그 놓지 못하는 마음이 원인이 되고, 또 그런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언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모두가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그걸 놓는 데서부터 벗어나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놓고 살아도 사랑할 거는 사랑하고 보살필 거는 보살피고 다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놓는다는 것까지 놓으라는 겁니다. '놨는데, 다 놨는데, 이걸 놔야지, 놔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놓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활용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건져주는 이치, 보는 이치, 듣는 이치 등등 전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놓지 않으면, 한 치 반 치도 놓지 않는다면 그 모두를 얻을 수가 없고, 그 모두를 놓지 못하면 나를 얻을 수가 없어서 나와 남을 둘이 아니게 볼 수가 없고, 둘이 아니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네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이렇게 동시에 같이 사생을 두루 건지고 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같이 만나야 행할 수도 있고 같이 들을 수 있어야 행할 수도 있고 같이 볼 수 있어야 행할 수도 있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나 그걸 알아야 행할 수도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나가 있기 때문에,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나로부터 이 세상만사, 괴로움과 외로움과 애착과 욕심과 사랑, 부처님이 있음을 아는 거, 잘된 거 못된 거, 논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로 인해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모두가 딴 사람의 탓이 아니라 자기의 탓입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말입니다.

만약에 잘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했지.'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또 잘했다는 업식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업이 나오면, 이 세상 살면서 끄달리며 살기 때문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나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따귀를 맞아도 아무 소리 없이 빙긋이 웃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자기가 있으니까 맞았기 때문입니다. 벽이 있으니까 누가 벽을 쳤지, 벽이 없는데 누가 벽을 칠 수 있습니까? 허공에 다 누가 칩니까?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 한테 집착할 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집착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체를 다 한군데다 집어넣어야 한 방에 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은 없나요?

문 어차피 사나이 대장부가 칼을 뺏으면 하늘을 받칠 수 있고 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검을 만들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검을 만들려면 신검 만드는 재료도 있고 망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대장간, 대장장이도 있어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혼신의 힘으로 한 방 한 방 내려치라고 하시지만 한 방에 끝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그렇기 때문에 돈오돈수가 있고 돈오점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오점수도 돈오돈수도 둘이 아니에요. 한 방을 내려치다 보면 두 방이 한 방이요, 세 방이 한 방입니다. 수만 마치로 두들겨도 바로 한 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숫자가 따로 없는 겁니다. 무시무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심이라 그랬고 일시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로 따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 없는 공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있다 하더라도 발자죽을 하나하나 세고 가나요? 첫 발의 그 시발점과 종점의 발이 둘이던가요, 어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왔어도 일단은 한 발 한 발 걸어 딛고 오긴 했는데 걸어온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여기 있을 뿐이고 저기 갔으면 저기 갔을 뿐이지 그 걸어온 거를 일일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심성, 즉 말하자면 축지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천 년 삼천 년을 단축해서 하루로 만들 수 있고 그 하루를 일 초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일 초를 찰나로 단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과거의 모든 업 짊어진, 그 입력된 거를 그냥 한꺼번에 한 방망이로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방망이로 무조건 생기는 대로 그냥…. 아니, 한 방망이로 녹인다는 건 뭐냐 하면, 나를 형성시킨 놈도 그놈이고 지금 끌고 다니면서 하는 놈도 바로 그놈인데, 그 뭣 하나 내가 잘못한다 잘한다도 없이 그놈이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안 하는 게 없다구요. 그 도리를 안다면 껄껄껄 하고 한 번 크게 웃어 보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한 방망이로 그냥그냥 녹이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잔뜩 먹고서는 체했다면 왜 이렇게 체하게 하느냐고 그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체할 정도로 그렇게 욕심을 내서 많이 먹은 내 탓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욕심나게 많이 먹게 한 놈도 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체하게 만든 놈도 너고 말입니다. 안 그래요? 따로따로가 없습니다. 몸 전체가 형성된 거, 몸 전체가 움죽거리는 거, 몸 전체가 보고 듣고 하는 거, 일상생활에 걸어가고 걸어오는 거, 모두가 살고 상대를 만나고 하는 것도 전체가 고 한 군데서 하는 거거든요. 한 놈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인공 한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믿고 알 때 '아, 네놈이 전체 하는 거로구나. 그러면 뭐 잘못됐다고 할 것도 없고 잘 안됐다고 애걸복걸 할 것도 없고, 또 뭐가 잘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구나. 모든 걸 네놈이 하는 거니까.' 이러고 그냥 한 망치에 때려 버리면 될 거를, 그냥 거기 말려 가지고 부둥부둥 앨 쓰니 어느 천년에 한 방망이로 다 그냥 녹이겠습니까?

이 도리를 알면 춤들을 덩실덩실 출 겁니다, 아마. 그러고 한 나절은 웃어댈 거고 한 나절은 복통을 하고 또 울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까지 좀 더 쓸데없는 작, 쓸데없는 어리석음, 그런 것들에 끄달리지 말라 이거예요. 한 방에 없앨 수도 있으니까요. 설사 한 방에 안돼서 또 한 방을 쳤어도 그게 두 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방을 쳤어도 한 방이요, 두 방을 쳤어도 한 방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도 낙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걸 하는 것이 분수가 뿜어져 나오듯 사방으로 들어와서 내가 어떤 걸 하든지 그놈이 하는 거지, 딴 놈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체를 다 한군데다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한 방으로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으라구요. 아무리 잘났어도 남의 뿌리에서 제 나무로 에너지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 높으면 높을수록
> 좀더 낮아지는 것이
> 부모의 도리

부전자전의 이치

문 흔히들 부전자전이라고 해서 아들의 성격은 아버지를 닮고 또 그 아버진 조부를 닮는 것이 보통으로 돼 있는데, 조부의 전생과 아버지의 전생, 아들의 전생이 각기 다르리라고 생각되고 또 업도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는 그 성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령 포악한 가정 같으면 포악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아주 온순하고 덕이 훌륭한 집안 같으면 그것이 또 그대로 나타나는 게 보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답 세상 살아나가는 걸 보십시오. 사람 사는 도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물건을 생산해서 놓을 때도 옷 파는 데는 옷 파는 데대로 죽 모이지 않습니까. 옷 파는 데다가 깡통 놓고 파는 거 보셨습니까? 쇠 파는 데도 못 보았을 겁니다. 쇠로 만든 거는 쇠대로 놓고 팔고, 깡통으로 만든 거는 깡통으로 놓고 팔고, 금으로 만든 거는 금으로 놓고 팔고, 은은 은대로 따로 놓고 구리는 구리대로 따로 놓고 전체가 똑같은 것끼리, 그 원소가 똑같은 것끼리 놓습니다. 형체는 다 달라도 만약에 무쇠라면 무쇠의 그 원소, 질이 무쇠이기 때문에 무쇠로 만든 건 다 바깥에서 돌게 마련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무쇠로 만든 거라고 해서 바깥에서 큰일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쇠는 무쇠끼리 돼 있고, 금은 금대로 돼 있고, 넝마는 넝마대로 돼 있고, 옷은 옷대로 돼 있고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 이러면 잘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그 원소이고 잘못을 하는 분도 원소가 그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과 저지르는 사람이 똑같은 원소인 것이죠. 그렇게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든 부부지간에 잘못하든 간에 그렇게 만나는 인연들은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꽉 만나거든요. 요 깡통이 잘못했는데 조 깡통을 만나는 게 아니라 원소가 똑같은 것끼리 만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구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원망할 거 없고 부부지간에도 원망할 게 없고요. 다만 속에다 넣고 '주인공, 당신이 형성시킨 거니 당신이 이끌어 가시오!' 하고선 아예 그냥 탁 놔 버리는 겁니다. 맡겨 버리면 언젠가는 똑바로 가게 돼 있거든요. 끌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만날 말로다가 "너, 이 놈의 새끼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어쩌구,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너는 이 에미 애비가 불쌍하지도 않으냐? 너는 나가서 돌고 있구." 아, 이러고 하니까 그게 한두 번이라야죠. 만나기만 하면 그러고 만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 건데 자꾸 듣던 말 또 듣고 그러면 현기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보지 않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든 언짢은 소리든, 좋은 소리는 서로 좋게끔 화목하게 돌리게 말을 하고, 언짢은 소리 같으면 아예 밀어 버리세요. 꼭 할 말이 있으면 남의 말로 돌려 버리세요. "오늘은 내가 어디 갔는데 글쎄 이런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는데 말이야…." 아,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정이 가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이 생각이 돌아가게 하면 화목하게 되고, "그래요?" 자기도 양심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걸 막 바로 대고 "너 이렇게 해서 되느냐, 어쩌느냐?" 이러면 나부터라도 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목하게, 절대로 바깥으로 큰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여자나 남자나 큰소리가 바깥에 나가면 좋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상스럽겠소?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욕을 해대고 "야, 이놈 저놈, 요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러고 욕을 해대고 이러는 가정을 본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을 보고선 "그랬어, 저랬어? 왔어?" 아, 요러고 말을 할 때는 인간으로서 그건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높으면 높을수록 좀더 낮아지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들의 심부름을 일일이 해야 되겠죠. 똥 친 막대기처럼. 똥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는 시골에서 막대기 하나씩 놓고 똥을 씻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부모한테 기대지 않으면 누구한테 기댑니까? 그러니까 애들의 심부름꾼이지 그건 위대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름만 엄마 아빠로 지었지 그거는 심부름꾼이에요. 자기가 일생 동안 그 심부름을 하면서 뜻을 심어 놓고서 자기는 또 벗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가 위라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희생을 하면서 길렀는데…' 이런단 말입니다. 아, 누가 그렇게 기르라는 거 길렀나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 했어요? 자기 탓이지.

그런데 '너희 놈들은 나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아버지나 어머니 생각이지 걔네들의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생각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따라 주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면, 따라 주면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폭이 넓은 지혜로운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면 그런 집에서는 절대로 한데로 나서지 않습니다. 아니, 한데로 나선다고 해서 나가는 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나갔다면,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졌다면…, 참 사랑할 줄 알고 측은히 엄마를 도울 줄 알고, 또 측은히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면 그 자식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과 똑같을 때에 비로소 그거는 심부름꾼도 아니고 심부름꾼 아닌 것도 아니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똑같은 그 마음으로

☞34면으로 계속

조그만 거 하나라도 놓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33면에서 계속

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겁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간판만 이쁜 것 찾지 말고, 또 남편이 간판만 잘생겼다고 해서 잘생긴 것만 찾지 말고 마음이 잘생긴 것, 진실한 거,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돌부처도 돌아앉거든요. 사랑할 수 있다면 돌부처도 "아이고, 너냐?" 그러고선 사랑하며 돌아서요.

그런데 사랑 안 한다면 돌부처도 딱 돌아앉아 버려요. 또 돌부처한테 장가들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주인공한테 모든 걸, 사랑도 거기서 나오는 진짜 사랑을 여러분이 맛을 못 봤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맛을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외의 분들은 참 억울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요. 야, 어디 가서 추우면 '어유, 춥다. 어서 가자.' 아, 이렇게 해 주고, 또 어디에 불이 붙었으면 '아이구, 뜨겁다.' 하고 막 털어 주고 말입니다. 만져 주고 씻어 주고 참,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변소엘 가도 쫓아가 같이 다니고…. 야, 사랑을 그렇게 해 보셨어도 밑까지 씻어 줄 수 있는 그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런 사랑 보셨습니까? 해 보셨어요? 이제부터라도 모두들 그런 사랑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자식지간도 그렇고, 부부지간도 그렇고, 서로에게 물들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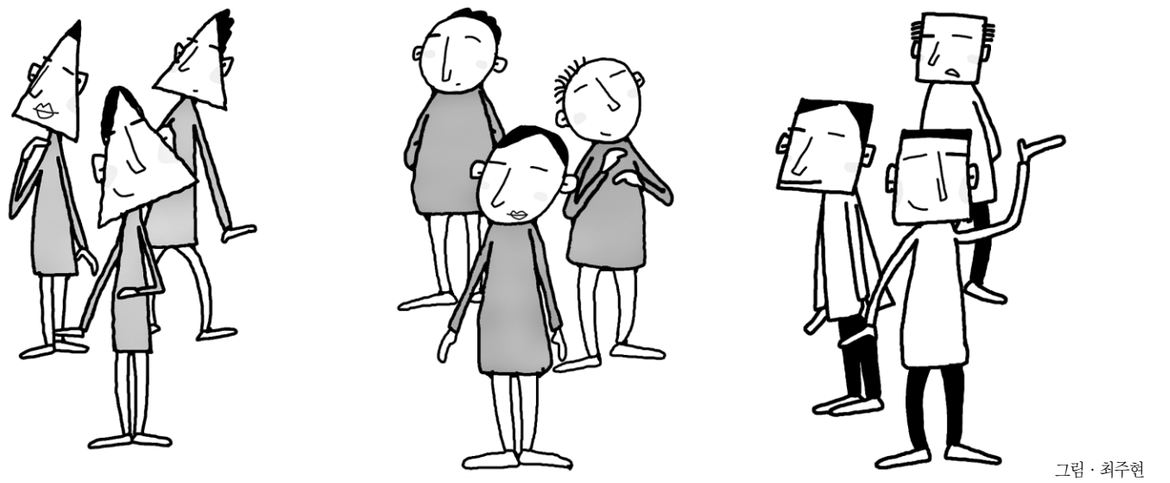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우면 상대의 마음도 너그럽게 조절할 수 있어

불자로서의 자부심!

문 저희 불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고 할 정도로 여여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불자로서의 자긍심이 별로 없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다가도 결혼을 하면서 부인이 타종교인이면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스님,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모두 불법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여기 어떠한 신행회 회원 중에 기독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승진도 안 시켜준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죠. '기독교엘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장소는 들이 아니다.' 라고 얘길 했습니다. 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이 자리가 그 자리니까 아무 자리에 앉았어도 네가 거기 앉았으면 바로 네 부처는 거기 계신 거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몇 식구를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나 여기 오나, 여기 나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지 말라는 거도 아니다. 단 하나 있다면 개종을 한다는 생각도 말고 또는 나는 불교인이라는 생각도 말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지도 말고 한 마디로 "이 장소가 그 장소고 그 장소가 이 장소기 때문에 거기 가 앉았어도 내 자리고 거기가 도량이고 여기에 앉았어도 내 자리요 도량이니까 그저 나오라면 나가야죠, 직원인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길 쭉 하니까 또 거기서 많이 배웠구요. 그래서 어느 날 회사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쭉 하니까 "여보게! 자네는 참 별스런 사람일세. 자네 같은 사람은 내가 끌고 안 끌고가 다 소용없는 짓인가 봐!" 그러고는 승진을 시키더랍니다.

그것만 봐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우면 상대방의 마음도 너그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병자가 하나 와도, 황상 내 집안에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면 네 주인공하고 내 주인공하고 둘이 아니니까 네 주인공이 똑바로 모든 거를 끌고 갈 거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믿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잘 끌고 가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나가 돌면서 빗나가고 엇나가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거기다 맡기고 관하세요. 그게 돈이 들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못합니까? 모두들 제대로 가지 못하니 얼마나 그것이 손해입니까. 그러니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라는 겁니다. 남편에게나 또는 아내에게도 부드럽게 해 주고 다복하게 사심으로써 돈이 달아나가다가도 돈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조놈의 집에 들어갔다간 싸우는 중간에 껴서 내가 못살겠으니까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하고 달아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한 집이 돈도 화목하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을 끌어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스스로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불자로서의 자신감도 가지면서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당한 집안에서, 그래도 부모 슬하에서 당당하게 공부하고 당당하게 이, 참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서 당당히 여기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 젊은 사람들을 기죽이지 마시구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기죽을 사람들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애로점이 있으면 거기다 모두 한번 의뢰를 해 보고 부탁을 한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심성과학입니다. 생활과학이구요. 우리 생활과학을 우리 자신으로써 역력하게 풀어볼 수 있는, 그러고 실생활에 적응이 될 수 있는 이런 실천궁행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생한 것처럼 후손들을 또 고생하게 하지 마시고 어디 나가서 서더라도, 돌 위에 서더라도 살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돌아서서 뼈저린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고 위로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업은 어디로부터 생겼는지요?

문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자리와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까?

답 지수화풍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업이라는 거는 지수화풍으로서의 우리가 돌아가면서 일체 모든 게 전부 공했기 때문이죠.

공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했다고 했는데 잘나잘나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한 거를, 우리가 몸으로만 수행을 하고, 또 일심에 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만 모든 것을 놓았을 때에 일심으로 들어서 일심으로 나게 할 때에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또 빨라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군데로 몰아서 할 때 내 일신은 앉았으면 편안하고 아주 똑바로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행이 되겠지만 정작 급한 일이 닥치거나 활용을 해야 할 때에는 한 푼어치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놓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놓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이 세상에 몽땅 놓았기 때문에 몽땅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몽땅 놓지 않는데 몽땅 얻을 수가 있나요? 얻는다는 것은 모든 걸 굴릴 수 있다는 점, 놓는 데에 여러 가지가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본래 놓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놓고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을 하면 벌써 말한 이전이 돼 버리기 때문에 본래 놓고 가는 겁니다. 한 발짝 떼어 놓았다면 떼어 놓은 것이 벌써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전이 되는 거죠. 내 한 발짝 떼어 놓기 이전이 된다구요. 그래서 주인공은 전체 돌아가는 거를 포함해서 이름하여 이름을 붙인 거고, 업식이라 하는 거는 개별적인 하나의 문제를 사량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놓는다는 거하고 생각을 포기한다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그것은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놓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놓아라, 놓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놓으라는 소리는 자기가 포기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욕심에 끄달린다거나 또는 집착에 끄달린다거나 애정에 끄달린다거나 또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하여튼, 일상생활에 모든 게 끄달리니까 본래 그냥 놓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놓아라!' 이런 소리를 또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본래 놓고 가는 거란 말이죠, 본래. 사람들이 그걸 놓지 않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끊으려고 하면 더 못 끊는 법입니다. 끊는다, 끊는다 하면서 못 끊는 거죠. 왜? 끊는다고 하고 끊으려고 하니깐 못 끊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그냥 놓고 가는 건데 뭘 끊어라 어쩌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녹이고 하는 것을 놓아라, 본래 그냥 놓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놓아라 하는 겁니다. 그대로 놓는다면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 버리는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유스럽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님 조성 모연문

본 암자 내원암은 지리산 도솔봉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산내 암자로 창건연대가 신라 경덕왕시대 8원 81암자 중 하나 였던 내원암이 6.25사변을 겪으면서 내원암에 거주하기 어렵도록 쇠락소멸 되어 터만 남은 것을 시절 인연이 도래함에 산승이 복원을 발원하여 현재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중 입니다.

하오나 본승의 원력이 부족함에 부득이 도솔봉 내원암에 모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불모 시주님과 법당에서 사용할 법당종 조성 불사 인연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심 깊으신 많은 불자님의 동참 인연을 기다립니다.

※ 불구와 가전 및 일체 생활용품 등도 보시를 기다립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 화엄사 산내 도솔봉 내원암 암주 보광당 지암 합장

연락처 전 화 061-783-0095
휴대폰 017-611-0096

● 온라인 : 우체국 601625-02-021246
국민은행 576-21-0308-915
예금주 : 장훈섭(지암스님)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사랑하는 사람 이자임 詩人

그리움으로 울고 말았다
그래 그리움
사랑으로 울고

내영혼 잠못드는 밤
우두커니 홀로앉아

온 밤을
지새워 울고

못내 그리운 마음
그래 찾아 가고 싶어



원장 이영숙 합장

■ 大후,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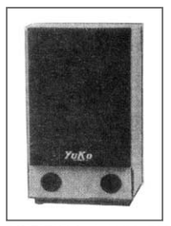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 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 개발약사 약력 -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 1966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빛한국본부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병 피부병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웰빙(Well-Being)특집

1 빗나간 웰빙 열풍

2 진정한 잘먹고 잘 살기

3 불교적 웰빙은?

지난 호에서는 외형에 집착해 상업화의 그늘에 묶여버린 빗나간 웰빙열풍에 대해 진단했다. 그리고 그것이 껍데기에 치중한 헛바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웰빙이란 무엇일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진정한 잘 먹고 잘 살기를 실천할 수 있는 '웰빙의 핵심 정신'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음건강이 진정한 웰빙



주말농장에서 화분을 만들며 심신의 안정을 찾는 가족들.

웰리빙(Well-Living)이 아닌, 웰빙(Well-Being)인 이유는 무엇일까. Living은 '삶' 정도로 풀이되는 '생활의 문제'이고, 'Being'은 '존재함'으로 해석되는 일종의 철학 문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웰빙을 '잘 먹고 잘 살기'라는 '생활'의 의미로 받아들임에 따라 물질적 웰빙 상품의 대명사로, '우유먹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웰빙 껍데기에 취한 웰빙족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한 우유, 좀 더 질높은 우유를 택하기 위해 갖은 소비와 투자에 목이 말라있지만, 그들은 결코 웰빙의 핵심을 얻을 수 없다. 맑은 공기

외형보다 정신, 철학적 의미 고민할 때
물질적 풍요로는 심신 평안 한계
친환경 소욕의 삶 실천과정 이뤄져야

풍요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 어긋난 웰빙 열풍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동안 간과해 왔던 웰빙 '정신'과 '철학'을 고민해야 할 때다.

웰빙 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흔히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비유를 사용한다. '우유'는 최근 인기가 치솟고 있는 와 노동의 땀방울로 일군 건강은 그 어떤 물질로 얻는 건강보다 귀하고 값지다. 물질의 지향은 물질로서 마감될 뿐, 정신의 평안 및 안녕과 합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웰빙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명상'에 관한 예를 들어보자. 웰빙족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관심은 수많은 명상센터의 확장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학습기를 통해 특정 뇌파를 유도함으로써 '명상의 상태를 조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물론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 혹은 자각이 그 궁극의 목적이겠지만, 이는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들을 섭렵함으로써 심신건강의 왕도를 지키겠다는 자세와 다를 바 없는 시도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최연실 교수는 "웰빙은 궁극적으로 정신적 행복에 이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자본을 투자해서 물질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웰빙은 지극히 궁핍한 상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웰빙의 대명사로 각광받고 있는 '유기농' 음식붐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유기농 음식의 매출이 늘고 있는 이유는 화학성분에의 거부 의사를 반영한 결과다. 유기농은 웰빙의 '친환경' 정신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밥 굶고 속 조리면서 일반 채소의 2~3배를 호가하는 유기농 채소를 구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 식품의 재배와 유통과정에서 친환경 개념의 실천이 일반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웰빙은 자연주의와 그 맥락이 닿아있다. 그 같은 사상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귀농에 직접 뛰어드는 경우부터 DIY(Do It Yourself, 직접 만들기) 풍조를 반영, 천연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예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는 다양하다. 무등골 비누만들기(cafe.daum.net/mdsoap) 운영자 유영월씨는 "2만원이면 무공해 천연 비누 10장을 만들 수 있다"며 "과정이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환경수호와 소욕 실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바로 웰빙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에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실장은 "현재의 웰빙문화는 산업의 대체이지 환경보존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왕이면 친환경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보이지만, 공기청정기 자체가 필요없는 사회 건설에는 무관심하다는 얘기다. 최 실장은 "개인의 웰빙이 사회적 웰빙으로 이어져야 웰빙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농촌체험은 건강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선사한다.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이 인정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⑲

6가지 맛 고루 섞인 신선한 음식 먹자



나쁜 음식 가려 먹는 법

가공 식품은 우리 몸에 들어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부분의 가공 식품들은 설탕과 소금에 절인 것들이다. 설탕과 소금은 음식물의 맛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아주 높은 농도의 설탕이나 소금에서 박테리아가 살아남지 못하는 게 그 예다.

설탕이나 소금은 알맞게 섭취할 경우 바타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지나칠 경우 조직에 나쁜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설탕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카파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마음, 즉 라자스를 증가시켜 정서 불안이나 흥분 상태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마음이 혼탁해지는 타마스 상태로 흐르게 된다. 소금 또한 마찬가지로 과다 섭취할 경우 피타를 악화시키고 마음을 라자스에 이르게 한다.

설탕, 소금 알맞은 섭취 바타 진정
지나친 양념사용 소화 작용 방해
정제·보관 과정이 알레르기 주범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맛은 적절히 사용할 경우 신진 대사에 큰 도움을 준다. 피타 영역의 분비물을 증가시켜 효과적으로 음식을 대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많은 음식물들에 이러한 고농도의 양념들을 지나치게 사용한 나머지 소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탈리안 피자, 멕시코 음식, 바비큐 소스나 피클, 겨자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런 음식들은 피타에 불균형을 가져와 소화 작용을 방해한다.

이런 자극성 음식들을 많이 먹을 경우 라자스를 증가시켜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정서 불안이나 집중력 저하,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음식 알레르기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대에 들어와 특정한 음식물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음식물들을 소화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증상들이다. 알레르기는 특히 밀가루나 낙농 제품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유르베다 관점에서 볼 때 음식물들은 알레르기의 주범이 될 수 없다. 범인은 그것들을 정제하고 보관하는 과정에 있다. 우유를 예로 들면 우유는 균질화시키는 과정에서 바타가 증가한다. 또 이것을 냉동하고 보관하며 찬 상태로 식탁에 올렸을 때 우유에 이미 존재해 있는 카파 성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무거운 성분은 위장의 소화력에 부담을 줘 우유를 소화시키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소화 방해는 피부뿐만 아니라 비강이나 호흡기 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음식 알레르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한 음식은 어떤 것일까?

자연적으로 달면서 6가지 맛이 고루 섞여져 있는 신선한 것이 좋은 음식이다.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영양을 충분히 받으면서 지성 또한 예리해지고 기억력이 향상하게 된다. 또한 마음속에 창조적인 성질, 사트바를 증가시킨다.

이상 '아하라'를 끝맺고 다음 호부터는 '비하라'에 대해 설명하겠다.

■ 포천 중문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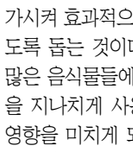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도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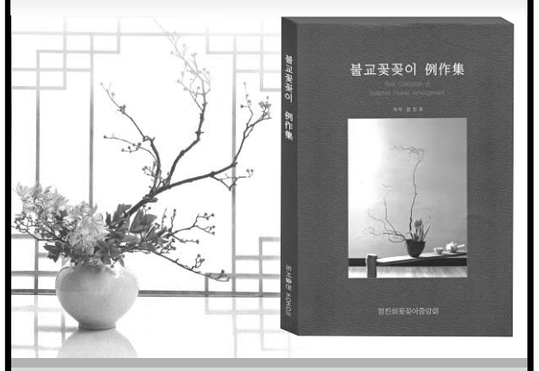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재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당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라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불교꽃꽂이 예작집


* 저자 : 정진희(동국대학교 불교정통꽃꽂이 강사)
* 내용 : • 상단꽃꽂이 • 예작편(例作)
• 영단꽃꽂이 • 禪(zen) 꽃꽂이
• 다화(茶化)
이 책은 누구든지 보고 따라하기 쉽게 제작 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정통꽃꽂이반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011-730-6845
011-280-0537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36-07-038816
예금주 : 정경란

화제의 신발

성불화 룸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남여공용
성불화룸비니

룸비니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이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룸비니를 신는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최첨단 신발과학의 명품으로 불지는 물론 일반인들 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광고를 믿지 않지만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신발이라도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던중 성불화룸비니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이상 가볍게 걸을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떠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가볍고 편안한 최고급 신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여의도에 사는 K씨도 골프화 대신 룸비니를 신고 다니는 친구가 신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 종교를 떠나 사신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단히 가볍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룸비니 신발은 최첨단 신소재와 20만원대 신발에만 사용하는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누벅을 사용했으며 밀창은 골프화 같이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하여 접지력과 마모력을 강화했고 눈, 비올때에 미끄럼 방지기능이 탁월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성을 갖추었다. 디자인면에서는 평상복 또는 케주얼복에도 잘어울리게 제작했으며 불자님들의 사찰불공시, 또는 성지순례와 해외여행, 등산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신발이다. 성불화 룸비니는 남여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 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 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갑신년 룸비니 선물로 부모님 건강장수 기원

갑신년 名品특집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특별사은품 증정



삼고 금강저(金剛杵)

삼고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만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악귀와 잡귀가 보기관 해도 도망치며 부처님의 지혜를 받는 성구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신발과 지갑, 향로, 밸트, 구입 불자님께 순금도금한 삼고 금강저(사진)를 특별증정한다.

왜! 삼고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1분 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납치, 살인, 간음, 강도, 유괴, 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삼고 금강저는 부처님의 법구 중 법구로서 닥쳐올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으 지혜를 얻어 승리하게 가족을 지키고 자신을 지켜주는 봄경에 입각한 수호신인 삼고금강저를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신발과 지갑, 향로, 밸트, 구입하는 분께 평생 지니고 다닐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축원불공을 마치고 특별증정 한다. 여성께는 핸드백 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노인과 어린이는 주머니속이 항상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최고급으로 제작했다.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 향로

'소원성취 향로'화제집중

99% 청동으로 만든 국보급 명작



관음예술원

불경에 입각한 성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손모양과 지물을 향로로 제작해 회제가 되고 있다. 최고급 청동으로 만들어진 "관세음 보살 여의주 백연화 수진언 향로"는 불경에 입각해 영험으로 저작된 국내 향로 가운데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이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손모양과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을 말하는 것으로 번영과 소원성취의 바람을 담고 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수진언은 그동안 큰 스님들을 통해 그림으로 그려져 불자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긴급비방으로 전해져 왔다. 사업이 어려울 때의 향로의 비방은 동쪽, 중대한 시험을 앞둔 함격의 비방은 서쪽, 자녀를 기다리는 임태의 비방은 북쪽, 승진과 취업의 비방은 서쪽, 병고 회복의 비방은 북쪽, 개업을 준비중인 성공 사업기원의 비방은 동쪽, 인연의 짝을 찾는 비방은 동쪽, 법적 문제 승소의 비방은 서쪽, 가정의 우기 또는 개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등 비방에 따라 향로를 놓고 진언, **"옴 바아라 바다리, 옴 바아라 미라야 사바하."**를 아침마다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의 성심으로 지혜를 얻으며 가지가지 보배 재물이 들어오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워 진다 했다. 출시한지 100일도 안되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집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도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 되고 있다. **관세음보살 수진언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수진언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예불시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고 있다. 두께 27kg,높이22cm,넓이17cm 가격295,000원

문의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갑신년 스님께 선물은 만행화



스님을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다. 눈을 들어 절 주변에 관심을 갖고 보면 너무나 어려운 스님, 노후에 거처가 편치 않는 스님, 병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스님 등, 가슴 아픈 분들이 절 주변에는 많이 있다. 영하의 추운 산속에서 검정고무신 하나로 겨울을 보내는 스님께서 동상이 걸려 고통 받는 스님도 계시고 그것이 고행이라 생각하고 수행하는 스님도 있다. 불자라면 꼭 자기가 모시는 스님이 아니라도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뜻한 자비의 신발을 보시한다면 전생에 지은 무명업장을 녹이고 오는 생에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복중에 제일가는 복이 인연복"이라 했다. "작은 불씨라도 마음을 열면 무량대복"된다고 했다.

120년만에 찾아온 갑신년이 스님전용 신발인 만행화를 보시 한다면 무명업장을 녹이고 무량대복을 받을 것이며 스님께는 건강장수하여 원대한 포교 원력을 가지고 중생구제에 힘쓸 것이다. 스님전용 신발 만행화 룸비니는 (주)룸비니에서 스님의 승복 색상이 맞춰 품위있게 제작된 최고급 신발로 대단히 가볍고 편하며 장시간 만행에도 피곤함을 극소화 시킨 신발과학의 결정체라고 회사 관계자는 자부한다.

만행화신발은 스님의 건강을 위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초운겨울에는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땀을 배출하는 기능과 눈비올때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하게 제작된 최고급 기능성 신발이다. 가격88,000원

보시 또는 문의전화 : 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금강저 건강밸트

부처님의 불력으로 남자들의 승리와 안전의 수호신



혐한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국내 최대의 불교성구 제작 전문 업체인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 밸트를 제작하여 남자들로 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에서 금강저는 험한 세상 사는동안 악을 물리치고 화를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각자 소망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승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법구다.

부모님께 건강의 선물!
남편에게 승리의 선물!
학생에게 지혜의 선물!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금강저는 부처님의 불력으로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치며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로 봄경에 입각하여 제작된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제작 한것이 돋보여 직장인은 물론 중, 고등학교 학생과 수험생, 경찰관, 군인 등 믿음의 호신용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강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밸트로 평가되고 있다. 출시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문의전화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

새상품

살빼는 신발 스피드 인기

독일 뮌헨 다이어트 기능대회 대상수상



착지시 뒷굽이 15° 공중에 떠있는 과학적인 신발

'살빼는 신발' 국내외 인기폭발

미국 일본 한국 등 3개국에서 발명특허를 받고 독일 뮌헨 다이어트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살빼는 다이어트신발, 스타핍드"가 국내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신으면 살이 빠지는 신발"을 개발한 부산 삼덕통상(주)는 초기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지에 전량을 수출, 단기간에 폭팔적인 인기를 얻고 세계적인 기능성 신발 메이커로 부상했다. 특히 독일에는 이 신발이 비만의료기로 수출되고 있다.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삼덕통상측이 이제 국내시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 있는것이다.

이 신발을 신고 30분만 걷거나 뛰어도 3시간 이상의 운동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됐다. 이 신발은 하치와 허리를 날씬하고 튼튼하게 단련시키거나 허리를 반듯하게 균형잡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도록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도입됐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 고민하는 이나 다리에 힘이 없고 복부비만으로 고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발의 이용을 권하고 있다. 수출의 날 대통령상과 산업평화상도 받은 스타핍드 신발은 "마라톤 선수들이 발의 앞부분으로만 뛴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며 "뒷굽을 앞에 까치발식 걸음으로 복부와 다리에 힘을 쏠도록 한다"는 원리를 원용한것이다. (080-555-3030)

부산=이영자 기자 yj3119@hot.co.kr

하루1시간 운동으로 월 2kg빠져





부처님 福지감

룸비니 福지감

東西南北의 福을 모으는 佛力!



120년 만에 온 갑신년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지금으로 부터 120년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든 해로 정변의 기운이 넘치는 해다. 역학적으로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흘러 정치는 격동기를 맞을 것이며 민심은 구심점이 없이 방황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서방의 氣가 동방으로 불려 괴질과 풍토병이 만연하여 氣가 약한 사람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해로 누구에게나 갑신년은 좋은 해는 아니다. 역학적으로 볼때 갑신년은 집을 잃고 방황의 해다. 정치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돈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민심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건강도 방황하지만 갑신년 후반기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집을 찾아 안정이 된다. 옛부터 갑신년에는 누구에게나 삼재를 당하는 해와 같다하여 화를 쫓고 악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고 지혜를 얻기위해 부처님 공양구 또는 법구를 집안에 또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삼재를 물리치고 건강장수 하며 복을 받는다고 했다. 특히 갑신년에는 돈이 집을 잃고 방황하는 해라 하여 금의 해라 하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 지갑으로 바꾸면 방황하는 돈이 새 지갑으로 들어으는 해로 120년만에 은 갑신년이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부처님 성구 ㉮자를 지갑 정면에 넣고 갑신년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금강저를 지갑 내부에 순금도금하여 넣었으며 부처님 꽃이며 소원 성취꽃인 백연화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했다. 부처님 지갑인 룸비니복지갑은 명산인 소백산에서 부처님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드린 영험의 지갑으로 출시된지 1년동안 안되든 장가가 잘되고 어려운 사업이 풀리는 등 숫한 화제를 낳은 지갑이다. 룸비니지갑은 안과 밖이 똑같은 최고급 천연 양가죽으로 내부도 기존지갑과는 비교가 될수 없게 대단히 잘 구며져 있으며 국내 최고급 지갑으로 인정받고 있다. 남녀공용 반지갑은 55,000원, 여성용장지갑은95,000원에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 신청하면 보내준다.

전화080-330-7555
농협906-12-369914 김현석